



10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10호

(루계 576)



◆◆◆◆◆◆◆◆◆◆

차 례

◆◆◆◆◆◆◆◆◆◆

우리의 10 월	4
사냥의 아침	5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17
불멸의 영상	19
해는 동쪽에서 뜬다	25
붉은기와 속삭이다	32
만병초	33
기쁨	37
밝아오는 아침노을속에	38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노래	40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칭송한 시대의 찬가	41
위대하신 그이께	46
당창건기념탑앞에서	47
로동계급출신의 신진작가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시여	49
한그루의 나무, 한줌의 흙도	51
우리의 장군	53
어머니의 목소리	53
인간사랑의 찬가	55

당창건기념탑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58
가을날의 들판에서	60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며	61
탑은 말한다	62
50 년의 가치	63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65
위대한 스승을 모신 행복.....	67
변함없는 삶	70
대지를 적시는 봄비 (외 1 편)	72
이삭이 익는다.....	73
로동계급에 대한 전형화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	74

우리의 10월

고종술

10월어로!

하루같이 즐기치게 달려왔다

이 10월에 마음을 이어놓고

맞고 보낸 날들이

왜 그리 빨리만 흘렀던지

이날에 마음 두고 우리 살았다

승리의 단상우에 높이 모실

아버이장군님을 그리며

저저마다 불타는 맹세속에

위훈의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날을 맞는

우리의 기쁨은 이렇듯 끝없는것인가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선

우리 인민모두는 이렇듯 떳떳한것인가

오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떨치자고

그렇듯 크나큰 믿음과 천백배의 힘을 주신

아버이장군님의 새해 친필서한을

걸음걸음 빛내여온 위훈의 나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그이를 우러러 격정을 터치는

당창건 50돐 력사의 이 순간을 안고

온 한해 벌에서 산 만풍년의 그 기쁨이

여기 축전장에 설레이고

년간계획의 마지막 비단필 끊고

충성의 보고를 안고온 저 방직공들

그리고 방금 조국의 기슭에 닳을 내린

저 무역선단 선원들의 감격도

여기 축전장에 넘쳐나고있어라

아 기쁨과 감격이

영키고 합쳐져 뒤설레이는

우리의 10월이다

수령님의 전사답게

수령님의 제자답게

장군님을 받들어온 영광의 자욱우에 빛나는

승리자의 대축전이다

단결의 10월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철통같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아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

서로 뗄수 없는 혼연일체가 되여

끝없는 신뢰와 의리 속에 영원할

우리의 10월이다

우리의 10월이다

사냥의 아침

날이 채 밝기도전에 이와노브대사는 잠에서 깨어났다. 미풍에 락엽이 살랑살랑 굴러다니는 마가을 새벽이었다. 대사는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었다. 그리고는 코냑개를 벌름거리며 새날의 청신한 공기를 달게 들이키었다. 그의 파르스름한 눈동자와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은 그가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아침사냥을 가는 날이다.

사냥은 이와노브대사의 첫째가는 취미이다. 연제인가 그는 씨비리에서 콤사냥으로 한해휴가를 고스란히 보낸적도 있었다.

어느날 **김일성** 동지께서는 연회석상에서 이와노브와 함께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대사에게 물으시었다.

《대사선생은 사냥을 몹시 즐긴다지요?》

《네. 명포수는 못되지만 대단한 애호가이시요.》

《그렇다면 한번 솜씨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수상동지, 그것은 오히려 제가 드리고싶었던 청입니다. 저는 수상동지의 사격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냥을 가실 기회가 생기면 이 대사를 잊지 말아주시시오.》

《그런 청이야 못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내 솜씨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석달전에 있던 대화였다.

어제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께서 오늘의 아침사냥에 자기를 초대하시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의 초청을 고맙게 받아들이었다.

대사의 부인 마리야는 온밤 **김일성** 동지에게 대접할 뷔페를 구웠다.

이와노브는 야영지로 떠나는 아이들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이방저방으로 수선스럽게 돌아다니었다. 사냥준비를 위해 그가 특별히 한 일은 따로 없었다. 준비는 간밤에 안해가 다 해놓았었다. 이제 남은것은 뷔페와 몇병의 음료를 구렁에 집어넣는것뿐이었다.

그래도 대사는 무엇인가를 놓친것만 같아 줄곧 안해의 곁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고무장화를 신고 두벅두벅 현관문쪽으로 걸어가다가 면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화장실도 향하였다. 이와노브의 면도주기가 이틀이라는것은 온 대사관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주기대로 한다면 그는 래일 수업을 밀어도 된다. 그러나 이와노브는 전

례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대사가 면도를 하고있는 사이에도 서재의 축음기에서는 《발칸의 별밑에서》를 연주하는 바얀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마리야는 오늘 새벽 벌써 이 노래를 세번째나 틀어놓는다. 《발칸의 별밑에서》는 이와노브와 마리야가 가장 사랑하는 명곡이다. 이와노브가 전상자병원에서 퇴원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날도 마리야는 이 노래를 틀었고 그가 조선대사로 임명되어 평양에 도착한 날도 역시 마리야는 이 노래를 틀었다. 발칸의 별밑에서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던 병사들처럼 이와노브와 마리야도 조선의 하늘밑에서 때없이 조국을 그리었다.

이와노브는 길차비를 끝내고 집을 나설 때 마리야는 별스럽게 정원에까지 따라나왔다.

《여보, 마리야, 내가 떠난 다음 당신은 꼭 잠을 자야 하오. 첫새벽부터 수고를 많이 했소. 오늘은 나도 사냥터에 가서 풍작을 거둘것 같소. 허리가 부러지게 오리를 지고올테니 불고기준비나 잘하구려.》

마리야는 그 말을 듣자 두손으로 이와노브의 가슴을 슬쩍 떠밀었다.

대사는 안해의 힐난하는듯한 눈빛을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마리야, 왜 그러오?》

《당신은 오늘 사냥군으로서가 아니라 대사로서 **김일성** 동지를 따라간단말이에요. 사냥도 외교사업이라는걸 망각하지 말아야지요.》

이와노브는 두팔로 안해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정답게 물었다.

《마리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요. 내가 사냥터에 가서 무슨 커뮤니케같은걸 발표할수야 없지 않소.》

《커뮤니케만 뭐 외교사업인가요. 한 나라 수반과 친교를 맺는데서 사냥만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난 **김일성** 동지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싶어요. 그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들중의 한분이니까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세요.》

《알겠소, 마리야.》

이와노브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리야의 말이 옳았다. 사냥은 **김일성** 동지께서 이와노브를 위해 마련해주신 외교적특대인 동시에 대사가 그이와의 친교를 새로운 단계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같은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수십차에 달하는 **김일성** 동지

와의 접촉이 공식적인 계기나 경로를 통해서만 유지되어왔을뿐이다. 사냥은 그 모든 접촉이 이루어놓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이와노브대사에게 선물할지도 모른다.

마리야와 마찬가지로 이와노브도 **김일성** 동지를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위인으로 존경하였다.

대사는 1930년대에 벌써 그이를 《동방의 등대》로보았다. 조선전쟁직후 그는 자기의 비망록에 《미제의 서산락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김일성 그이는 세계적거인!》이라고 써넣기까지 하였다. 몇해전에는 그 비망록에 《굴종과 타협을 모르는 당당한 자주외교, **김일성** 동지는 외교의 대가! 알기메데스의 지레대가 여기에 있다.》는 찬사가 보태졌다.

이와노브가 차에 오를 때 마리야는 보통날과 달리 그의 볼에 세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이와노브는 평양의 중심부를 한바퀴 돌아본 다음 보통문앞거리에 가서 **김일성** 동지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아침일찍 차를 타고 거리와 광장과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속도와 미담으로 새겨지는 이 도시의 신비를 감상하는것은 대사의 돌도 없는 락이었다.

이와노브는 보통날과 다름없는 이 레사로운 날이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깊은 날중의 하나로 될것이라는 흐뭇한 기분에 싸여 1 백화점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살림집건설장이 오른쪽시창으로 어슴푸레 바라보이였다. 육중한 짐작들을 실새없이 들어올리는 기중기의 철골에는 별들이 매달려서 바글바글 끓고있었다. 저 멀리 어디에선가는 레루우를 굴러가는 기차바퀴소리가 들려왔다.

대동교쪽에서부터 미속으로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전조등을 끄고 갑자기 종합청사앞에서 멎어섰다. 이와노브는 차에서 내리시는 **김일성** 동지를 알아보자 인차 발동을 끄고 문을 열어제끼었다

《이와노브대사선생이 아닙니까?》

김일성 동지께서 먼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시였다.

이와노브는 차에서 내려 그이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렇습니다. 수상동지, 이 새벽에 벌써 어디에 다녀오십니까?》

《저-기 동평양에 갔다옵니다. 조립식주택건설장을 돌아보았지요.》

《그러면 간밤을 건설장에서 교박 밝히신게 아닙니까?》

《그렇리야 있습니다. 잠간 지체하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내가 잘 아는 작업반이 일하고있는데 어제 성 순회우승기를 탔다고 합니다.

건설자들을 축하해주려고 찾아갔더니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고 막 야단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잠이란 보약과 같다는거지요.》

이와노브는 그 말씀을 듣자 어쩐지 가슴이 열 열해났다. 그는 **김일성** 동지께서 출발시간을 여섯시로 정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실 때 일곱이나 여덟시로 늦잡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것을 후회하였다. 대사는 그이께서 자기때문에 새벽잠을 설치신것만 같아 송구스런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를 재건하시느라 분과 초를 쪼개쓰시는 수장동지께서 한사람의 외교대표를 위해 이 새벽과 아침을 통채로 바치신다는것은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은정이 아닌가싶었다.

《건설장까지 돌아보셨다니 몹시 피곤하시겠습니까.》

대사가 하는 말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어보이시였다.

《피곤이라니요. 그거야 휴식이지요. 나는 사람들과속에 들어가는것을 보약으로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보약이라는 말씀에 력점을 찍으시는듯 아까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와노브는 새로운 시상을 받아안은 사람처럼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이의 얼굴을 경건하게 바라보았다. 그이의 음성과 손짓, 몸짓에서 풍기는것은 새 생활을 창조해가는데서 발산되는 신흥의 기상만이 아니였다. **김일성** 동지의 억양과 음조에서는 방금 건설장에서 만나본 사람들에게 대한 련련한 애정이 느껴졌다.

지금쯤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있을가.

이와노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언제부터였던지 대사에게는 평양과 모스크바를 한평면상에 놓고 량자를 등거리에서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떤 때는 그 량자가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비교의 여지가 전혀 없는 동류항으로 되기도 했다.

한나라의 하루가 새벽 5시가 되기도전에 국가원수의 건설장 지도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것을 크레믈리의 지도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개인미신》의 무한계도로 선대가 이루어놓은 모든것을 짓밟개버리며 새 조류가 활개치는 쏘련의정국은 을씨년스럽기만 하였다.

얼음장미를 흐르는 물처럼 민심은 컴컴한 혼돈속을 헤매고있었다.

이와노브도 이 민심의 한복판에서 시시로 고민하였다. 참다운 정치지도자의 부재는 그로 하여금 시선을 동방으로 못박게 하였다.

조선은 그 동방의 초점에 있었다.

잠시후 대사는 **김일성** 동지를 따라 하당리쪽으로

로 향하였다.

전등불들이 무연한 공간에 가득차 별처럼 흐르는 도시의 일각이 후사경우에 언뜻언뜻 비치다가 까마득히 뒤로 물러가고 그루터기만 남은 논배미들과 남새밭들, 강냉이밭들이 연줄연줄 차창앞으로 다가왔다. 평양준평원의 서북쪽일경이었다. 전야 저쪽의 멀지 않은곳에는 삿갓모양의 크고작은 산봉우리들이 점점이 솟아있었다. 어떤 산봉우리들과 구릉들은 손을 뻗치면 닿을듯말듯한곳에 웅크리고있었다. 평양교외에만 나서면 어데서나 마주치게 되는 조선특유의 가을풍경이다.

이제는 서름서름하던 이 산천에도 정이 들었다.

지금은 평양교외에 한발자욱만 나서도 조선말로 《내 나라》를 흥얼거릴 정도로 그도 이 나라 산천경계에 사랑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노브는 부임직후의 등산길에서 진달래라는 꽃을 본 다음부터 조선의 자연에 완전히 심취되었다.

5월이면 대사의 책상우에도 진달래가 어김없이 놓이곤한다.

아쉬운것은 이 나라에 농경지가 적은것이다.

이와노브대사는 차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을 덤덤히 바라보면서 가도가도 끝이 없는 일망무제의 고향평원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의 조국은 평원의 나라 장강의 나라였다.

그런데 이와노브가 3년째 살고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산과 골짜기가 너무도 많았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땅은 작다. 원산과 남포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승용차로 몇시간만 직행하면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룰수 있다.

철조망과 지뢰밭이라는 인공적인 장벽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진 두토막중 한토막이 바로 이와노브가 주재하고있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1만평방키로메터를 조금 웃도는 그 한토막의 영역은 수천만평방키로메터의 평토를 가진 평원의 나라에서 온 대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았다.

그러나 이와노브는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나라를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습관되었다. 어떻게 되어 그런 습관이 붙었는가 하는것은 대사자신도 잘 모른다.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이면서도 큰 나라로 보이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가.

령산에서 서쪽으로 얼마쯤 더 가면 물오리들이 떼를 지어 서식하는 담수호를 볼수 있다. 이 호반이 바로 이와노브대사를 위해 선정된 오늘의 사냥터이다. 대사가 **김일성** 동지와 함께 사냥터에 당도한것은 해가 뜰무렵이었다.

갈밭속에서 잠자는 호수, 어느 부지런한 공예사가 평생을 두고 연마해놓은 거울은 아닌지. 차이콥스키 작곡의 고전바레에서 본 백조들이 금시 호수우에 나타나 하얀 날개를 흔들며 우아하고 화려한 물동을 펼칠것만 같다. 그 《거울》 저쪽은 전야다. 전야 저쪽에는 제방둑이 있다. 뚝가에 일매지게 늘어선 뽕뿌라나무들은 파수에 여념이 없는 기다리들을 방불케 한다. 제방둑너머로는 울망줄망한 농가들을 거느린 산자드락이 보인다. 실날같은 소로길이 자드락을 타고 요리조리 뻗어가다가 기진한듯 송림속으로 꼬리를 사리었다. 그 소로를 따라가면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산촌의 어떤 신비경과 맞닿을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와노브는 삼라만상을 온통 장미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이른 해돋이의 황홀경에 그만 넋을 잃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허리에 두손을 얹고 물오리들이 날아내리는 풍경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탄성을 듣자 대사쪽으로 얼굴을 돌리시였다.

《사냥터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구말구요. 경치가 기막힙니다. 공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부르죠아라면 이 호수가의 공기를 가지고 장사질을 하겠습시다. 가족부대같은데 넣어서 도표나 뉴욕의 부자들한테 팔아넘긴단말입니다. 1년안팎에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참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지구상에는 산소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인가는 공기를 팔고 사는 시대가 꼭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이 호수가에도 산소통을 댈면 공기장사꾼들이 쓸어들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렵도 없습니다. 그네들이 이교장 공기를 다 사가면 우리만 거덜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와노브는 파산입니다.》

대사는 이런 롱을 하고나서 상체를 흔들며 요란하게 웃어댔다.

김일성 동지께서도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에 두팔을 모아붙이고 한참동안 호반을 이리저리 거니시다가 물가에서 삼십메터쯤 떨어진 모래밭로 총총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와노브는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그리로 발길을 돌리는지 알수 없어 눈만 슬쩍거리였다. 부관도 영문을 몰라 대사의 곁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모래밭에 무릎을 접고앉아 잠시 무엇인가를 굽어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손사래질로 대사를 불렀다.

《대사선생, 이것 좀 보십시오.》

이와노브는 그이의 곁으로 뚜벅뚜벅 다가갔다.

대사의 눈앞에는 로천에서 가마나 남비를 걸어 놓고 음식을 끓일 때에 사용하곤하는 불에 그슬린 고임돌 두개가 서있었다. 대사는 어떻게 되어 그 보잘것 없는 막돌들이 **김일성** 동지의 주의를 끌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어죽가마를 걸었던 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죽을 썰먹고 잤단말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손등으로 고임돌을 툭툭 두드리시다가 대사를 던지시 돌아보시었다.

이와노브는 어안이 빙빙해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무엇때문에 **김일성** 동지께서 그토록 흥분하시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어죽이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썰어먹을수 있는 보통 음식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김일성** 동지께서는 천렵군들이 남기고간 그 흔적에 그다지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계실까.

《**김일성** 동지, 어죽을 썰먹는거야 아무고장에 가거나 불수 있는 레상사가 아닙니까.》

대사의 무람없는 질문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임돌앞에서 몸을 일으키고 대사를 정면으로 마주 바라보시었다.

《레상사라고 할수 있지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부터는 천렵놀이가 사라졌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어죽이 다 뭉니까. 우리 인민의 전쟁정서는 그런 〈사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천렵놀이를 외면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와노브대사는 숙연한 생각에 잠겨 그이의 말쑤에 귀를 기울이었다. 대사의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재난을 당한 나라의 수반, 세상에서 가장 인민의 운명에 민감하시고 책임적이신 수령님께서 서계시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서 사람들이 어죽을 썰어먹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복구건설에만 전념해온 우리 인민의 정서는 벌써 산과 강과 호수와 바다에까지 미치고있단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사선생,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것입니다.》

《수상동지의 심증을 이해할만 합니다.》

이와노브는 목이 짹 메어올랐다. 대사는 **김일성** 동지의 소박한 말쑤이 왜 그다지도 자기의 심금을 울리는지 알수 없었다.

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생각에 몰두있는것을 보이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끼고 호수가쪽으로 걸음을 떼시었다.

《대사선생, 궁상스럽지요?》

너무나도 비약된 물음이었다. 하지만 이와노브는 그 물음의 뜻을 인차 깨달을수 있었다. 그는 바른편 손으로 허공을 급하게 내리그었다.

《아닙니다. 그게 왜 궁상스럽겠습니까. 자기 인민의 고락을 두고 마음쓰는거야 송고한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습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야 어죽이 뭐 그리 대단한것이겠습니까. 그거야 어쩌다 한번씩 심심풀이삼아 먹는 음식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죽대신 카스테라와 생과자를 먹고 우유나 레몬수같은것을 마시고 잤다면 나는 물론 더 기뻐했을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도 알다싶이 우리 생활은 아직 풍족하지 못합니다.》

이와노브는 아까처럼 또 손으로 허공을 내리그었다.

《수상동지, 그건 너무 겸허한 말씀입니다. 나는 귀국의 상점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김일성 동지와와의 대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든지 이와 같이 항상 인민이라는 종착점에 가닿곤하였다. 인민이라는 존재는 그이의 사색과 말쑤를 관통하는 일차적인 주제였다. 세계를 들었다놓을수 있는 사변적인 화제도 **김일성** 동지와와의 대화에 오르기만 하면 결국 인민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에 흘러들곤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이의 말쑤이 단순해지는것도 아니었다. 인민이 주인공으로 될수록 **김일성** 동지의 말쑤는 끝없이 다양해지고 그이의 예지는 무한정 발동되곤하였다.

이와노브는 수령의 사색과 활동에서 인민이 이처럼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는 나라는 무한히 부강하고 번영하리라는 확신이 생기었다.

《수상동지, 나는 귀국이 생활수준에서도 조만간에 선진국가들을 따라앞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의 말은 **김일성** 동지의 안광에서 미소로 반사되였다.

《감사합니다. 조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 당과 국가는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연설〉을 너무 길게 하는게 아닙니까. 이제는 사냥을 시작해봅시다. 대사선생은 여기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나는 저쪽에 가겠습니다. 〈전리품〉을 나르는 일은 저 《번개》가 감당해낼것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승용차결에 두귀를 곤두세우고있는 사냥개를 가리켜보이신 다음 호수가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부관이 승용차를 몰고 천천히 그이의 뒤를 따라갔다.

이와노브는 물가의 청석우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럽총에 탄알을 채웠다. 청석우에는 장풍이라는 풀로 엮은 큼직한 포아리가 놓여있었다.

김일성 동지를 것처럼 기쁘게 한 천렵놀이의 주인공들중 누군가가 낚시질을 할 때 사용한 풀방석일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바다가쪽에서 돌연 한무리의 오리떼가 호수를 향해 날아왔다.

이와노브대사는 총대를 하늘로 쳐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오리떼를 겨냥하는 대사의 눈동자에 긴장이 실려있다. 날아오고 날아가는 오리떼의 서열이 조성속에 여러번 놓이였으나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김일성** 동지께서 아직 총을 한방도 쏘지 않으셨기때문이었다. 대사는 그이께서 첫방을 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레절이라고 생각하였다.

부관이 물가의 장풍덤불속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모습이 보일뿐 호수가 북쪽에서는 별다른 기미가 없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호수의 서쪽변두리를 지켜보고계시였다. 그러시다가 부관이 다가가서 무어라고 말씀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냥총을 들어올리시였다. 호반을 감도는 해돋이의 정적이 그 총구끝에서부터 천만가닥으로 파열될것 같은 순간이었다.

이와노브는 겨냥이 늦어질세라 오른쪽 무르팍에 팔굽을 대고 총을 앞으로 끌어당기였다. 그리고는 한쪽눈을 지그시 감고 호심에서 물장구를 치는 오리떼를 응시하며 숨을 크게 들이그었다.

김일성 동지의 총구에서 《땅!》 하는 총성이 울린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사는 무심결에 호수서쪽변두리로 눈길을 돌리였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던 오리 두마리가 돌덩이처럼 땅에 곤두박치였다. 대사는 《번개》가 로획물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가는 모양을 돌아보면서 웃음을 지었다. 총성에 놀라서 한동안 호수상공을 선회하던 오리들이 다시금 이와노브의 《진지》가까이에 떼를 지어 쓸어들었다. 대사는 그 떼가 물우에 내려앉기 바쁘게 방아쇠를 당기였다. 수십마리의 오리가 아우성을 치며 일제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한마리만은 무리에서 떨어져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로 솟구쳐오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번개》가 어느새 물속을 헤여가 산탄에 맞은 《전리품》을 물고 이와노브의 곁으로 달려왔다.

대사는 첫 마수거리에 만족하였다. 5분이 지나서 그는 또 한마리를 쏘아잡았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실적을 올릴수 없었다. 오리들이 이와노브의 《진지》가까이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간혹 한두마리씩 먹이를 찾느라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오리들은 이와노브의 사격권안으로 다가들듯말듯하다가도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 호수가 북쪽으로 날아가버리곤하였다. 대사는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물가를 이리저리 따라가며 별로 겨냥도 하지 않고 마구 총을 쏘아댔다. 그가 초조해하면 할수록 산탄은 파격을 명중하지

못하고 더 빗나가기만하였다. 《번개》마저도 그의 곁에서 슬그머니 떠나가버리였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께서 자기의 사냥이 흉작이라는것을 알게 되면 몹시 허전해하실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어깨가 저절로 처져내리였다. 씨비리의 본토배기들을 깜짝 놀라게 하던 명포수의 숨씨는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버렸단 말인가.

초조와 방황의 70분이다. 조반을 설친탓인지 시장기가 났다.

이와노브는 빠로그와 크와스와 포도주가 들어있는 구력을 들고 물가를 따라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호수가 북쪽에서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사는 **김일성** 동지의 모습을 찾느라고 연송 눈을 팔았다. 갈밭이 앞을 막아서인지 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대신 부관이 웃으면서 마주 걸어왔다.

《우리 수상님께서 대사동지의 총소리가 왜 멎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휴전〉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수상님께서 왜 사냥을 그만두셨습니까?》

《대사동지의 총소리가 멎자 수상님께서도 총을 거두셨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수상님께서 지금 대사동지를 기다리고계십니다.》

이와노브는 부관과 함께 갈밭모퉁이를 바빠 돌아갔다. 그 순간 대사는 걸음을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사가 밋밋한 언덕밭이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 무엇인가를 열독하시는 **김일성** 동지의 진지한 모습이 눈에 확 비쳐들었던것이다. 그이의 곁에는 수십통을 헤아리는 봉투편지가 쌓여있었다. 급한 회신을 요구하는 외교문건일수도 있다. 얼마나 절박한 서한이면 사냥터에까지 가지고 와서 보시겠는가.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의 하루업무량이 얼마이며 그이의 로동시간이 몇시부터 시작되어 몇시에 끝나는가를 아직 똑똑히 모른다.

그가 알고있는것이란 각국의 수반들과 정치가들중에게 **김일성** 동지만큼 사업강도가 높은 정도자는 없다는 사실뿐이다. 낮과 밤의 구별이 따로 없고 사무실과 실천현장의 차이를 특별히 따로 두지 않는다는것이 그이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 나라 외무성 고위간부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감을 옆으로 밀어놓으신다음 이와노브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대사선생,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 그래 사냥성적이 어떻습니까?》

《락제입니다. 글썽 두마리가 뵈니까.》

《허허, 그것참, 그놈의 오리들이 귀빈도 몰라보다니...》

《나를 혹시 공기장사군으로 오해하는게 아닐까요. 도무지 곁을 주어야지요.》

《내 생각에는 선생이 아까 이고장 공기를 가지고 장사질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들이 그 말을 엿듣지 않았겠는가 하는겁니다.》

이와노브는 그 말씀을 듣자 목소를 터뜨리었다. 그리고는 물었다.

《수상동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저 쓸쓸합니다. 그렇지만 대사선생 덕분에 락제는 겨우 모면한것 같습니다. 대사선생이 쫓아보낸 오리들이 자꾸 내쪽으로 날아왔으니까요.》

이와노브는 온몸을 들썩거리며 좀전보다 더 크게 웃어댔다.

대사는 **김일성** 동지의 승용차앞에 무대기로 쌓여있는 여러문마리의 오리를 보자 그이께서 락제를 모면했다고 하신것은 지나친 겸손이었다는것을 간파하였다.

《수상동지, 수상동지의 오리들은 나의 진지로 한번도 날아오지 않는데 왜 나의 오리들은 자꾸만 수상동지의 진지로 날아갈까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물가로 다가가시었다.

《비결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기 저 물속을 보십시오.》

대사는 호기심을 모아 그이께서 손짓하시는 곳을 바라보았다. 노끈으로 다리를 동인 세마리의 집오리가 물속에서 먹이를 쫓고있었다. 노끈의 한쪽끝은 모두 물가의 갈대에 열추 매여있었다. 저 집오리들이 도대체 오늘의 사냥과 무슨 인연이 있단 말인가.

《저건 내가 집에서 가지고온 오리들입니다. 저것들이 오늘 나를 도와주었지요. 유인작전에 가담했다고 할가요. 나는 총을 한번씩 쏘고나서는 부관을 시켜 저 집오리들을 울리군했습니다. 여기가 안전지대이니 날아와도 좋다는걸 시위하는 거지요. 오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여기로, 나한테로 날아왔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그치고 허리를 굽혀 노끈 하나를 급작스레 잡아당기시었다. 급습을 당한 오리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이와노브의 얼굴은 조명이라도 받은것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대사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오묘한 사냥방식이었으나 알고보니 단순한것이였다.

《수상동지, 그건 책에서 터득한 묘리입니까?》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 우연한 기회에 찾아냈습니다. 내가 원래 오리라면 무심히 지나지 않습니다. 인민들한테 밤낮 오리고기를 먹일 생각만 하다보니 그런 방법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어느 호수가를 지나가다가 집오리들이 물가에서 돌아다니는 모양

을 구경하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니까 물오리들은 집오리가 껍썩거리며 돌아다니는곳에 집중적으로 내려와 앉지 않았습니까. 짐승들사이의 호상관계에서도 아마 동질성이 많이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리치를 참고해서 만들어낸게 바로 내 사냥방법입니다.》

대사가 상념에 잠겨 호반을 거닐고있을 때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관을 불러 그에게 몇가지 분부를 하시었다. 부관이 세마리의 집오리를 승용차에 싣고 호수가 남쪽으로 떠나가자 그이께서는 이와노브의 팔을 끼고 걸음을 떼시었다.

《이시각부터 나는 저 집오리들의 소유권을 대사선생에게 넘깁니다. 부관이 이제 선생의 진지에 그것들을 비끄러매둘것입니다. 한번 단단히 봉창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만 내가 봉창까지 하느라하면 사냥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길어지면 뭐랍니까. 오늘이야 일요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냥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수상동지의 시간을 지나치게 침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선생,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니 마음을 꼭 놓으십시오. 나와 대사선생이 이렇게 한집안 식구처럼 물가에서 만사를 다 잇고 사냥놀이를 할 때가 몇번이나 되겠습니까. 부관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앉아서 이야기나 좀 나눕시다. 가만, 내가 선생에게 보여주고싶은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방금전에 대사를 맞느라고 잠깐 밀어놓았던 편지봉투속에서 속지와 함께 새하얀 미봉지로 알뜰히 포장한 사진 한장을 뽑아 들고 이와노브한테 넘겨주시었다. 한쌍의 애젊은 남녀가 울밀대를 배경으로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서서 찍은 사진이였다.

남녀가 다 시골리는 나지만 눈정기가 좋고 차림새가 깨끗한 20대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였다.

그런데 입학자명단을 보러 온 수험생들처럼 표정만은 굳었다. 배경의 울밀대는 실물이 아니고 세트였다. 그 시절의 지방사진관 세트들에는 울밀대가 류행되였다. 수도 평양에 대한 전인민적인 동경심의 반영이였다.

남자보다 키가 한뼘쯤 더 커보이는 사진속의 녀자는 퍼그나 억실억실하게도 생기였다. 땡기가 달린 치렁치렁한 머리태를 어깨앞으로 넘겨 기슭에 드리운 모습은 멋스럽다기보다 오히려 당돌하고 과감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선이 가늘고 얇전하게 생긴 남자의 모습은 말팔랑이같은 녀자의 모습에 비해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체소

하고 빈약해보이였다. 차라리 서로 성별을 바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조차 들었다.

이와노브는 사진을 미농지에 써서 **김일성** 동지 앞으로 밀어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이지만 사진속의 너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김일성 동지의 얼굴은 불시에 환한 웃음으로 덮이였다. 대사는 **김일성** 동지의 안광에 어리는 애뜻한 정을 읽고 그이와 처녀사이에는 어떤 깊은 연고가 있으리라는것을 감촉하였다.

《그 처녀는 목장에서 돼지를 기르는 작업반장입니다. 한때 작업반의 돼지들이 모조리 죽어 넘어지는바람에 재판을 받을뻔했다가 내 보증으로 관대하게 용서를 받은 동무이지요. 그후에 그는 일을 잘했습니다. 돼지마리수가 세곱으로 늘어나자 처녀는 기뻐서 이렇게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곁에 총각은 처녀의 애인이구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약혼사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약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있을뿐이지요. 이 사진은 총각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찍은것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총각을 둔장질해서 찍었다는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처녀총각의 부모들과 친지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걸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사진을 흘리고 다니는바람에 그만 내막이 다 드러나게 되었지요. 처녀총각의 사랑이 시련을 겪기 시작한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거지 시련은 왜 겪어야 할니까?》

《키때문이지요. 총각의 키가 처녀의 키보다 지나치게 작다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머리를 흔든다는겁니다. 총각측에서는 총각측대로 또 녀자의 키가 너무 크다고 트집을 잡고있는 모양입니다. 처녀와 총각은 둘다 미칠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나한테 편지와 사진을 보냈겠습니까.》

이와노브는 아연해졌다. 그가 외교문건이라고 보았던 그 봉투편지속에 것처럼 엄청난 사연이 적혀있었다는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대사는 평범한 작업반장에 지나지 않는 시골처녀가 어떻게되어 한나라 수령에게 그런 편지를 쓸 용단을 내렸고 또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떻게 되어 목장장이나 총각이 노동자로 일한다는 농기계공장 지배인의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아래 사람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자신께서 친히 말아나서시였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의 어깨에 실린 중하를 잘 안다. 채더미를 파헤치고 모든것을 령에서부터 시작한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천리마시대라는

격동적인 시대를 펼쳐가고있다. 공업화의 기초축성이라는 새로운 리정표는 매 고리마다에서 **김일성** 동지의 예지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다.

이런 때에 나라의 말단공민이 국가수반에게 자기의 자매나 친지들에게나 할수 있는 사사로운 하소연을 한다는것은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인가.

사연은 어찌되었든 **김일성** 동지께서 외교적관례나 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나 터놓을수 있는 그런 사연을 서슴없이 말쑹해주신데 대해 이와노브는 고맙게 여기였다. 대사는 처녀총각의 고뇌를 덜어주고싶은 충동이 강렬했으나 어떤 조언을 주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수상동지, 귀국에는 기성관념이나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명할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매우 많습니다. 처녀가 편지로 국가수반과 사랑에 대한 대화를 한다는것이야 사실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금월이라는 그 처녀는 대단히 용감하고 솔직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수상동지한테서 바라는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수상동지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반대파들을 꺾 놓려놓자는게 아닙니까?》

《글쎄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국가수반의 말 한마디면 만사를 다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더러 심판관이 돼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시다. 그저 시종일관 하소연뿐입니다. 대사선생,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선생은 이 결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파격적이지요. 그리구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수상동지, 나는 이처럼 부자연스운 쌍은 처음입니다. 결혼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한평생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지 그것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겁니까?》

《아닙니다. 이 이와노브는 항상 새것의 편입니다.》

《나도 역시 새것의 편입니다. 키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다 시대착오적인 남존녀비의 유물입니다. 남편의 키가 안해의 키보다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누가 발명해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해가 남편보다 더 크면 왜 꼴불견이라는것입니까.》

이와노브는 가슴을 떠박지르는것 같은 세찬 충격때문에 몸을 약간 웅송그리였다. 그렇다. 안해가 남편보다 더 크면 왜 꼴불견으로 된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대사자신도 남성우월론을 제창했고 남성우위의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보는데 습관되어왔었다.

그런데 오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런 편벽과 편견에 일격을 가하시였다.

그래, **김일성** 동지의 말씀에 진리가 있다. 안해

가 남편보다 더 크면 어떻단 말인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사의 손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었다. 부관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이다.

《대사선생, 나는 마음이 가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 대륙의 대표들이 다 처녀총각의 결합을 지지한것으로 됩니다. 대사선생은 유럽대륙을 대표했고 나는 아시아대륙을 대표했습니다.》

이와노브는 그이의 여유작작한 비유앞에서 웃음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께서 지지를 표명하신 이상 그이의 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녀한테 가닿을것이다.

《수상동지, 국제적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도 이와노브를 찾아주십시오.》

대사는 흥에 겨워 몸을 하였다.

잠시후 부관이 와서 그를 호수가 남쪽으로 안내해갔다.

이와노브는 갈숲가까이에 소해정처럼 떠있는 세마리의 집오리를 보자 어째서인지 도량이 넓으면 한알의 포도로 마을사람들을 먹여살린다고 한 자기 나라의 속담을 생각하였다. 그의 눈에는 세마리의 집오리가 세알의 포도로 보이였다. 비결을 찾았으니 풍작은 문제없을것 같았다. 대사는 한시간사이에 다섯마리의 오리를 잡았다. 그는 신바람이 나서 입속으로 《마리아, 오늘 사냥은 성공이요!》 하고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풍작의 한때가 지나자 이와노브는 다시금 **김일성** 동지의 결으로 가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대사는 그이께서 무엇을 하고계시는지 궁금하였다. 그이의 좌지에서는 총소리가 서너차례박에 울리지 않았다.

이와노브는 어깨에 사냥총을 멘채 랑손에 《전리품》을 갈라들고 달음박질이라도 치는 심정으로 호수가 북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나 명상에 잠겨 호수가를 거니시는 **김일성** 동지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본 이와노브는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뒤집을 진 그이의 손에는 하얀 종이장같은것이 쥐여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인해서인지 입가에 밝은 미소를 담고계시였다. 무엇이 그이를 저렇게도 기쁘게 하는것일가.

대사는 **김일성** 동지의 미소속에 온몸과 마음이 다 빨려들어가는것 같은 감을 느끼며 청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상동지, 내가 사냥을 하는사이 그냥 편지를 읽으신게 아닙니까?》

《예, 부관이 심심해할것 같아서 그사람에게 총을 주고 나는 편지를 좀 읽었습니다.》

《수상동지, 건강은 채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휴식일인데 만사를 잊으셔야지요.》

《고맙습니다. 대사선생, 그렇지만 편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편지무지가 쌓여있는곳을 뜻있게 돌아보시였다.

이와노브도 시선을 합치였다.

《실례입니다만 대부분은 신소편지들이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소편지같은것은 한두장 뿐이고 대부분은 보통편지들입니다. 나는 전국각지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별별 소식을 다 전해줍니다. 이것 참, 이번에는 대사선생의 수확이 대단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고 눈짐작으로 이와노브가 들고있는 오리의 마리수를 대충 세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사를 치하해주시였다. 그것을 풍성한 사냥을 하고난 다음이면 누구나 의례히 맛보게 되는 짜릿한 쾌감과 포만감이 대사의 심신에서 서서히 사그라져가던 순간이었다.

이와노브는 화제를 본래의 궤으로 돌리고싶어 사냥총과 전리품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가 흥미를 가지는것은 편지의 글줄들을 통해 울리는 이나라 공민들의 목소리였다. 이를테면 수령과 인민들사이의 교감이 어떤 내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수령의 사상과 인민들의 목소리가 정치라는 하나의 도선을 타고 어떻게 서로 반작용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와노브는 지금까지 **김일성** 동지와 인민들사이의 교감이 대부분 현지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현지지도는 그이의 령도에서 가장 특색있는 정치방식의 하나로 된다고 간주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서신이라는 또하나의 힘있는 수단이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감수단으로 존재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외교관으로서 그가 거둔 중요한 소득이였다.

《수상동지, 세상에는 청원장과 신소편지로 하여 곤경을 당하는 정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귀국정부가 신소를 적게 받는 원인을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우리 인민이 좋은 인민이기때문이지요. 우리 인민은 타발을 모릅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도 역시 정부가 신소를 적게 받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상동지께 청원장같은것을 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별의별 청원이 다 들어옵니다. 방금 나는 아홉살짜리 애한테서 자기네 고장에 와달라는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애의 편지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바른손의 종이장을 허공중에

쳐드시고 아까처럼 또 까닭모를 미소를 그리시었다.

아홉살짜리가 감히 국가수반의 방문을 청원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벌써 심각한 사변으로 된다. 무엇보다도 아홉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요구를 하였을가, 그런 실례는 동서고금에 없다. 혹시 조난을 알리는 《SOS》는 아닐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무슨 까닭으로 자기네 고향에 국가수반을 와달라고 하겠는가.

이와노브가 이런 생각을 굴리고있는 사이에도 **김일성** 동지께서는 입가에서 시종 미소를 지우지 않고계시었다. 그 미소속에 아홉살잡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것 같아 대사자신도 도저히 웃음을 감출수 없었다.

《팔남이라는 그녀석이 나를 와달라고 하게 된 동기란 아주 단순한것입니다. 그애가 외가집마을에 가서 여름방학을 보낼 때 아마 내가 거기에 갔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때 농장포전도 돌아보고 지방산업공장 일군들과 협의회도 하고 인민학교에 가서 교수참관도 했습니다. 내가 교수참관을 한 그 학급에 팔남의 외사촌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애가 사촌동생한테 자랑을 얼마나 요란하게 했던지 팔남이는 샘이 나서 울기까지 했다는겁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나한테 곧장 이 편지를 썼지요.》

이와노브는 팔남이의 편지를 조난신호라고까지 판단할번했던 실수를 깨닫자 무심중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대사가 오늘 이 사냥터에 와서 체험하는 모든것들은 다 기성관념이나 관례를 초월하는것이였다.

《내가 보건대 팔남이란 아이는 매우 당돌한 녀석같습니다. 그녀석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사에게 팔남이의 편지를 넘겨주시면서 두번째페이지의 마지막단락에 글을 그어보이시었다. 완두콩색과 똑같은 색깔의 줄이 연하게 찍힌 종이장에 연필로 꺾꺾 박아쓴 편지였다.

국가수반에게 쓰는 편지치고는 종이도 글씨도 너무 초라하였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께서 글을 그어주시던 단락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 단락은 《우리 물방아물은 외가집동네보다 한참 멋있습니다.》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고있었다. 대사는 행을 몇개 건너뛰어 다음 단락을 흥미있게 더듬어나갔는데 중심이 고무공처럼 푹푹 튀어오르는 글줄마다에 미소를 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원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난 다람쥐채바퀴를 선물할테야요. 원수님은 다람쥐라는놈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래집 동순이가 그러는데

평양에는 다람쥐가 없다지 않겠나요. 자동차소리가 시끄러워서 다 도망갔는지요.》

이와노브는 글줄을 몇개 또 건너뛰었다. 지혜와 미숙이한데 뒤범벅이 된 장난꾸러기의 영민한 형상이 글줄을 타고 눈앞에 자꾸만 삼삼히 어려왔다.

《원수님, 나는 오늘부터 백밤을 셀 때까지 원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백밤을 기다려도 안오시면 이백밤, 삼백밤을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구 어머니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다고 대주지 마십시오. 대주면 나는 혼썰이 납니다. 내가 원수님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너까짓게 뭐라구 감히 수상님께 편지를 쓴단 말이나. 최우등도 못하는 주제에 하구 욕했습니다.

나는 음악, 체육때문에 최우등을 못했습니다.

행진할 때 팔다리가 같이 나간다고 체육시간이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자꾸만 웃습니다. 그러나 그건 고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만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형님은 나를 음치라구 합니다.

원수님, 음치란게 뭐나요? 음악과목이라는게 꼭 없어졌으면 시원하겠습니다. 음악만 없으면 매일 최우등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내 글씨가 오리발같다고 하면서 편지를 못쓰게 했습니다. 앞으로 글씨도 곱게 쓰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쌍가매의 머리꽂지를 잡아당기지 않겠습니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에게 편지를 돌려드리고 나서 무엇때문인지 한참동안 꺾꺾거리며 웃었다.

《수상동지, 수상동지의 말씀과 같이 편지를 본다는건 정말 고급한 휴식입니다.

머리가 거뜨해집니다.》

《나도 역시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녀석이 참 걸작은 걸작입니다. 음악과목이라는게 꼭 없어졌으면 시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막힌 피짜입니다.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의 망령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 그애의 불기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와노브는 그 말을 듣자 또다시 상체를 흔들며 어대며 꺾꺾거리었다. 어찌나 세차게 웃었던지 눈에서 눈물까지 났다.

김일성 동지께서도 소리를 내며 크게 웃으시었다.

《대사선생, 나는 오늘 팔남이의 편지를 보고 후대들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세를 써가며 후대들이 누릴 복을 두고 정열에 넘쳐 말씀하시는 **김일성** 동지의 모습에서 이와노브는 눈길을 땔수 없었다. 조선의 수령과 함께라면 어데인들 못가며 또 무슨 일인들 못해내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상동지께서는 그 꼬마 피짜의 청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대사가 물었다.

《우선 회답편지를 보내야지요. 그다음은 그애의 청원대로 물방아골로 가려고 합니다. 언제 가게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그럴 기회가 꼭 생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차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들과 강과 골짜기들과 섬들을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수상동지, 수상동지의 현지도는 일반적으로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방식으로 사회주의정치권에 알려져있습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이야 아래간부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국가전반을 총찰하시는 국가수반이 중앙을 떠나 지방에 자주 가시는지 나는 그것을 잘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것입니다. 나는 인민들을 만나고싶어 아래에 자주 내려갑니다. 인민은 나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합니까.》

그것은 이와노브대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상이었다. 인민을 《나의 선생》이라고 한 **김일성** 동지의 말씀은 그가 한평생 심혈을 기울여 독파해온 유명짜한 저서들과 책자들에서도 전혀 찾아볼수 없었던 명제였다.

대사는 《표정》이라는 낱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평생을 두고 몸을 적서온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그런 낱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정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언어를 그다지 살펴보지 않았다. 비단옷을 걸치고 황금룡상에 앉아 국가건설의 대통령로 질주해온 무수한 집정관들과 총독들, 제왕들, 짜리들, 대통령들은 말할것도 없고 만민을 위한 정사를 베푼다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중 과연 어느 누가 얼굴표정을 보고 민중을 다스리는 선정을 펼쳐왔던가. 어느 정치가가 과연 인민의 눈에 어린 애수와 슬픔과 절망을 알은체나 했던가. 국가가 첫 시원을 연 아득한 태고로부터 오래동안, 참으로 오래동안 인민의 얼굴에 어린 그 모든 념원과 지향과 고통은 무참하게도 통치자들의 외면을 당해왔다. 백성이 눈에 눈물을 지을 때 손수건이나 팔소매로 그 눈물을 닦아준 통치자들이 있었다면 력사는 그들을 위해 비석을 세워주었으리라.

하지만 여기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서는 령도자가 인민을 찾아가며 인민들속에서 배운다는 새로운 정치관점, 로선작성과 정책집행에서 근로자들의 소망과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정치풍토가 탄생하여 국가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바로 그 진두에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세계의 한복판에 인민을 세우시고 인덕으로 만민을 보살피시는 정치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으시였다. 인류가 것처럼 안타깝게 꿈꾸어오면서도 실현시킬수 없었던 새형의 정치모델이 바야흐로 동방에서 태어나 고고성을 지르고있다.

참으로 큰 수령이시다! 그이는 동서고금에 없는 거인이시다!

이와노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소리가 저도모르게 터져올랐다. 대사는 작은 나라 조선이 큰나라로 부상되어 세계정치의 기상도를 흔들어놓을수 있게 된 요인이 이 나라가 수령을 잘 만난덕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렇다. 큰 수령을 모신 나라가 큰 나라다. 이 진리를 누가 감히 부정할수 있겠는가.

이와노브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채수염을 길게 기른 로인이 손에 보통이를 들고 마을쪽에서부터 호수가를 향해 구울듯이 달려왔다. 조선 특유의 한복바지에 구리단추가 다섯개나 달린 흙스빵상의를 걸친 그 늙은이는 **김일성** 동지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도 얼마동안 숨이 차서 말을 못하고 눈만 슴뻑거리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인이 숨을 가라앉힐 때까지 잠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물으시였다.

《로인님, 내가 이리로 온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차소리를 듣고 짐새졌지요. 내 귀야 속이나요. 경적소리를 듣구 찬찬히 살펴봤더니 차색갈도 낮익어보이겠지요.》

로인은 자신의 짐작이 맞아떨어진것을 못내 흠족하게 여기는듯 손으로 채수염을 슬며시 내리썰었다.

《로인님, 그 중덕마을에서 여기가 몇리인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게 아닙니까?》

《불상사야 무슨 불상사였습니까. 긴치 않은것이지만 제 수상님께 드리고싶은것이 좀 있어서 천방지축 달려왔습니다.》

로인은 보통이속에서 스무나문꼭지의 마른잎담배를 꺼내여 **김일성** 동지앞에 드리였다. 그리고는 면구스러운 표정으로 히죽이 웃어보이였다.

《울여름 울바자박에 심었던걸 수상님께 드리려고 말려두었더랬는데 이렇게 발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이런 향초야 어디 평양에서 구경하나요. 나한테 가치담배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런 잎담배를 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로인님, 저분은 대사선생입니다. 제그럼 대사선생과 같이 한대씩 태워도 되겠습니까?》

《어서 그러십시오.》

로인은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잎담배를 말아피울 수 있게 손수 마련해가지고 온 규격지 묶음중에서 두장을 집어 **김일성** 동지께 드리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인이 잘게 부스러뜨린 잎담배를 규격지에 말아 이와노브에게 한대 주시고 자신께서도 한대 무신 다음 대사가 그어드리는 성냥불에 담배대를 가져다 대시였다. 그이의 입가에는 새담배를 피울 때면 애연가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쾌감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심리적충족감이 떠돌고있었다.

이와노브는 특대형사진을 찍는 촬영가의 심정으로 **김일성** 동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수십년세월의 만고풍상으로 거칠어진 백전로장의 얼굴이다. 철색으로 번들거리는 저 얼굴에는 무슨 반점이 저리도 많은가. 그리고 살결은 왜 저다지도 터슬터슬할까. 그 무수한 반점들은 그이께서 한평생 짊어지고오신 고난과 역경의 표식이나 아닌지. 터슬터슬한 저 살결은 그이께서 풍찬로숙으로 타고넘으신 수천수만갈래의 산야와 강하의 그림자는 아닌지. 살빛을 철색으로 만든 것은 폭양과 폭연, 만주대륙의 황토먼지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 황토먼지우에 전우들을 잃은 비분의 눈물이 피방울처럼 흘러내렸으리라. 때로는 저살이 가시에 찔려 상처를 내기도 하고 숙영지의 우등불에 그슬리기도 하고 설한풍에 얼었다가 녹아서 터갈라지기도 했으리라.

일생 백년에 고락이 상반이라는것이 조선사람들의 생활신조라는데 그렇다면 **김일성** 동지의 얼굴에 찍힌 《고》는 얼마이고 《락》은 얼마인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셈할 수 있는것은 오직 력사의 저울뿐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그이의 한평생이 보통사람의 일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얼굴에 죄다 날날이 기록되어 있다는것이다. 50에 채 이르지 못하고도 5천년을 산듯한 얼굴, 이런 얼굴이 바로 이와노브의 눈망울속에 새겨지고있는 **김일성** 동지의 초상이였다. 그것은 인민을 위해 와신상담 만리풍운의 길을 걸어온 위인들만이 남길 수 있는 초상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담배곽에서 《풍년》 한대를 뽑아 로인에게 권하시고나서 보조개가 더 깊이 패이게 연기를 들썩 삼키신다음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그 연기를 길게 내뿜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로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그리시였다.

《로인님, 담배맛이 별맛입니다. 상천담배가 왔다가 울고가겠습니다.》

그이의 그 말씀에 로인도 장알이 실하게 박힌 손으로 채수염을 내리쫓며 만가지시름이 다 날아나는듯 입모서리가 귀에 닿도록 웃었다.

세상에 마라초를 저렇게도 맛나게 피우는 지도자가 있을까.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와 로인을 부러운 눈길로 번갈아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이였다.

(저 로인은 정말로 행복한 로인이다. 어떻게되어 저 늙은이는 **김일성** 동지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와노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듯 그에게 로인을 소개해주시였다.

《대사선생, 이 로인은 해방후 나라에 애국미를 많이 바쳐 나의 감사문을 받은 모범농민입니다.

해마다 다수확을 내서 신문에도 여러번 소개되었지요. 로인의 동생도 역시 다수확농민인데 신정리라는데서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잠간 말씀을 그치고나서 로인에게 물으시였다.

《금년농사형편은 어떻습니까?》

《소출이 지난해보다 이십프로쯤 더 났습니다.》

《이십프로의 증수면 풍년입니다. 농사꾼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집안사람들은 다 잘 지냈니까?》

《네, 다 잘 지냅니다. 금년봄에 제대된 둘째아들녀석은 공산대학에 가구 딸애는 원산농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상님덕분에 날마다 경사뿐인데 지난해에 신정리의 제수가 그만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인은 안할 말이라도 한 사람처럼 송구스럽게 고개를 숙이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까?》하고 되물으시고는 한숨이라도 토하시듯이 담배연기를 길게 뿜으시였다.

《그런 불상사가 있은걸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쓰기가 켜웠지요. 그렇지만 그만뒀습니다. 전쟁 3년간에 술한 사람들을 잃고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아프실텐데 제집 사연까지 어떻게 수상님께 다 알려드리겠습니까. 장래도 잘 치르고 뒤처리도 다 잘되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했는데 수상이라고 해서 무심할수가 있습니까. 원삼관리위원장이 참 고독스럽게 뒀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존전처럼 또 담배연기를 들썩 내뿜으시였다. 그이의 가슴에서 안개처럼 녹지근하게 서러오르는 비감이 내내가 되어 이와노브의 폐부에도 스며드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들쭉날쭉 솟아있는 분지의 서쪽기슭을 바라보시였다. 그 기슭에 바로 신정리가 있다.

《로인님, 내 오늘 사냥을 오다나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 성의로 아시고 저 오리

들이나 몇마리 받아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신정리에 들려 관리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전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상님, 하실일도 많으실텐데 어떻게 그애한테까지...》

로인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축축히 젖어오르는 눈굽을 손등으로 슬그머니 닦았다.

몇분후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와노브와 함께 호수가를 떠나시었다. 신작로로 접어드는 길목에 이르시자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려 호수가에 서있는 로인의 꺼꺼부정한 모습을 유정하게 바라보시었다.

로인은 이마에 손채양을 올리고 그런듯이 서서 신작로쪽을 지켜보다가 그이를 향해 재게 손을 저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도 모자를 벗어 들고 팔을 흔들어주시었다. 말없는 손인사가 몇차례 오간 다음 그이께서는 작별의 표식으로 이와노브대사의 팔을 잡으시었다.

《대사선생, 이제는 여기서 헤어집시다. 부인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이와노브는 두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해보이였다.

《그럼 수상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정리에 들려 원삼관리위원장을 좀 만나보고는 몇개마을을 더 돌아볼가 합니다. 전원회의 준비를 해야지요.》

《새벽부터 출창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피곤하시지도 않습니까?》

《아니,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계조를 완성하고 보니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성수가 납니다.》

《수상동지의 마음속에는 온통 사회주의뿐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한생을 사회주의와 바꾸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는 밤에도 사회주의를 안고 잡니다. 자 그럼.》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사의 팔을 다시 한번 힘있게 잡아흔들고나서 갈림길로 차를 달리시었다. 《신정리 20km》라고 쓴 이정표의 감장색글자가 대사의 눈을 따갑게 하였다.

이와노브는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보낸 이 반나절이 마치 인민을 찾아다니는 기나긴 행군의 한 토막처럼 느껴졌다. 멀리, 저 멀리 신작로 한끝에서 차그마한 반점이 되어 가물거리는 그이의 승용차를 눈이 아프게 바라주며 대사는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는 송엄한 걱정예 온몸을 내맡긴채 화석처럼 서있었다.

이와노브는 시대가 것처럼 묵마르게 기다리는 인민형의 수령을 발견한것으로 하여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의 령도방법은 세계정치가 아직 한번도 창출해낼수 없었던 고유하고 독창적인것이었다.

인민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는 **김일성** 동지의 발걸음,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로서 존재하며 사멸되지도 부패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히 승승장구해갈수 있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모스크바의 지도자들가운데도 물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과의 뉴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도자들은 인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관료배로 전락되어가고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망치게 할수 있는 암이었다. 만일 이 암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쏘베트조국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노브도 한생을 사회주의와 바꾼 사람이였다. 대사는 사회주의의 영원성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요인이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령도방법임을 때늦게나마 깨닫게 된것이 여간만 다행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조선은 그 령도방법을 만들어낸 조국이다.

이와노브는 대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심각하게 재음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첫째가는 사명이 **김일성** 동지를 깊이 연구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방법을 본국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창구로 활동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동지를 따라배우자!

이것은 대사가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가 자기 당 정치국 성원들과 동료들을 위해 마련할수 있는 값있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 권고라고 해도 무방할것이다. 이와노브는 정치국에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였다.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우리 행성의 지도자들가운데서 가장 자주성이 강하고 지력이 뛰어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방법에 대해 우리 당 정치국에 통보하는것을 내앞에 부과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면서 이 글을 당신들에게 보낸다...》

대사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글줄들이 벌써부터 꼬리를 물고 줄달음쳤다.

이와노브는 그 글줄들을 끝없이 이어가며 지평선으로 미끄러져가는 **김일성** 동지의 승용차를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박근원

이 세상 제일 큰 집

숭엄한 마음안고
들어서노라
인류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가 펼쳐진
《금수산기념궁전》 넓디넓은 홀에

찬란한 아침노을의 눈부신 광채속에
장중하게 울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률속에
역사와 시대의 념원
참된 충효와 도덕의리에 떠받들린
이 행성의 가장 높은 언덕에 서시여
어서 오라 우리모두를 반겨맞으시는
아버이수령님
아, 그 품에 안기노라
어제와 다름없이 자애넘친 그 품에…

안기여 어제와 다름없이
크나큰 위업과 사랑에 목매여
안고온 위훈의 보고를 아뢰이고
안고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며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찾고찾을
혼연일체의 최고성지

20세기의 혁명렬차를
자주의 궤도에 올려세우신 수령님
김정일장군님 이끌어가실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오늘도 여기서 바라보고계시여라

만경대의 청신한 새벽빛
백두산의 불타는 노을
동터오는 새 세기의 그 아침도 다 안으시고
거룩하신 영생의 모습으로
인민과 만나주시는 우리 수령님

아 《금수산기념궁전》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인류가 만대를 두고
수령님을 뵈오며 운명을 함께 할
충성과 효성의 절정우에
성지가 솟아있도다

한생을 오르고 또 오르리

끝간데없이
아득히 높아보이는
계단을 오르노라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뵈옵고저

우아하고
무게있는 대리석계단을 오르건만
크나큰 숨결을 따라
거대한 박동은 따라 오르는듯
아버이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같이하는
그 숨결, 그 박동을 따라-

내 계단을 따라 한자욱 옮기는데 벌써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
충계를 따라 이 가슴에 흘러들어
내 작은 심장 세차게 뛴는구나

이 계단에
위인의 거룩한 자욱 어려있고
인민의 따르는 마음 스며있어라
우리 수령님
이 충계를 내리시여 인민을 찾으셨고
우리 인민이, 온 인류가
수령님을 찾아 이 충계를 올랐거니

아, 정녕
《금수산기념궁전》 충계의 이 계단길은
조선의 높이를 안고있는 길
지구의 무게를 받들고있는 길

하기에 이 길은
나의 한생의 길
조선의 위대한 길
만민의 영원한 길이어라

불라는 맹세

삼가 옷깃 여미며
전사, 제자들이 숨엄히 들어선다
불라는 노을을 짝 채운 방에

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아버이수령님
어제와 다름없이
맞아주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만경대에서 시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생
여기서 영생으로 이어지고
그이 백두산에서 높이 들고오신
혁명의 붉은기
여기서 영원한 미래으로
펼 펼쳐 휘날려가는구나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품고있던 마음속 말
허물없이 울리는데
백두산의 붉은기 높이 들고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라는

수령님의 마음의 말씀
천만심장을 울려주어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
심장으로 하시는 말씀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전사는 맹세하노라

가야 할 길 멀고 험해도
위대한 장군님 진두에 모시고
혁명의 붉은기 높이
앞으로만 나아가리니

내 만약 이 길에서
마음에 한점의 티 앓고
한치의 자욱이라도 헛디딘다면
내 다시 여기에 설자리 없으리

그때엔 붉은기여 용서치 말고
내 오늘 이곳에 섰던 흔적까지
말끔히 쓸어다
이 세상밖으로 내던져다오

감사를 드리노라

내 지금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발걸음 땔수 없구나
너무나 큰 고마움에 목이 짝 메여
오 감사의 정 이 가슴에 젖어와

력사여 말해보라
네 언제 어디서
이렇듯 거룩하게 솟아빛나는 성지
본 일이 있는가를

내 얼마나 들어왔던가
우리 수령님 업적 칭송하여
태평양 복판에
금상, 금자탑을 세우고
대혁명박물관 건립하시며
온 인류가 목청합쳐 웨치는 찬탄의 소리를

념원은 귀중하여도
누가 무슨 힘으로
그 상상의 신비로운 속망
실현시켜줄수 있었던 말인가

오, 념원과 상상을 뛰어넘어
우주의 찬란한 노을속에

지구의 영원한 세월을 안아다놓고
이 행성의 가장 높은 언덕에
우리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받들어올리신분 뉘시던가

인간의 꿈을 초월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혁명의 최고성지
충효의 최고성지
인민의 대혁명전당을
인류에게 안겨주신분

그분은 그분은
현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시고
새 세기를 영광의 절정에로 이끌어가실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아, 평양이 있는 조선은
이 세상 가장 높은곳
우주의 중심에 안아올리시고
수령님과 우리 인민, 온 인류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영원한 세기가 감사를 드리리라

불멸의 영상

리희남

낮에도 내리던 비가 밤에도 또 내린다. 눈물의 비, 통곡의 비...

울고있는 땅우에 하늘의 울음이 또 합쳐진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실의 창문가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정원등의 어슴푸레한 불빛속에서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나무잎새들이 무섭게 떨고있었다.

공간은 온통 우유빛같은 뿌연 비발속에 잠겼는데 그이께서는 슬픔이 비낀 안광으로 어딘가 머나먼 허공의 한점을 응시하고계시였다.

방금전 그이께서는 또 한번 금수산의사당을 찾으시여 수령님의 령전에 호상을 서시다가 돌아오시였다.

오열에 떨고떠는 의사당, 끊임없이 비장하게 흐르는 추도곡, 붉은 기폭에 싸여 누워계시는 수령님.

(정녕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손으로 몇번이고 이렇게 반문하시였다. 오늘의 이 비통한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을 보시다가 잠깐 피로를 푸시는듯했고 아니면 온갖 시름을 더신채 고요히 주무시는것 같기도 했다.

과연 그러한 기적을 바랄수 없단 말인가? 나라엔 기적이 많지 않는가. 심장이 멎었던 한 전사가 수령님의 사랑으로 일곱시간만에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지옥행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리인모가 소생한것도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왜 소생하지 못하신단 말인가? 그렇게도 정정하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오래오래 기쁨속에 모시게 될줄로만 알았는데...

아, 내 효성이 모자랐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아픈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창가에서 물러나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눈길에는 여전히 슬픔에 떨며 통탄하고있는 인민이 안겨들기도 했고 깊은 애도에 잠겨있는 지구촌이 어려오기도 했다.

문득 수많은 통신들에서 보시였던 글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신다.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다... 파란많은 력사의 흐름속에서 거성이 떨어졌다... 20세기를 밝히던 동방의 등대가 꺼졌다...

그이께서는 더는 상기하지 말자고 머리를 흔드시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민과 자신이 당

한 그 돌이킬수 없는 상실이 마음속에서 형용할수 없는 괴로움을 자아낸다. 정녕 이 땅에 무서운 공허가 왔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눈을 감으시였다.

별안간 수령님과 함께 지내시였던 지나간 날들이 눈앞에 다가들며 형언할수 없는 아픔으로 가슴을 찢는다.

그것은 몇해전 수령님과 함께 창광거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돌아보고계실 때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인민들모두가 이런 집에서 살게 하는것이 자신의 리상이라 하시며 얼마나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던가.

《사람이 사느라면 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생끝에 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백두산에서부터 오래동안 혁명을 해오다가 오늘에야 **김정일** 동지의 덕분에 마음을 폭 놓고 락을 보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기쁨과 만족에 겨운듯 자애로운 눈길로 **김정일** 동지를 바라보시며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곁에서 곁으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가슴속에서는 수령님의 락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드림없는 결심과 맹세가 뜨겁게 사뭇치고있었다.

수령님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것, 그것이 정녕 자신의 생의 전부가 아니였던가.

하지만 인젠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지던 그 모든 세계를 잃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공허를 과연 무엇에 비길단 말인가. 우주를 잃은 생명체에 비길것인가, 혹은 태양이 꺼진 천체에 비길것인가.

그이께서는 뿔다란 방안을 가로질러 집무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집무탁쪽으로가 아니라 벽면을 따라 조용히 거니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요즘 자주 이러한 혼돈을 일으키곤 하시였다. 전에 없던 현상이였다.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러한 혼돈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그이께서는 때늦게 자신의 혼돈을 의식하시고는 머리를 흔드시며 천천히 집무탁으로 걸어가시여 의자에 힘없이 앉으시였다.

집무탁에는 공장파 농촌들을 비롯한 전국각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진들이 수없이 놓

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사진들에 모셔진 수령님의 영상들을 한장한장 번지시며 오래도록 들여다보시었다.

수령님께서 몸소 이 땅에 남기신 그 수많은 자욱자욱들이 얼마나 거룩한 감회를 자아내는것인가.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웃음을 지으시고 벼이삭이 물결치는 농장벌을 바라보시는 사진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온 벌판에 풍기는 구수한 낱알냄새에 취하시었는지, 아니면 인민의 행복이 설레이는 벌의 풍경이 그리도 기쁘게 생각되시었는지 환희에 넘치신 그 밝은 영상은 류달리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풍이 들었군!》

어디선가 못내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의 그 음성 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었다. 그러자 간신히 억제된 슬픔이 때를 만난듯 다시금 소용돌이치며 눈물이 솟아나게 하는것이였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가꾸시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인제는 영영 보실수 없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건디기 어려우신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방안을 거니시다가 송수화기를 드시고 몸가까이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찾으시었다.

《밤중에 전화를 걸어 안됐습니다. 영결식에 모실 수령님의 초상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았습니까?》

《초상화말입니까? 지금 모시고있는 초상화말고 다른...》

그 일군은 너무나 천만뜻밖이어서 대변에 얼퍼름해지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하긴 십분 리해되는 그의 태도였다.

그이께서는 며칠전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계시었다. 한평생 인민들속에서만 살으신 수령님이시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자 락이라 하신 수령님이시었다.

그런 수령님이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따르며 정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제 영결식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령님과 인민은 영영 갈라져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것은 수령님의 뜻이 아니고 인민의 념원이 아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인민과 함께, 인민은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다르게 생각한것이 없다면 이제 쉬시오. 밤도 깊었는데...》

그이께서는 넘려가 실린 어조로 말씀하시고 전

화를 끊으시었다.

송수화기를 놓으시는 가벼운 소리가 집무실안의 깊은 정적속에 잦아들었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실마리를 찾으시려는듯 다시금 수령님의 사진들에 눈길을 주시었다.

그이의 안색은 어느덧 점차로 흐려지시었다.

방안에는 바닥을 알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정적이 무겁게 드리웠다. 오로지 수령님만을 그려보시면서 그밖의 모든것은 일체 자신의 생각밖으로 밀어내신 한없이 경건하고도 숭엄한 침묵이였다.

그 침묵속을 헤치며 좁전에 전화를 받았던 그 일군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그 일군이 들어선것도 모르고계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일군이 몇번이고 주저하던끝에 이렇게 말씀을 올려서야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시진에서 눈길을 드시었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 쉬지 않고있었구만.》

《저는 일없습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조금만이라도 식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일군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말했다.

《아, 됐습니다. 조금있다가 생각나면 요기를 하겠습니다. 그사이 제기된 자료는 없습니까?》

《방금 제기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국의 통신들은 장차 조선이 어떻게 나가겠는지에 대해 몹시 관심하고있습니다.》

《서방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엔 어느 나라에서나 있게되는 그러한 변화가 조선에서도 일어날수 있다는겁니다. 특히 남조선의 어용출판물들이 굉장히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그 무엇인가를 경멸하는듯 근엄한 표정을 띠우고 말씀하시었다.

《이제 대답을 줍시다. 세계의 면전에 조선의 대답을 주잔말입니다.》

그이께서는 방안의 무거운 공기를 날려보내시려는듯 한손을 내저으시었다.

일군은 일단 용무를 끝냈으나 웬일인지 그자리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놓치지 않으시었다.

《왜 말을 하려다가 그냥 나갑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 방금전에 또 만수대동상을 찾았던 김추월

이란 녀성이 수령님의 서거를 애통해하며 몸부림 치다가 그자리에서 졸도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추월이라... 어떤 녀성입니까?》

《한생 평양에서 구역병원 간병원으로 일하다가 십년전에 년로보장을 받고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서 편안히 지내던 녀성이었습니다. 수령님과 아무런 연고관계도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피로우신 안광으로 창문쪽을 응시하며 무거운 걸음을 몇번 옮겨디디시였다. 잠깐 멈추었다가는 진정할수 없는듯 다시 집무탁앞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이렇게 졸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어제든 그제든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것때문에 몹시도 마음을 쓰신 그이이시였다.

수령님을 잃은것이 너무도 애통하여 가슴을 치며 졸도하고있는 사람들이였다.

밖에선 여전히 비소리가 그치지 않고있었다.

마침내 그이께선 한결 침착해진 어조로 일군을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보았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이께서는 격해지는 어조를 녹잡히시려는듯 잠깐 묵묵하시다가 말씀하시였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령님과 한피줄이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때문에 나는 그들의 행동이 눈물겹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응당 관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무가 나를 대신해서 김추월녀성을 찾아가 위로해주었으면 합니다.》

일군은 불시에 눈물이 글썽해지며 입술을 떨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군은 목메여 더 다른 말을 못했다.

《밤이 깊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럼 어서 가보시오.》

그이께선 말씀을 끝내시자 또다시 집무탁우에 놓여있는 수령님의 사진들을 한장한장 번지시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께서는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에 이다지도 마음이 쏠리는것일가. 밝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대하기만 하면 어쩐지 공허감이 가시여지며 살아계시는 수령님을 뵈는것만 같은 눈물겨운 충격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그래서 밤이 지새도록 그 환하신 영상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는 그이이시였다.

눈바람을 맞으시며 렬차의 승강대에 오르신 수령님의 모습이 보인다. 어딘가 또 머나먼 현지

도의 길을 떠나시는 길이였다. 뿌옇게 흐려진 재빛 공간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안광엔 한가닥의 미소가 비졌다. 키가 상큼한 렬차원이 모자채양에 손을 붙인채 수령님께 경건히 인사를 올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다음장들을 번지시였다.

비를 맞으시며 무연한 간석지밭을 몸소 밟으시는 모습이 보이는가하면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산골길을 걸으시는 모습도 보인다.

잇달아 강냉이밭머리에서 탐스러운 이삭을 만져보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나타난다.

언젠가 서해지구의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던 그 가을날, 승용차안에서 한이삭의 강냉이로 끼니를 예우시키고는 누렇게 익어가는 어느 한 강냉이밭머리에 이르시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시며 못내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나신다. 기나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고도 피로한 기색이 없이 웃으시는 수령님이시였다.

그때 그이를 우려했던 수원들도 농장원들도 모두가 목메여 눈굽을 적시였다.

이 세상의 풍파란 풍파는 다 한몸으로 막아나서시고도 인민앞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웃으시였다. 그 웃음에 깃들어있는 웅심깊은 의미, 그것이 정녕 인민을 위한 숭고하고도 거대한 희생임을 누군들 몰랐으랴. 그래서 인민들전체가 수령님과 떼여놓을수 없는 존재들로 자라나지 않았는가.

수령님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수령님을 태양처럼 모시고 따랐다.

태양에 대한 숭배는 인류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수많은 력사유적과 기록들에 의하면 고대 애굽과 지중해의 섬들과 메히꼬에는 태양신을 숭배하여 신전들과 대동상들과 피라미트들이 세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력대의 그 모든 신화적인 태양신들과는 달리 수령님께서는 20세기에 실재한 태양이시였다. 인류는 수천수만년을 살아오면서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신》을 비로소 보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계도처에서 태양찬양가가 울린 20세기의 기적이 창조되지 않았는가.

벽시계는 새벽 두시를 알리고있었다.

새벽 두시!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춘 시각이다. 상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움이 최대로 집중되는 시각이다.

문득 어버이수령님께서 문을 여시고 방금 들어서시는것 같았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인가?

《왜 아직도 자지 않소?》

친근하게 물으신다. 다정한 미소, 생전에 그리

도 즐거입으시던 양복에 역시 하얀 점들이 다문 다문 박힌 진곤색넥타이를 매시고 자신께서 늘 애용하시던 금테안경을 쓰시었다. 어찌나 환하게 웃으시는지 넓다란 방안이 온통 빛나는 광채로 짙 차는듯했다.

(아, 태양의 미소!)

그이께서는 집무탁결을 떠나 어딘가 머나먼곳을 바라보며 한걸음한걸음 무겁게 옮겨놓으시었다. 마치도 태양의 미소를 향해 마중가시는것 같았다. 거기서 수령님의 환생을 그렇게도 바라시던끝에 그 무슨 기적을 찾으신것 같기도 했다.

바로 이런 시각에 집무실안으로 아까 그이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던 그 일군이 조용히 들어섰다.

지금토록 주무시지 못하고 마음을 쓰시는 그이를 대하자 일군의 얼굴표정은 피로움으로 굳어졌다.

《그래 추월녀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집무탁으로 걸어가시며 물으시었다.

《김추월녀성은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몇백백천배로 가슴이 아프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히려 일군을 보내여 위로하여 주시니 고맙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들은 소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일군은 갑자기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후더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왜 그러오? 어서 말해야 알지...》

그이께서는 근심이 실린 눈길로 일군을 바라보시었다.

간신히 울음을 누른 일군이 울먹거리며 말했다.

《며칠전 밤에 여덟마리의 백로가 만수대동상 상공에 날아와서 무슨 약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약인즉 하늘에서 보내온 수령님의 소생약이라 는겁니다.

지금 평양시의 늙은이들이 만수대동상 주변 잔디밭을 뒤지며 그 약을 찾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빨리 나가서 그 약을 찾겠다는겁니다. 이제 그 약을 찾아 수령님께서 쓰시면 수령님은 꼭 소생하시게 된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버이수령님은 절대로 우리 인민을 떠나서서는 안되며 떠나실수도 없다는겁니다. 수령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일군은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창밖의 한점에 시선을 주신채 일군의 목소리에서 울린 그 떠는듯한 여운을 한동안

듣고계시다가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런 전설이 다 태여났단말이지.》

방안에선 비감과 뜨거움이 뒤엉킨 거대한 파도가 소리없이 넘실대는것 같았다.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갑자기 생각나신듯 물으시었다.

그것은 이밤에도 인민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물으심이였다.

《시민들은 지금도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비를 맞으며 울고있습니다. 만수대언덕은 여전히 동상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습니다.》

그이께선 창문쪽으로 머리를 돌리시고 무한대한 어둠속을 내다보시었다. 마치도 이 나라의 새벽하늘에 울려퍼지고있는 인민의 곡성을 가려두고 계시는듯했다.

이윽고 천근만근의 시름을 안으신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아만해도 시내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정중하게 서있던 일군은 갑자기 자세를 흐트러뜨리며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밤이 새고있습니다. 인젠 좀 주무셔야 합니다.》

《인민들이 밖에서 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들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가봅시다.》

《안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인민들이 모두 걱정하고있습니다. 인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분뿐이 아니십니까...》

일군은 간절하게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얼굴을 마주하시자 어쩐지 가슴속이 뜨거워지시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인민과 같이 있고싶습니다. 인민이 한지에서 지내면 나도 한지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윽고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쉬임없이 휘뿌려지는 비발속을 뚫으며 조용히 미끄러져갔다.

앞을 비치는 전조등의 불빛속엔 비가 내리는 뿌연 공간이 드러나고 비물담개는 좌우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흐려지는 시창을 연방 닦아내군했다.

그이께서는 비애가 무겁게 서려있는 시내를 한참 도시다가 마침내 곡성으로 진감하는 만수대언덕에 이르시여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슬픔의 절정과도 같은 만수대언덕은 사방에서 비쳐주는 불빛속에 흰하게 드러났다. 아근에 드리운 침침한 어둠은 설움에 겨운듯 슬그머니 나래를 접고 먼 지경밖으로 물러났다. 수령님의 동

상주변에선 거대한 대지가 흐느끼며 내뿜는 입김
인양 시뻘연 밤안개가 휘휘 감돌고있었다. 뿌연
장막이 드리운듯한 바로 그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뻘을 지어 비에 젖든말든 끊임없이 밀려들어
서는 저마끔 동상앞에 쓰러져 돌바닥우에 태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고있었다. 동상으로 오르는
화강석층계에도 주변연도들에도 사람들이 꼭 차
흘렀다.

《아- 아- 못가십니다... 수령님! ... 아- 우린
못떨어집니다. 못떨어집니다!... 아- 아-》

저마다 각이한 목청으로 각이한 몸짓을 해가며
각이한 순간에 웨쳐대는 설분의 목소리들이였건
만 오직 하나의 감정, 하나의 말마디만을 쉬임없
이 되풀이하는것이여서 너무도 쉽게 분간해들
수 있는 눈물의 절규였다. 마치도 수천수만의 김
추월이들을 보는것만 같으시였다.

결에 앉은 일군은 손수건으로 연방 눈을 비비
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갖가지 꽃들이 덧쌓여진 대돌의 오
른쪽편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곳엔 하얀 상복차림을 한 늙은이들의 한무리
가 몰려서서 두팔을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연방
허리를 꺾기도 하면서 비에의 바다를 마구 휘젓
고있었다. 한 늙은이는 땅우에 퍼터버리고앉아
주먹으로 질벽해진 화강석바닥을 쉬임없이 내리
치고있었다.

늙은이들결에서는 물참봉이 된 어린것들이 안
타까운듯 발을 동동 구르고있었다.

《대원수님-》

어버이수령님을 찾는 어린것들의 그 처절한 웨
침소리, 허공중에 산산이 부서져나가는 울음소리.

그이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으시였다.

수령님 계시여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노래부르던 그 귀염둥이
들이다. 더우기 이맘때쯤이면 안아가도 모를정도
로 잠에 푹아떨어져있을 그 철부지들이 지금은
비에의 바다속을 헤매고있지 않는가.

《아-》

력사가 흘러 이런 비극이 언제 있었던가.

그이의 눈에서는 어느덧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
러내리였다.

일군도 몸을 떨며 어린애처럼 흐느꼈다.

그이께서는 말없이 일군의 손목을 잡으시고 두
어번 흔드시였다. 울음을 그치라는 무언의 당부
이시였다. 하건만 일군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
였다.

피눈물이 흐르는 밤이였다. 태양이 꺼지고 검은
구름이 짓누르는 밤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다른것을 감수하고계시였다.

인민은 지금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눈물의 철학을 쓰고있다. 그것은 눈물로써 수령님
과 인민은 영원히 한피줄임을 시위하는 철학이
다.

격해진 그이의 심중에서 사색의 소용돌이가 일
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를 맞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탈을 만날수 있습니다. 특히 로
인들과 어린이들이 걱정됩니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이렇게 이르고는 잠시
후에 그와 함께 집무실로 차를 달리게 하시였다.

우주를 휘어잡을듯한 비상한 힘을 안으신 그이
께서는 집무실로 돌아오시자 일군을 부르시였다.

잠시후에 집무실문이 열리며 부름을 받은 일군
이 들어섰다.

일군은 한껏 정중한 자세로 그이를 향해 마주
서있었다. 그는 그 어떤 정신적인 전환을 가져다
줄 중대한 시각이 왔음을 예감하는듯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나는 영결식에 모실 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어떤상으로 하겠는가를 결심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집무탁우에서 대기념비적창조물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일
군에게 쳐들어보이시였다.

《영결식에 모실 수령님의 대형초상화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나는 요즘 이 영상을 대할 때마
다 살아계시는 수령님을 뵈곤했습니다.》

그이의 음성은 갑자기 목메는듯한 어조로 변하
시였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대형초
상화를 최상의 걸작품으로 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이의 말씨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아직은 다
리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일군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 말
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갈망을 놓고 볼 때 우리 수령님
이 가시였다고 도저히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제작하자는
겁니다. 영결식 초상화로써는 전례가 없는 일이
지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인민에
게 수령님은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하기때
문입니다.》

그이께서는 마지막말씀에 힘을 주시고는 한결
근엄하게 일군을 바라보시였다.

넓다란 방안에 샅시에 성스럽고 위대한것을 누

리에 전하는 종소리와도 같은 장중한 파문이 번져지는듯했다.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었다. 피눈물이 흐르는 이땅에 새날의 서광이 비끼고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의미심장했던 간밤의 사색을 거쳐 푸름푸름 밝아오는 이 새날을 맞이하는 사이에 얼마나 위대한 전환이 태동하였는가를 인민은 아직 모르고있었다.

며칠 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제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영결식 초상화를 검은 테두리가 아니라 목란꽃으로 장식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초상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넥타이를 미술가에게 보내주시였다.

7월 18일, 그이께서는 대형초상화가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일군들과 함께 금수산의사당을 찾으시였다.

금수산의사당으로 들어서는 현관입구에 바로 수령님의 대형초상화를 모신 승용차가 서있었다.

태양처럼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대하신 그이께서 경건한 자세로 걸음을 멈추시였다.

일군들도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환희의 극치와도 같은 태양의 미소에 이끌린듯 좀더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거대한 폭으로 내려비치는 햇빛이 태양의 미소와 그 둘레를 장식한 목란꽃과 어울려 한껏 빛나는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문득 수령님의 생전의 모습을 대하시는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시였다. 아니 그렇게도 그려보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마침내 그이의 눈앞에 환생한것만 같으시였다. 드디어 그이가 바라시던 기적이 일어난것인가.

별안간 뜨거운 충격이 **김정일** 동지의 심장에 쿵미쳐왔다. 이 세상 천하를 안고오시였던 수령님께서 결국 인민의 심장속으로 가시였다는 눈물겨운 환희에 접하신것이였다.

《동무들!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꽃속에서 웃고계십니다. 여기엔 영생의 의미가 깃들어있습니다!》

천만갈래 감회가 어린 음성이지였다.

바람도 한껏 잦아들고 정원에서 속삭이던 나무 잎사귀들의 설레임소리도 멎어버렸다.

《나는 태양처럼 웃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인민에게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인민들은 이 영상을 우러르며 감격에 겨워 말할것입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것이 바로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리라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의 면전에 줄 조선의 대답입니다.》

그이의 목소리는 눈물의 바다위에 태양의 빛을 뿌려주는 선언과도 같이 엄숙하였다. 상기되신 안팎에는 숨엄한 빛이 그윽히 어리였다.

일군들은 그만 가슴이 빠근해지도록 뜨거운것을 삼키며 비상한 힘을 가다듬었다.

그날저녁 일군은 그이께 영결식행사일정계획을 보여드리였다.

영결식흐름을 눈앞에 그려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과 영결이 아니라 수령님의 영생을 시위해야 합니다. 세상이 들으라는듯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팡팡 울립시다. 인민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있습니다.》

다음날인 7월 19일, 연도에 늘어선 인민은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에 접하자 삽시에 하늘땅을 진동하는 슬픔과 감격의 절정에서 몸부림쳤다.

영결식행렬은 태양의 초상화를 앞에 모시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울리며 100여리 연도를 누버나갔다.

그것은 영결에 대한 부정이였고 영생에 대한 장엄한 시위였다.

인민은 슬픔속에서 거연히 머리를 쳐들고 세상을 향해 웨쳤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장원준

열정의 미소인양
순결한 황금의 옷자락을 끌으며
뜨거운 빛살로 대지를 어루만지며
오, 태양이여
대동강 푸른 기슭에 네가 솟을 때

이 시인의 잠을 깨운 계명의 종이나
그 뜨거운 빛발 온 누리에 퍼져가면
마주불었던 하늘과 땅사이가
소리없이 열리는
그 신비경
오늘은 왜그런지 내 가슴을 흔들어...

새삼스런 해...
머리위에 늘 엮고 살아왔건만
10월의 이 아침
내 당창건기념탑앞에 서니
마음속 번뜩이는 생각의 섬광이여
여기선 우리 수령님의 모습
가장 가까이 뵈웁니다!

몇천년은 흘렸을
물맑은 대동강 엷은 안개를 삼가 거두고
아뢰이는 감사의 인사런듯
탑가의 령롱한 꽃분수
솟구쳤다 그 하얀 물머리를 수그리며
억만의 구슬로 부서져내리는 여기

오 눈시울 뜨겁구나
저 마치고 낫과 붓을 든
근로의 억센 손을 따뜻이 감싸안으며
수령님 가까이 바라보시는곳-
여기에 탑을 세워
우리 당 50년의 역사를 더욱 빛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해발이여...

...
내 여기서 만났다
바로 이 당창건기념탑을 훌륭히 건설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당원돌격대 대장-
그는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에

불멸의 기념비들을 세우며
소문도 자자했던 일군
내 여러 건설장의 취재길에서
이미 낯을 익힌 그 이름은 주학범-

반백의 희끗한 머리 끌어올리며
감회로이 탑신을 바라보는 그-
그의 마음속엔 지금
얼마나 크나큰 공지가 차넘치랴!
얼마나 뜨거운 보람 부풀어오르랴!

-어참, 시인도 아침 일찍
나왔소구려

내 반기며 찾는 소리에
허물없이 손을 내미는 돌격대장
이 탑을 세우던 그 나날이 떠올라서인가
그의 눈굽엔 맑은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도누나

-대장동진 아마
당창건기념탑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게 클테지요

찾아가려던 참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일찍 여기서 만날줄은...
대장동지 그 남다르게 깊어오는
이 탑에 대한 감회를 듣고싶은데
이야기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굽을 짖으며 터놓는 이야기
그 말속에 나의 생각 깊어지누나
술한 기념비들을 세우던 그 나날엔
그리고 과묵해보이던 학범

-시인 동무
오늘아침따라 저 하늘에 떠오르는 해가
류다르게 느껴지는구려
지금 나에겐 이 당창건기념탑이
이 땅에 솟아오른 해와 같이 보ियो
자 보오-
여기 당창건기념탑의 직선상인

저 강건너편 만수대언덕우에서 바라보면
이곳은 바로 동쪽이요
여기에 탑이 솟은 그 의미를
아직은 사람들이 다는 모를것이요

정말 우리 당을 가장 존엄높고
그렇듯 위대한 당으로 빛내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시대 불변의 진리가 이 탑에
깃들어있소...

학범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소란스럽게 흐르던 이 세월의
그 스러져가는 석양을 말끔히 가셔내고
세기의 영원한 아침을 불러온
가슴 뜨거운 이야기...
위대한 려명의 빛울림 되여
이 심장을 쿵쿵 뒤흔들며 울려오누나

그렇다 진정
태양이 있어야 아침이 오고
태양을 따라 지구가 돈다는 불변의 철리
그 력사의 진리를 피로 새기며
우리 행성에 20세기가 저물어가도

동터오는 새세기를 마주 향해 달리며
환희에 차 미래를 불러보는 이 땅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 모신 20세기는
사회주의의 영원한 아침으로 빛나려니!

오 사람들이여
당창건기념탑을 찾는 사람들이여
여기에 심어놓은 나무 한그루
저 파아란 금잔디 한포기
비다듬어놓은 석축의 그 한굽이를
무심히 지나지 마시라

바라보는 모든것에
여기에 탑을 세운 사연은 깃들어있고
수령님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인민의 간절한 념원 깊이 헤아리시여
우리 장군님 이 탑에 바쳐오신
그 고심어린 령도의 낮과 밤 어려와...

내 삼가 노래를 엮어 길이 전하련다
당창건기념탑에 새겨진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 이 땅의 한끝까지 울리여퍼져가라
이름없는 이 시인의 잠을 깨운 계명의 종
인류의 잠을 깨우는 영원한 해울림이여!

바꾼것과 바꾸지 않은것

우리엔겐 있었더라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본적없는
가장 비통했던 날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진
그 눈물의 7월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 세상 만물이 숨이 꺾 막혔던
그 시각-
비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이 나라 녀인들 그 하얀 적삼들에
초록빛으로 습배여들고
너무도 캄캄해 앞이 보이질 않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한여름에 핀 그 모든 꽃을 다 안고
이 땅이 통채로 울며
만수대언덕으로 달리여갔으니
그 눈물의 긴 행렬들엔
나도 있었고

당원돌격대장 주학범도 있었더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는 한생 눈물이 없었다더라
무성한 자식이라고
어머니가 매를 들적이면
피씩-뽕글대며 달음박쳐가던
그 먼 소년시절부터...

이제는 때때로
지나온 한생을 더듬어보는 나이
그엔겐 있었더라
못잊을 그 영광의 나날들에
위대한 사랑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 뜨거이 흘린적은...

그 나날 아니였던가
성미가 너무 굳어
결사사람들 《박달몽치》라고 부르던 시절
북방의 그 혹한속에서
삼지연대기념비를 건설하던
그 뜻깊은 나날-

진정, 그 누가 말했던가
추억은 하냥 아름답지만 하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 한몸으로 고수해나서시여
삼지연대기념비를 받기하시고
몸소 그 건립을 진두지휘하시던
그 력사의 순간들이여!

그 나날이었더라
친구들이 불러주는 그 투박한 별명-
내심엔 즐겨 들으면서도
그 시원한 눈 엄히 흘기던 《박달대장》
지꼴게 따라다니던 그 별호를
뚝 떼어버린것은

너무 피곤에 실려
저도 모르게 잠들었던 어느밤의 일-
휘뿌리는 눈보라소리에 놀라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
휴게실 토방가에 심었던 한그루 박달나무
거인의 도끼날에 맞은듯
그 엄동에 못이겨 얼어터지지 않았던가

급기야 생각이 번개쳐
그는 교양마당건설장으로 뛰쳐갔더라
이 혹한에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졌는데
밤새 다짐해놓은 연도석 콘크리트가
무사할리 있으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몰탈을 쳐놓은 교양마당주변엔
눈보라보다 더 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 우등불...
수십곳을 헤아리는 그 뜨거운 불무지를
달려온 학범의 눈앞을 확 달구었으니

그 깊은 한밤
경애하는 그이 잠 못드시며
삼지연 날씨를 시시각각 료해하시다가
대기념비건설장의 콘크리트가 얼수 있다고
삼지연군당에서 나가
불무지를 피워놓으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 위대한 사랑앞에
그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삼켰던가

다음날
학범이네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그리도 소탈하게 웃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이여!
-학범동무는
저 박달나무가 얼어터지는걸 보고

어제밤부터 그 별명을 떼어버렸다면서
하하하...

아니요
이 백두산 흑한속에서
박달나무는 얼어터졌어도
동무들은 얼어터지지 않았소!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기록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지켜가는 길우에서
이번에 동무들은 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더욱 빛내였소

아 그 영광의 나날
경애하는 그이 품에 와락 안기여
그는 감격의 눈물 흘리고 또 흘렸으니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단한번 보인적없는 그 눈물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김정일동지의 강의한 전사로 한생 다 해갈
그 불같은 맹세로 뜨거워져...
...

하건만 이 비통한 시각-
그는
만수대언덕우에 오금을 꺾으며
단생 처음 슬피도 울었더라

끝없이 잇닿는
수천만의 행렬들에 밀리워
무거이 언덕을 내리며
학범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강건너 맞은편 기슭
수령님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곳
이제 당창건기념탑이 솟아야 할
그 력사의 지점을

젖은 잔디밭우에
아이들처럼 풀썩 주저앉은 학범
그의 마음속엔 우렁이 떠오르누나
초봄의 맑은 하늘아래
조용히 파아란 고무공 떠가던
그 몇달전의 못잇을 사연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몸소 문수거리 한복판우에
당창건기념탑건설을 받기하시고
설계일군들이 올린
기념탑모형을 보아주시며
아주 잘됐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가 문수거리 한복판에
당창건기념탑의 위치를 정한것은

아주 잘한것입니다
그곳은 만수대언덕에서 바라보면
수령님께서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
동쪽입니다

그러시며
창문가로 천천히 다가서신 그이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신다

-래년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50돐이 되는해입니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빛내여오신
조선로동당의 50년 력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체의 력사입니다
래년 10월10일까지
당창건기념탑을 훌륭히 건립하여
우리 함께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아 진정 우리 장군님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그렇게도 절절히 하시던 말씀
왜 이리도 우리 가슴 아프게 울리는가
정녕,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없단말인가

아무리 가슴을 쥐어뜯어도
그 대답은 찾을수 없었더라
먼 공간에 부딪쳐다오는 메아리만이
귀에 아픈 현실

통통 부어오른 눈굽을 씻으며
그들은 애써 보려고 했어도
보이지 않는구나, 기념탑을 세울 그 터전
달없는 밤의 계곡같이...
그곳은 해 없는 동쪽인양...

바로 이 시각 아니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굵은 비방울로 밤낮없이 땅을 두드리던
그 슬픈 한여름에 이어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모으며 쌓으며
당창건기념탑건설장에
착공의 첫 삽을 박은지도 벌써 석달...

흘렀노라 세월은 빠르게도 뜨게도-
이 겨울엔 늦도록 얼지 않는 강
도도한 그 흐름처럼

그 신념의 글발
피눈물 고인 가슴들에 뜨거이 새겨주시고
이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야 한다면
전체 인민을 새로운 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세우신것은

하여 우리는 바꾸었다
장군님의 그 강철의 의지
필승의 신념에 받들리어
최대의 슬픔을
천백배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 총진군에 돌진하는 투쟁의 활력
그 승리의 나래를 펼쳤거니

바로 그것이였다
눈물에 부푼 두주먹을 틀어쥐고
쏟아져 내리는 폭우속에서
당창건기념탑의 터전을 닦고 또 닦으며
마침내 착공의 첫 삽을 뜰수 있는것은
몰탈을 이겨 기초를 쌓으며
당창건기념탑 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것은

진정 그것이였다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우리 절대로 바꾸지 않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그 투쟁구호 심장에 새기고
장군님 따라 주체위업 완수해갈
혁명가의 그 억센 신념
죽어도 우리는 바꿀수 없었거니!

이 시각 학범의 가슴속에
충성의 일념 더욱 세차게 끓어올랐으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불굴의 의지에서
승리한 래일을 확신하며
신념을 바꿀수 없었기에
슬픔을 힘으로 바꾼
우리 시대 생활의 철리를
다시금 뜨겁게 뜨겁게 절감하며-

긴 하루

날가는 이 강산을 붙들고 눈보라는 울어도
짜릿한 이 한해 며칠을 남겨놓고
밤...밤은 깊어간다

기척도 없이
어둠은 대지를 휘감고
겨울바람 일궈어진 버들가지 흔드는데
당원돌격대장 주학범은
조용히 대동강기슭을 거닐고있어라

탑신을 감싸안을
원형띠의 철근조립도 다 끝내고
방금 다집한 콘크리트가
열세라 얼어터질세라
도간도간 불무지를 피운 건설장의 야경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는것이냐

아니면
평복내기 2려단의 돌격대원처녀
빨간 보자기에 싸안고 온 편지
우리 장군님 그토록 수척하신 몸
부디 건강하시라고
또박또박 박아쓴 그 편지때문인가

강변엔 여전히 가락맞게 울리는
물결소리 물결소리...

일을 끝낸 밤이면 홀로 나와
자신의 하루를 총화해보는 돌격대장
인생의 시간표를 가늠하듯
한갈피 또 한갈피
지나온 분과 초를 되새겨보아라

그럴수록 오 그럴수록
가장 뼈저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
혁명을 이끌어
불철주야 로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마음은 자꾸만 앞서 달리여라

(편지를 써올리자
그이께서 더는 밤을 지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
돌격대원들의 그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장군님께 만수축원의 편지를 써올리자)

학범은 씨엥씨엥 걸음을 옮긴다
애잔한 물결소리 뒤에 남기고
만수대언덕우에서
수령님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 그곳
저 동쪽을 향하여
어깨우에 드리웠던 목도리
바람에 떨어지는줄도 모르고...

그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는가
달은 벌써 하늘자락 한끝으로 기울어
돌격대원들의 밤오락회도 멎고
야간교대 나온 젊은이들
불무지우에 장작을 올려놓는 소리만이
투덕투덕 들리는 건설장을 지나
그는 휴계실로 들어가려는데

파놓은 흙무지들이 펄펄 일어붙은
굴곡진 현장 복판길로
조용히 멎어섰다가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다가는 멎어서는
승용차의 불빛하나
학범의 눈앞에 어리어와라

혹시 그 조심스런 운전사가
이 대장을 찾아 나온것은 아닌지
혹시 또 어느 일군이
건설현장을 돌아보려 나온것은 아닌지...

학범은 승용차앞으로 다가갔다
환한 불빛이 그를 비치는 순간
사르르-발동이 꺼지며 문이 열린다
굳어져 서있는 학범
그앞으로 마주걸어오는 활달한 걸음새-

-돌격대장동무 아니요...
옳구만, 주인도 모르게 나와
안됐소

그앞으로 막 달음쳐가는 학범
목이 킁 메여 인사말도 울리지 못하누나
자정도 펴 지난 이밤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는분은
오매불망 그림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아니신가!

아 언땅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며
아직도 온 민족이 상실의 슬픔을 간직한채
오직 그이만을 우러르고있는데
이 찬 겨울 건설현장까지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전사도 이제는 하루일을 총화짓고
새날 오기를 서두르는데
그이께선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도
하루일을 끝내지 못하시는가

온나라 인민들이 그렇게도 절절히
수천만통의 편지도 써올렸건만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찬바람 부는 이 험한 건설장에서 보내시는
그이의 긴 하루여

돌격대원들이 이밤 수고를 한다고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는데
그들에게 부담이 될것 같아
조용히 나오셨다 하시면서
방금 타임을 시작한

기념탑의 원형 테두리를 바라보시며
생각깊이 말씀을 이으시여라

-이 탑의 원형테두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형상한것만큼 여기에 새기게 될 구호는
20세기뿐아니라 25세기 30세기에 가셔도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과
관련되는 구호로 되어야 합니다

정녕, 그래서였구나
이 깊은 밤 그이
건설장의 이 험한 길을 오신것은
수령님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시려
우리 장군님 이렇듯
잠못이루시며 바쳐오시는
그 로고의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
수령님의 영생을 이루는것이 아닌가
...

하얀 반달은
이미 은하수를 건너간지 오래고
밤은 어느덧
새날과 상봉의 악수를 청하려는데
장군님께선 여전히
기념탑주변을 보다 홀롱히 꾸릴 방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여라

-기념탑주변에는
금수산의사당에서 떠쫓긴 나무들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그 나무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손수 심으시고 가꾸신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 한대한대를
당원돌격대가 인계받아

어느 나무는 어디에 심었다는것을
정확히 기록해서 보관해야 하겠습니까

아 진정
카툰의 그 나지막한 집에서
《E. C》의 결성으로
우리 당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한평생을 주체의 당건설에 바쳐오신
아버이수령님!

수령님의 그 위업
만대에 길이 이어가시며
당창건기념탑을 찾을 때면
누구나 몸가까이 수령님 숨결을 느끼도록
수령님 정원에서 손수 키워오신
그 사랑어린 나무들을
당창건기념탑에 심도록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여

학범의 마음은
크나큰 걱정의 파도로 설레였어라
이 탑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 위대한 손길에 받들리여
당창건기념탑이 솟아 찬연히 빛을 뿌릴
그 력사의 아침을
뜨거운 눈물속에 그려보며-
...

장군님께선 조용히 떠나가셨다
오실 때처럼 가실 때에도
그렇게 소문없이...
아 그이 오신것은 누구도 몰랐다
다만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휘황한 새날이 서서히 동터오고있었어라

해는 동쪽에서 뜬다

나에게 들려준
당원돌격대장의 이야기 여기서 끝났다
무슨 말을 더 하랴
깊은 회억에 잠긴 그의 눈가에도
나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만 그냥 흐르는데...

꽃보라를 한껏 불어날리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 넘치는 이 아침
그 사연깊은 이야기 나누며
당원돌격대장도 나도
지금 경건히
당창건기념탑앞에 서있나니

흘러온 력사 이제 흘러갈 세월이여
부디 용서해다오
우리 당의 창건자를 모시지 못하고
당창건 50돐을 맞는 이 시각
아픈 마음에 위로의 말이 아니라
뜨거워오는 걱정의 샘터에
이 붓끝을 고르게 뒀을

바라보면
때없이 늘 손에 들던
수수한 마치고 낫과 붓...
허나 그것 없인
세월은 있어도 창조가 없고
인간의 생존이 일시에 끝나는 법-

생각속에 밝히는 무정한 세월로
돌아보는 나의 눈이 아프구나
가진자에겐 마치가 없어도
마치로 버린 칼이 있었고
뼈만 남은 수난자의 손엔 낫이 있어도
억압자의 목을 자를수는 없었던
그 수천년의 력사...

물어보자
이 나라 반만년의 력사여
그 누가 수난당한 사람들 한품에 껴안고
압제자의 목을 베었고
항거의 길에 흘린 백성의 피로 물든
혁명의 붉은 기발 높이 들었던가

나에겐
당창건기념탑 저 대돌우의
마치와 낫과 붓이 다 말해주누나
백두밀림 그 작은 귀틀집에 휘날리던
성스런 붉은 기발에
처음으로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기신
우리 수령님의 그 높이신 뜻

정녕,
우리 당창건의 선포
그것은 저 마치가 드디어
로동계급의 완전한 창조의 무기로 되게 하였고
남의 땅에서 설음을 가을하던
농민의 저 낫으로
사회주의를 가꾸게 한 세기적변혁
인간의 참의미를 새기라고
마치와 낫과 함께 진리의 수직선에 붓을 놓아준
이 나라 반만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

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김일성**동지
그이는 처음으로
이 세상의 불이 인간의것으로 되게 하신분
진정, 그이 계시여 조선은
전세계를 비치는 주체의 봉화로
창공높이 솟아 시대의 앞길 밝혀주나니

생각할수록
가슴 뜨거운 이야기에 끝이 없어
추연히 눈길을 들어
당창건기념탑을 다시금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 그러면
탑신을 감싸안은 저 원형테두리
이 가슴에 뭉클 젖어들어...

-아마 현세기 20년대에

인디아시인 라고르가
조선은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고 예언하였지만
그도 어떻게 되어 조선이 전세계를 비치는
주체의 봉화로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한 빛발을 뿌리고있는가 하는
그 비결은 몰랐을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그 겨울밤
우리 건설장을 찾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언덕을 감회깊이 바라보시면서
당을 상징하는 탑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당창건기념탑의
저 원형테두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가장 굳건히 묶어세우시고
우리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장군님께서 계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압살소동이
이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나
그렇게도 우심한속에서도
조선은 끄떡없이 사회주의 보루로 높이 솟아
빛나는것이라는 확신이 차고넘칩니다

그렇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행성도
태양계를 벗어나면 작은 먼지로 날린다는
보편의 의식...
그 불안한 물음앞에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으로 대답하시며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신분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당건설에서
초미의 생소한 일들이 나설 때면
오직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수령님 뜻을 실현하는 길에 바쳐오신
김정일동지 당사업 30여년이 있어
우리 당 50년의 력사가
이렇듯 찬란히 빛나오는것 아니냐

하기에
마치와 낫과 붓이 금빛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원증을 심장깊이 품어안고
수령님 혁명위업 만대에 길이 빛내일
불멸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며
학범이네 당원돌격대는 자라

시대의 아름다운 충성의 별로 빛나고
수령님의 그 유혼 꽃피우는 길우에
힘차게 펼쳐나선 천만의 대오앞에
우리 당의 기발은
그리고 세차게 나뭇기는것 아니냐

오 수령님 존함으로 궁지 높은
조선로동당이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령도로 하여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림없이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오늘도 인류의 리상 활짝 꽃피우며
우리 당은 진정
사회주의 영원한 아침을 펼쳐가나니

정녕,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위업 한길로만
억세게 달려갈 우리 당의 신념
불패의 그 의지를 굳게굳게 믿으시며

저 만수대언덕우에서
우리 수령님 손을 높이 들어
당창건기념탑을 가리키시는 그 의미

마음속 뜨거이 느껴와...

오 탑이여
당창건기념탑이여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대를 이어 끝까지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따라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이 땅은
하나의 거대한 붉은 기폭이 되어
세기의 하늘가득 휘날려가려니

그렇더라
력사가 산거하는 날과
이 땅에 아침이 영주하는 시간은 같아
내 삼가 당창건기념탑
저 대돌우의 붓을 들어 진리의 노래를 새기노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뜻을 따라
수령님 거룩한 손길이 가리키는곳에서
휘황한 새세기를 물들이며 해가 솟는다
그 위대한 손길을 따라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뜬다!

붉은기와 속삭이다

박세일

태어나서 여덟해 그 나이에 벌써
붉은기여, 내 너와 인연을 맺었다
여덟살때 가슴앞에 드리운 붉은넥타이
그것은 그대로 네 기폭의 한끝이 아니었더냐
그때로부터 백지장같은 이 어린 가슴이
순수한 너의 빛갈로 물들여진게 아니냐

그래서 머나먼 혁명의 천만리에
내 혹시 힘이 지치면
마음의 손길은 허물없이
너의 기폭을 끌어당겼다
그러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은것처럼
온몸엔 산악의 힘이 꿈틀거리고...

제국주의 압살바람이 밀려들 때도
핵위협이 불구름이 덮쳐들 때도
붉은기여, 더 높이 너를 내뿜들렀다

하여 나의 머리우엔 항상
너의 노을빛으로 밝아오는
승리라는 아침이 비껴있었다

이렇듯 전사의 걸음걸음
들고가면 신념과 의지의 기둥이요
마주서면, 때없이 마주서면
저도몰래 생긴 마음속 작은 허물까지도
거울처럼 환히 비쳐주거니

오, 붉은기 붉은기
네가 나뭇기는 그 어느 전장에서
내 만일 장렬하게 쓰러진다면
그 붉은 기폭은 이몸을 안아 일으키리
너와 함께 시작한 내 삶의 전 구간을
영생의 빛으로 붉게 채색해줄
아, 붉은기! 내 운명의 기치여!

만병초

김철진

113급행렬차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승차안전원 리복성은 계급직원쭈놈이 뽑아든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안고 중태에 빠졌다.

X

집무실 창가에는 만병초 꽃화분이 놓여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가에 시선을 멈추신채 백두산에서 7월에 피는 만병초가 11월에 꽃망울은 터친것을 이윽도록 지켜보고계셨다. 소담하게 핀 연분홍꽃송이들은 열어졌힌 창문새로 스며드는 바람결에 흐느적이며 그 무엇인가를 속삭이는듯도 하고 또 그 무엇을 소원하는듯도싶었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에서 찬바람 눈비를 맞으며 눈속에서도 피는 강직한 꽃.

어제 당중앙의 한 일군이 리복성이 피우던 만병초를 장군님의 집무실에 가져왔다.

장군님께서는 그 꽃이 보고싶으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연분홍 꽃송이를 통하여 리복성을 그려보고계시었다.

만병초와 이어진 리복성의 생활세부는 극히 단편적이고 평범한것이였다. 승차안전원이 되어 2년, 달리는 렬차우에서 질서유지사업이 잘되지 않을 땐 사람들에게 큰소리도 쳤다. 그런 일로 비판도 받고 번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백두산답사길에 오르게 되였다. 그는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붉은 기발을 들고 말없이 걸었다. 원체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인데다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이런 말을 한마디 하곤했다.

《백두산에 오르니 자꾸 머리가 숙여지는구만.》

범상한 말이어서 모두 무심히 들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리복성은 당조직으로부터 받은 분공이였던 백두산답사감상을 발표하였다. 말주변이 모자라는 그여서 힘들게 자기의 심정을 말했다.

《백두산에서 만병초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의 자욱을 간직한 그 꽃을 보느라니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라고 저에게 군복을 입혀주시었는데… 전… 이제부터 만병초처럼 아름답고 굳세게

살립니다.…”》

리복성의 목소리는 낮았고 결의도 요란하지 않았다. 그후 그가 집에서 만병초를 키우고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동지와 집단앞에서 한 그 말을 리복성은 자주 안해 송순옥에게 하곤하였다고 한다.

진실한 인간의 맹세란 언제나 소박한것이다. 그러나 드리지 않는다는데 진가가 있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다음 부부가 나란히 만병초꽃송이를 들고 만수대언덕에 오르곤하였었다.

《만병초…》

나직이 꽃이름을 다시금 되뇌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색을 이어나가시었다.

사람은 사람마다 제 사랑하는 꽃이 있다. 그것은 제나름의 취미와 기호와 정서때문일것이다. 리복성은 꽃중에서도 백두산에서 피는 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꽃처럼 살기를 열렬히 희망하였었다.

그속에서 사랑이 피여났고 위훈도 태여났다.

…폭우속으로 113렬차가 달리고있었다. 밤이였다.

송순옥은 승강대쪽 문가에 서있었다.

비뿌리는 창밖으로 역들이 언뜻 지나쳤다. 차츰 렬차의 속도가 떨어지더니 스프르 떨어졌다. 간이역의 한적한 흠으로 승객들이 내리는것이 보였다. 무심히 역사쪽을 바라보던 송순옥은 한곳에 눈길을 멈추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판이 보였다. 조명불빛을 받아 환한 그앞으로 한사람이 성급하게 다가가고있었다. 군복을 입었다는것이 알렸다. 손에는 꽃 한송이가 들려있었다.

《아!…》

송순옥은 저도 모르게 두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 군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깊은 밤.

어버이수령님 현지교시판 대리석축대우에 꽃송이를 정히 놓은 군관이 거수경례를 했다. 송순옥은 금시 눈앞이 확 흐려났다. 녀성고사총중대에 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 녀성대원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친딸처럼 한품에 안아주시던 위대한 어버이께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시간이 갈수록 믿을수 없다. 저 군관도 어버이수령님과 이어진 깊은 사연을 간직했으리라. 순간 기차

가 덜컥 움직였다. 눈물을 흘린 송순옥은 자기의
넋을 부른 그 군관의 모습을 찾았다.

현지교서관앞을 떠난 군관이 표적는곳으로 나
갈대신 열차를 향해 달려오는것이였다.

열차는 속도를 점점 높였다.

《어쩌나...》

송순옥은 저도 모르게 승강대문을 열었다. 비
발이 확 날아들었다. 군관은 조금도 덤비는 품이
없이 달려오더니 송순옥이가 서있는 승강대우에
한발을 올려짚었다.

《동무!...》

송순옥은 다급하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관성력을 리용하여 몸을 불쑥 솟구친 군관이
송순옥의 손을 무릅없이 잡고 쑥 들어왔다. 그때
야 안전원임을 알아볼수 있었다.

《고맙소!》

이렇게 말한 그 안전원은 자기의 손에 잡힌 희
고 작은 손을 보자 어쭙게 웃으며 맥없이 놓았
다.

그들은 똑같은 상위의 군사칭호를 가진 군관이
였다.

《상위동무... 혹... 자리가 없어서...》

더듬거리는 그 물음에 송순옥은 당돌한 어조로
대답했다.

《송순옥이예요. 제대군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고향으로?》

《예, 다음역에서 내린답니다.》

《그랬겠군요. 내 이름은 리복성이라우... 승차
안전원입니다...》

리복성은 순진하게 웃었다.

송순옥은 자기앞에 선 젊은 안전원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한순간에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치고는 너무도 어질게 생겼고 빼여진데가 없
었다.

《군사복무는 안한가부지요?》

송순옥의 그 소리에 리복성은 대번에 고개를
내저었다.

《아닙니다. 해안포병이였습니다.》

《포병이였나요? 저도 고사총중대장이였어요.
그러니 우린 통하는데가 있어요. 호호호.》

《예? 허허, 동문 대렬구령이나 치듯 말하는게
보통이 아니군요.》

《전 예도는걸 싫어해요. 그저 아무 일이나 고
사총쏘듯 편발사격을 해야 성차거든요.》

《그게 좋지요.》

두사람은 그저 이러루한 이야기로 한역사이 시
간을 다 보내는가싶었다.

문득 밖을 내다보던 송순옥이 차칸안으로 들어

가 배낭과 트렁크를 들고나왔다.

《내리겠습니까?》

리복성은 별스레 섭섭해하며 물었다.

《그러문요...》

상긋이 웃던 송순옥이 그제야 무슨 생각이 났
는지 물었다.

《복성동무, 현지교서관앞에 놓았던 그 꽃이를
이 뭐나요?》

《예?... 그럼 동무도 그걸...》

《저도 그 꽃을 피우자고 생각해요. 멀리서 봤
지만 정말 곱더군요.》

리복성은 어쭙게 웃었다.

《만병춡니다.》

《만병초?!... 그렇군요!》

송순옥은 리복성을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집에서 만병초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고마와요...》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잊을수
없었다.

송순옥은 그후 평양에 있는 리복성의 집을 찾
았다. 그날밤 두사람은 오래도록 밤길을 걸었다.
만병초꽃을 들고 만병초이야기를 나누며 만수대
언덕에 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병초꽃송이를 쓸어만지시
였다. 가슴이 아프시였다. 꽃도 두송이가 피었다.

꼭 리복성이와 송순옥이 나란히 서있는듯싶다.
그들의 넋처럼 핀 꽃이다. 굳센 뿌리를 둔 사랑
이였다. 젊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이 있다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만병초와 이어진 사연이 있다.
그만한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야 왜 없겠는가.
그러나 꽃앞에서 다진 맹세를 리복성이처럼 지킨
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사의 넋을 보고계시였다.
만병초에서 순결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만병초꽃
처럼 백두산의 그 정신을 안고살리라던 그들이였
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약속을 이를 때처럼
번개같이 짧게도 흘렀고 끝이 났다. 리복성은 임
무를 수행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자기를 위한 일에서는 소심하고 지어 나약하기
까지 했으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호랑이같은
기상을 보여준 리복성.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몇번 련상해보신 전사의
영웅적소행을 또다시 더듬으시고나서 집무탁쪽으
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리복성은 갔다. 31
살 한창나이에 살아가 할 앞날을 너무도 많이 남
겨놓고 떠나갔다. 오늘 사회안전부에서 그의 장
례식을 한다.

한손으로 집무탁을 짚으신 그이께서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신다.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어 계급의 전위투사들의 희생도 불가피한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전사의 이름을 불러보시였다.

《리복성!...》

리복성의 영웅적소행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강력한 의료집단을 무어 소생전투를 벌리게 하시였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로 치료정형을 알아보시였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기울인 정성은 너무도 컸지만 전사는 가고야말았다. 그러고보면 현대의학이 도달한 수준이 불만스럽다. 것처럼 순박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지켜주어야할게 아닌가. 하지만 의학도 인간의 주관적욕망앞에서 무력한것인듯싶다. 그렇다고 의학을 탓할수는 없다. 인간의 영생은 의학에 의해서 담보되는것이 아닌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안전부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려고 송수화기를 드시려는데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 일군은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경에하는 장군님, 사회안전부의 책임일군들이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드셨던 송수화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 급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서 들여보내시오.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윽하여 문가에 낮익은 모습들이 보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들을 향해 급히 걸어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의 손을 차례로 잡아주시였다.

무거운 표정과 침묵 속의 인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없이 손으로 자리를 권했다. 장령들이 자리를 잡고도 앉을념을 못하고 주저하자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어서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누구도 성큼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야릇한 기대를 안고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왜 모두들 말이 없는가, 사랑하는 동지를 떠나보내고 온 마음들이니 오죽이나 아프겠는가. 모든 잘못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죄스러운 심정을 안고있는 얼굴들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앉지 않으시고 방안을 거니시였다.

만병초가 놓인 창문쪽에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 연분홍꽃송이를 다시금 곁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꽃을 통하여 리복성동무를 그려보았습니다.》

그이의 갈리신 음성이 방안의 고요에 파문을 일으켰다.

나이지숙한 한 장령이 고개를 푹 꺾으며 흐느낌을 삼키였다.

김정일 동지의 그 말씀앞에서 눈썹리가 확 젖어났던것이다.

《송순옥동무가 용케 견디여냈구만.》

한손으로 꽃송이를 쓸어만지시며 **김정일** 동지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자 반백의 장령이 일어섰다.

마음을 진정한 반백의 장령이 생의 마지막순간에 만났던 리복성과 송순옥에 대한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나갔다.

...리복성은 백설같은 포단속에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만병초꽃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생기에 넘쳐있었다.

방안에는 꽃향기가 짙게 풍기였다.

《순옥이, 이제 퇴원하면 우리 함께 만수대를 찾아가지요.》

송순옥은 창백한 남편의 얼굴을 곁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요...》

활달하고 열정적인 송순옥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한손에는 꽃을, 다른손에는 안해의 손을 꼭 잡은 리복성은 그지없이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난 지금도 달리는 렬차우에 서있는 심정이요. 113렬차는 아마 지금쯤은 함흥역에 들어설거요. 왜 그런지 렬차에서 단 한번 만났던 사람들까지 죄다 기억해내고싶구만. 내가 탓하고 노엽혔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용서를 빌고싶소... 허... 허》

송순옥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리복성을 이윽히 지켜보았다.

그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최후의 말을 하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순옥이》

《예, 전... 다 듣고있어요.》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던 비내리던 그밤...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소. 순옥이도 그때부터 만병초를 더 사랑하게 됐지.》

《그래요. 만병초였어요. 이 꽃이 저의 넋을 동무에게 날라갔어요...》

리복성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렇소.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였지! 그래... 그 마음이였소. 동무와 나는

이 만병초처럼 마음의 뿌리를 백두산에 억세게 내리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을 더 잘 모시며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자고 했는데… 난…》

《여보!》

송순옥은 리복성의 손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꽃송이를 받아쥐며 다급하게 불렀다. 창백한 얼굴에 회오리바람과 같은 환희의 물결을 일으킨 리복성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말을 이었다.

《렬차는… 줄기차게 달릴거요. 우리의 그 마음을 안고…》

송순옥은 머리맡에 놓인 군모를 리복성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사랑하는 남편의 볼에 자기 볼을 마주 비비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멀지 않은곳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시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가에 다가가시었다.

보슬비가 내린다. 너무도 평범하고 조용히 살고 간 복성이어서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마저 소리를 내기 저어한다.

그렇게 산 유명무명의 정치보위자들은 그 얼마였던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기에 어머니대지의 품에 안겨 영혼은 안식을 누리리라. 그들모두를 다시 불러올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들은 모두가 리복성이처럼 한 모양의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영웅적위훈을 소박한 임무수행으로 알고간 전사들이다. 진정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충성심을 지닌 인간들이었다.

《송순옥동무가 오늘 다른 말을 한게 없습니까!》

창문을 등진 **김정일** 동지께서는 물으시었다. 사회안전부 정치국의 책임일군이 일어섰다. 그는 두눈에 경건한 빛을 담고 대답을 드리었다.

《송순옥동무는 리복성동무를 대신하여 그가 썼던 초소에 꼭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성동무가 생전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만병초를 영원히 가슴속에 꽃피우며 그 꽃처럼 곳곳이 살겠다고…》

그 일군은 종시 말끝을 맺지 못했다. 꼭 다문

입술사이로 걱정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 일군에게 다가서시더니 두손을 꼭 잡으시었다.

《전해주시오… 송순옥동무에게… 최고사령관의 인사를 말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최고사령관동지!!》

장령들은 애써 눌러오던 가슴속의 뜨거운 응어를 씹으며 그이를 우려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펍 갈리신 음성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리복성동무는 백두산에 뿌리를 박은 만병초처럼 변함없는 신념을 지닌 우리 당의 아들, 인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안전일군들은 리복성동무처럼 신념의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보위하는 계급투쟁의 전위투사가 될수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살고 인민을 위해 죽을줄 아는 여기에 혁명가의 삶의 진가가 있는것이고 인생의 보람이 있는것입니다. 리복성동무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합시다!…》

일군들은 영웅전사와 함께 사회안전원모두에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신임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몸소 리복성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문건에 수표하신다음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아직도 못다주신 사랑으로 마음에 걸리는 그이 이시었다.

말씀을 이으시는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갈리어 있었다.

《공화국영웅 리복성, 그는 오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안전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리복성동무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하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꼭 틀어쥔 주먹으로 허공을 째 그으며 말씀하시거나서 일군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꽃화분에 시선을 옮기시었다. 전사의 모습인양 만병초꽃송이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기쁨

김응하

고삭은 지붕을 인
화선의 기숙사여
휘발하 기슭의
버드나무숲이여

그이의 예지에 경탄하여
밤마다 열혈의 청춘들이 모여든곳
그이의 인품에 매혹되어
뜨거운 심장들이 따라서던곳

광야의 밤에
그이께서 등불심지 돌구시며
젊은 가슴들에
진리의 불을 지펴주던 나날이여

그이께서 상처를 싸매주시며
정도 뜻도 다 안겨주시던 기숙사
그이를 모시고 론쟁으로 저물던
강기슭의 버드나무숲이여

잊지 못할 그 나날에
그이의 사상으로 새로이 고동친 심장은 얼마나
그이와 뜻도 생사도 함께 할
맹세를 다진 동지는 얼마나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네가 나되고
내가 너되는
새로운 동지를 얻을 때마다
세계의 한구역을 얻으신듯
가슴에 따로 둔 심장이 없이
혁명을 위하여 하나가 된 마음
운명의 동지를 얻을 때마다
우주를 다 안으신듯

동지를 얻는 길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느끼시고
혁명가의 가장 큰 행복을 안으신
우리의 수령님

그 기쁨속에
《E. C》가 태어나고
우리 당이 태어났더라
수백만 혁명의 대오가 무어지고
인간중심의 새 세상이 펼쳐졌으니

수령님 한평생 넓혀가신
동지애의 세계가 시작된곳
력사의 땅
잊지 못할 화전이여

흘러온 세기의 저끝에 너는 있어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구나
세상을 얻는 리치가
동지로부터 시작됨을!

밝아오는 아침노을속에

로창일

유구한 인류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던 그렇듯 신성하고 빛나는 이름으로 20세기를 수놓은 혁명의 성지-《금수산기념궁전》,

여기에 주체의 태양으로, 불세출의 위인으로 세계가 우러르는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하고계신다.

세세로 갈망하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주체사상의 열쇠로 열어주시고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해주신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에 받들리어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오앞에 서계신다.

성스러운 이곳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과 자주위대한 사상이 빛나고있어 인민들의 심장과 심장은 주체의 숨결로 더 높이 뛰고있으며 오늘도 이 시대는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사상에서, 령도와 덕망에서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최고의 구감이시였던 우리 수령님. 그래서 인민들속에서 나오시였지만 하늘이 낸 분이시라고 세계가 격찬하며 칭송하던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성스러운 이곳에 들어서면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품에 다시 안기는것만 같아 뛴어오르는 걱정을 누를수 없다.

대동강의 유정한 흐름과 년년이 푸르러가는 대성산의 청청한 수림이 운치를 돋구는 뜻깊은 이곳에서 주체의 성스러운 빛발에 싸안기는것만 같아 자신을 다잡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가득차있고 거룩한 령도의 자욱으로 빛나고있으며 고결한 품모로 가슴 덥혀주는 유서깊은 성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집무실의 책상우에서는 위대한 사상을 적어가시던 그날의 글줄이 보이는것만 같고 수령님의 품에 안겨 목메여 흐느끼던 혁명전사들의 감격이 지금도 저 방에서 울려오는것만 같다. 싸우는 섬나라의 투사들과 새 생활을 창조해가는 수억만 인민들이 투쟁의 진로를 받아안고 터치던 환희의 목소리가 저 휴계실에서도 들리는것만 같다.

정원의 조용한 숲속에서, 드넓은 광장의 포석우에서 인민을 위한 사색의 걸음을 옮겨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를 보는것만 같아 더욱 숭엄해지는 마음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이곳에서 오늘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을 뵈옵게 된 우리 인민들의 감격은 끝이 없다.

생각도 깊어진다.

누구나 여기에 오면 새 시대를 창조하는 심원한 사상을 받아안게 되고 혁명의 기관차를 몰아간 위력한 령도의 힘을 보게 되며 세계를 안아주는 은혜로운 품을 알게 되거니

사람들은 인류사에 처음으로 솟아오른 이 력사의 성지에서 더없는 행복을 지니게 된다.

오늘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기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온 세계에 힘있게 퍼져가고 수령님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이 물결처럼 흘러와 수령님과 인민은 한 모습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이곳에 마음의 뿌리를 두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며 혁명의 매 걸음도 여기서 다진 맹세를 안고 옮겨가며 수령님의 전사로, 수령님의 제자로 살며 투쟁한다.

기쁨과 자랑이 생겨도 여기부터 찾아오고 당을 받들어 충성다해갈 신념의 맹세도 여기에서 다진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 금시라도 마주나오실것만 같은 저 출입문을 열고 궁전안에 들어서면 아, 정녕 우리 수령님이시다. 밝아오는 아침노을속에 수령님께서 여전히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동안도 잘있었는데가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많은 일을 했다고 대견해하시며 어떤 자랑을 안고왔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는것 같고 우리가 올리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주시는것만 같다.

해쓷은 바다의 아침인양 누리가 밝아온다. 마음은 바다를 안은듯 끝없이 설레인다.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앞에 서면 수령님의 사상이 가슴에 흘러들고 령도의 손길에 이끌리며 숭고한 품모에 가슴이 젖어온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서계시며 인류의 다함없는 인사를 받고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에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물결은 끝이 없다.

협동별농민들이 올리는 소박한 심정도 있고 용해장의 쇠물처럼 뜨겁게 다지는 로동계급의 맹세도 들린다. 초소의 병사들도 백발의 로인들과 청년들도 렬을 지어 찾고 또 찾는다.

그뿐이라.

이역의 동포들도 남녘의 거레들도 걱정의 눈물

흘리며 수령님앞에 서고 머나먼 대륙을 넘어온 투사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러 인사를 드린다. 여기 혁명의 성지로 달려오는 세상 사람들이 경모의 마음을 끝없이 이어가고 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향해지고있으니 여기에 태양을 따라 돌고도는 행성의 궤도가 내려앉은것인가.

인생의 값높은 모든것을 안겨주시여 영광과 행복의 상상봉에 인민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완성을 위한 진군길우에서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수령님의 품에 안겨있고 수령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 인민이여서 수령님은 언제나 이렇게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것이다.

수령님 계시는곳으로 계단을 오르느라면 수령님 한평생의 로고가 돌이켜져 가슴몽글해진다. 하여 수령님께서 두팔벌려 부르시는것만같은 넓은 계단이지만 선뜻 오를수 없어 사람들은 조국과 혁명 앞에 쌓으신 불멸의 그 업적을 한걸음한걸음 새겨가며 오른다. 수령님을 길이 모실 충성의 마음을 엮어가며 오른다.

자손만대 행복을 누리갈 인민의 기쁨도, 저너머 타오르는 주체의 봉화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승리할 그날도 그러보시는듯, 마치고 낮과 밤을 틀어잡은 당창건기념탑의 역세인 손들에서 부강하게 다져진 내 나라의 위용을 보시며 만시름을 놓으시고 주무시는것만 같은 수령님의 생전의 그 모습.

새날을 불러 인민을 안으시여 또 하루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계시는가, 생전에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서야 시름없이 계시는가.

한평생 쌓이신 온갖 로고를 이제라도 모두 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민들은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인사를 드린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우리가 안고사는 이 행복도 아뢰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이 되었다고, 장군님께서 계시여 모든 일이 잘되고 언제나 이기고있다고, 우리의 배심도 든든해졌다고.

뜨고싶지 않아 한시라도 더 수령님곁에 있고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넘쳐나 가슴뜨거워진다.

수령님을 잃고 너무도 절통하여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밤이고 낮이고 수령님을 부르며 찾던 인민에게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은 바다처럼 일렁이며 가슴에 차넘치는 것이다.

아버지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의 념원을 풀어주셨습니다. 수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다.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림 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것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열백번 변해도 한치도 드림없을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이 의지와 신념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에 류례가 없었고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멸의 성지를 세우시여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생전의 모습을 뵈오며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게 해주시였고 투쟁과 승리의 기치가 인류의 앞길에 날리게 해주시였다.

수령님을 잃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안고계시면서도 해빛같은 수령님의 영상을 안고 인민이 일떠서게 해주시고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인민들이 수령님의 숨결을 안고 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타셨던 인민행렬차를 오직 수령님 물고가시던 그 길로만 달리게 하시며 사색도 심혈도 인민을 위해 바쳐오셨기에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신것이다.

하기에 여기를 찾았던 외국의 한 벼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쳐놓았다.

《후계자가 위대할 때 수령도 위대한 모습으로 영생한다. 수령의 제일 큰 업적은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는데 있다. 가장 순결하고 결출한 **김정일**동지를 후계자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이야말로 업적중의 업적이며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그이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이다.》

옳은 말이다.

력사에는 자기의 후계자를 바로 맞지 못하여 세월의 이끼에 묻혀버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생존시에는 수령의 업적을 찬미하던자들이 서거한 후에는 수령의 사상을 거세하고 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그들의 마음에 깃든 수령의 영상을 흐려놓으려 그 얼마나 비렬하게 책동하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가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고 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숭고한 도덕관으로 세계를 감동시키시었다.

수령님께서 쌓으신 업적이 새겨져있고 수령님의 체온이 그대로 스며있어 만사람이 못잊어하는 이곳에 웅장하고 숭엄한 기념공전을 꾸리시여 인류사에 전무후무할 가장 큰 공적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높은 도덕의리심으로 수령님을 받들고 모셔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성의 마음은 기념공전의 그 어느것에나 깃들어있다.

방은 방마다 홀은 홀마다 계단과 기둥하나에도 예지의 손길이 닿아있고 한뼘의 대리석자재며 조도장치에도, 이곳을 찾게 되는 인민들의 행로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미쳐어있다.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실 때는 여기부터 들리시여 수령님을 더 잘 모실 방도를 세워주시고서야 수령님의 자옥이 어린 그 길을 따라 인민들을 찾으시고 때없이 이곳을 찾으시여 설계의 점 하나, 선 하나도 바로잡아 주시며 때로는 이른새벽 때로는 깊은 밤에도 오시여 시공수가 되셨고 건설자가 되시였던 경애하는 그이의 효성의 마음은 끝이 없었으니 그 고결한 충효의 마음이 어리여

력사의 성지에는 영원한 주체의 노을이 피어났고 성스러운 단상이 솟아올랐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 바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리의 절정, 도덕의 절정, 충효의 절정.

여기에 피어난 찬란한 노을속에 오늘도 래일도

이 당의 새날이 밝아오고 여기를 축으로 지구가 돌며 력사가 전진할것이다.

이 불멸의 성지와 더불어 경애하는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도 그 노을속에서 빛을 뿌리며 천후만대에 전해질것이다.

우리 여기서 태양의 위업을 순결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함께 보며 그이를 또 한분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영광과 기쁨에 차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이 위대한 성지에서 수령님은 영원한 아침노을속에 계시며 주체의 해발을 비쳐주실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인민은 수령님의 사상으로 숨쉬고 조선은 수령님 가리키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 조국은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로 더더욱 아름다와지리라.

하기에 수령님을 우리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얼굴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과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해갈 신념의 맹세가 력력하다.

누구나 이 력사의 성지에서 수령님 뿌리시는 영원한 주체의 노을과 함께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넘친 걱정을 들을수 있으리라.

아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력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한마음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심장의 웨침을!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노래

쓰. 수렌자브

자유롭고 시달린 대중을
투쟁의 길로 불러일으키시고
전설적인 백두산에

영원한 해불을 지펴올리신분

김일성 당신의 존함과 업적은
대를 이어 영원하리

김일성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은
전세계에 진실로 남아있으리

자주의 길로 발전하는

모범의 나라 조선

아름다운 모든것 당신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맞이하리

김일성 당신의 존함과 업적은

대를 이어 영원하리

김일성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은
전세계에 진실로 남아있으리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로

남먼저 도달할 밝은 길이 있다네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좋은 방도가 있다네

김일성 당신의 존함과 업적은

대를 이어 영원하리

김일성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은
전세계에 진실로 남아있으리

(필자는 몽골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칭송한 시대의 찬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하여-

리수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한뼉에 즈음하여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김일성**상》계관인 김만영작)가 창작발표되었다.

서사시는 발표되자 근래에 보기 드문 놀라운 침투력과 감화력, 건인성과 호소성을 가지고 널리 파급되었으며 대중들의 격찬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공장, 기지와 농장의 발머리,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이 서사시를 소리높이 읊으며 내 나라, 내조국을 위한 투쟁의 길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참으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한편의 혁명적인 시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명언의 진리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작의 본보기이며 주체적시문학의 발전도상에 빛나는 리정표를 세운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격동으로 충만된 시기를 반영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받들어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자랑차게 노래하고 이 위대한 시대를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활동을 무한한 흠모의 열정담아 레찬한 작품이다.

서사시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수령형상시문학의 특출한 경지를 과시하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었다.

수령형상시문학의 세계적인 걸작으로서 이 서사시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제기하고 해명한 사상적문제의 철학적심오성에서 나타나고있다.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한뼉을 맞이하여 조국땅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 솟아오른 역사적사변을 계기로 서사적인 형상을 펼치고있다.

작품은 종래에 일련의 서사시들이 하였듯이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평면적으로 전개하면서 규모를 크게 잡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있다.

서사시는 자기 화폭에 1994-1995년의 잊지 못

할 한해를 담아 노래하면서 위대한 생애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가슴뜨거이 안아보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매혹되어 심장의 노래를 터치는 간명하나 웅심깊은 서정구조속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주제를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서사시가 노래한 한해의 세월은 길지 않으나 그 세월속에 담아 노래된 위대한 생활의 정서적내용은 참으로 숭고하고 감격적이며 그 세월을 통해 서사시가 밝힌 사상적내용은 철학적심오성에서 비상히 웅심깊다.

서사시는 숭고한 충효의 높이에 오른 위대한 후계자께서 계시여 수령이 영생불멸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사소한 동요와 곡절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하여 나간다는 력사의 진리를 신념의 목소리로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이 신념의 토로에 수령이 개척하고 이끌어온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근본담보가 있다는 혁명의 진리가 무게있게 울려나오고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수령의 서거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하지 못할 크나큰 상실인 동시에 혁명앞에 조성된 준엄한 난국이다.

오늘의 세계는 바로 이것을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쓰라린 현실에서 심각히 체험하고있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열쇠는 어데 있으며 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과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서사시는 오늘의 시대가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이 문제를 그것이 빛나게 해결된 우리의 자랑찬 현실을 구가함으로써 심오히 해명하였다. 시는 또한 수령을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더욱 역세계 전진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서사시가 제기하고 주장한 인간문제는 그 시대성, 보편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수령형상문학에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한 그 독창성으로 하여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서사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모와 활동, 그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노래함에 있어서 종

래에 제기하지 못하였던 수령에 대한 숭고한 충효일심, 공산주의적도덕의리에 모를 박아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을 펼치였다.

후계자의 공산주의적도덕관의 순결성, 숭고성이 후계자의 품모와 활동, 혁명위업의 계승발전에서 가지는 결정적인 의의를 제기한 이 서사시는 혁명의 전환기에 수령의 후계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주제와 문제성의 탐구에서 독창적인 경지를 보여주었다.

참으로 서사시는 그가 제기하고 해명한 인간문제의 철학적심오성과 진리성, 시대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기능을 무게있게 체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온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효의 세계를 사실그대로 감동깊게 안겨주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후계자와 운명도 미래도 함께 하여나갈것을 심장으로 호소하는 바로 여기에 서사시의 거대한 감화력과 특출한 사상에술적경지가 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달성한 사상에술적성과는 우리 인민이 높이 받들어 모신 수령과 령도자의 위대성형상에서 더욱 빛나게 이룩되었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형상을 수령과 후계자와의 혼연일체의 관계속에서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들의 숭고하고 감동깊은 생활에 의거하여 불멸의 서정적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독자들의 심장을 절절한 흠모와 영원한 충성으로 불타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형상은 이 서사시에서 서정적주인공-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정서우에 창조되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밝혀 주신 사무치는 수령관의 안광으로 부각된 만민의 영원한 태양, 영생하는 절세의 위인의 형상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헤쳐온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1994년은 위대한 생애의 격동적인 시기로 절세의 위인의 위대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한 해였다.

시인은 이 숭고하고 격동적인 력사의 시점에서 서정적체험을 불태우며 수령형상의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랐으니 서사시가 창조한 수령의 위대성의 새 세계,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어본 적없는 인민을 위한 위대한 헌신의 세계였다.

서사시는 이 헌신의 위대한 높이를 인민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세계로 받아안고 수령형상을 인민의 영원한 태양으로 승화시켰다.

《금수산기념공전》앞에 선 시인은 절절한 체험속에 이렇게 노래한다.

여기에 한번 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으리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쌓으신 그 업적
얼마나 빛나는가를

인민을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수령님
...

인민을 위해 영원한 세계를 마련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생애의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깡그리 바치고 떠나가신 아버지수령님, 이 대조적인 시적형상에 얼마나 많고많은것이 담겨져있는것이랴.

진정 아버지수령님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헌신하시고 영생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생하시는 그 뜻을 서정적형상으로 진지하게 추구해나가면서 찬란한 태양의 시적형상을 완벽하게 부각한다.

서사시는 인민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워 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불멸의 업적을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형상들에 담아 집약화해나가면서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안겨준다. 이 정론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형상은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시화하여 배찬한 홀륭한 형상세계이다.

시인은 그 세계를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그래서 태양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듯 우리 수령님의 이름은 온 세상이 다 아는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토로한다.

서사시가 노래하는 영원한 태양의 빛은 영원한 태양이 가진 불타는 열기로 확증된다.

생애의 마지막해에 남기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한생을 불덩이와 같은 생애로 칭송한 서정세계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나는 모른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그렇게 불같이 사시다
그렇게 불같이 가신분을
그렇게 생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간
그런 위대한 인간을

마치 떠나가실것을
미리 다 아신것처럼

수령으로
아버이로
인간으로 해야 할 그 모든 일
미결건이 없이
하나하나 다 매듭을 지으시더니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집무실에서 순직하신분
물어보자 세계여, 력사여
그런 인간
그런 혁명가
그런 령도자가 그 언제 있어보았더냐

위대한 헌신으로 한생을 불같이 달려오신 그이,
그 불같이신 성미로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수수한 보통사람으로 생활해오시면서 보통사람
의 몇갑절 인민 위해 헌신하신 그이, 인민에게
모든것을 바치시고는 자신을 위해 그 무엇도 남
기지 않으신 불같은 애정으로 충만된 그이의 한
생을 두고 노래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린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풍모를 체현하시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그 위대한 헌
신의 세계에 력점을 찍어 인민에게 영원한 빛과
열을 한가득 안겨주신 영원한 은인, 태양으로밖
에 달리는 노래하지 못할 위대한 형상으로 훌륭
히 구가하였는바 여기에 수령형상창조에서 이 서
사시가 도달한 높은 경지가 있다.

우리 시문학은 지난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태
양의 상위에 담아 칭송하는 시형상을 적지 않게
창조하여왔다.

하지만 이 서사시처럼 태양의 상징적형상이 진
실하고 성숙된 열정으로 확충되어 사람들의 가슴
마다에 심금을 울리며 안겨드는 경우는 흔치 않
았다. 오직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헌신에 대한
절절한 체험우에 상징적비유가 결합되어 서정적
형상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것이다.

서사시는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온 세계가 진감하던 그 격동적인 나날에 모를 박
아 수령님의 위인상을 정서적으로 강조하는 감명
깊은 시세계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한생의 시작
과 끝을 두고 이루어진 조용한 오심과 세계를 진
감시킨 떠나가심이라는 생활정서의 대조적인 형
상이 바로 그것이다.

감각적인 정서가 뚜렷이 대조된 특색있는 이
형상은 너무나도 수수한 인민적가정에서 탄생하
시여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인류를 위해 류레없
이 거창한 위업을 쌓으시고 떠나가신 그이의 업
적의 세기적인 무게, 그 권위의 절대적인 높이를
말해주는 감명깊은 서정적형상이다.

생활정서의 이 감각적인 대조로 하여 아버지수령님
의 위인상은 서정적형상의 거대한 폭과 깊이를
알게 되었으며 그 바탕우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덕망과 권위에 대하여 최고의 최고라고 력
사의 정의를 내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
씀의 참뜻이 진정 명언중의 명언으로 심금에 울
려오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진실하게 체험한
기초우에서 특징적으로 파악되고 예리화된 서정
적형상의 이러한 감각적대조는 절세의 위인상을
품위있고 철학적인 시형상으로 감명깊이 창조할
수있게 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었다.

오실 때에는 조용히 오시였으나 한생에 너무나
도 거창한 업적을 이룩하시고 떠나가실 때에는
누리를 진감시키며 떠나가신 위인, 새날을 주고
길을 밝힌 빛과 사랑과 헌신의 열로 하여 만민이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우러르는 절세의 위
인,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형상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는 위대한 형상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위
대성형상에서 보여준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더 나아가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풍
모와활동을 충효의 최절정에 계시는 절세의 위인으로 감
명깊이 형상한데서 나타나고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서사시작품에서 두분의 위인
형상을 빛나게 구가하는것은 아름다운 과제이지만
서사시는 오늘의 시대를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풍모와 생활에 대한 강
렬한 매혹과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복에 목메
이는 인민의 다함없는 사상감정을 기울여 이 형
상과제를 시적으로 훌륭히 해결하였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
을 잃고 보내신 지나간 한해의 위대한 생활가운
데서 중앙추도대회에 참석하신 사실과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들을 현지지도하신 사실 그리고 《금
수산기념궁전》을 일떠세우도록 하신 사실 등 중
요한 사적들에 모를 박아 위대성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통하여 서사시가 새롭
게 노래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형상의 주되는
특징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수령에 대한 영원한
충효일심을 지니시고 공산주의도덕관의 최절정에
서계시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체현자이시며 인
류의 자주위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새 세기
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밝힌데 있다.

서사시는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도
대회의주석단에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오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노래한시적
화폭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영원한 충실성을
철의 신념과 의지로 간직한 위대한 후계자의 모
습을 감명깊이 형상하였다.

그이도 우리를 바라보고계셨다
수령을 잃고
아버이를 잃고 슬피우는 인민
수령님 한생바쳐 키워놓으신
우리 인민을 바라보시였다

그이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였으나
우리는 다 들었어라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그이 심중의 말씀을
...

추도대회의 단상에 서시여 대회장에 운집한 인민들과 침묵속에서 교감하시는 위대한 후계자를 모신 이 장면의 정서적힘은 비상히 크다.

그것은 위대한 력사의 한장면을 생활 그대로 안고 노래하면서 시적으로 집중화, 집약화한데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추도대회의 단상을 온 나라, 온세계의 초점으로 의식하고 특징화한 감정표현의 집중성, 예리성, 무거운 비애를 안으신 후계자와 인민사이에 나누시는 교감의 호상성, 강렬성으로 하여 강한 정서적힘을 발휘한다.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은 위대한 후계자의 무언의 침묵과 그 침묵에서 울리는 위대한 심장의 크나큰 메아리를 음향적으로 대조시킨 뛰어난 감정조직으로 신념과 의지의 기대성을 뚜렷이 천명하고 있다.

서사시는 말없는 침묵을 통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높이 대대손손 아버지수령님의 위업을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고수해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강철의 의지를 정론적으로 피력하며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는 천만금의 무게를 안고 울리는 말씀으로 그 의지의 투철성을 강조한다.

가장 큰 상실과 비애의 나락에서 인민을 일떠세우신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신 전설적위인의 위대성은 이토록 높은 경지에 오른 매혹적인 시적형상으로 힘있게 진실하게 재현되었다.

서사시는 이어 한해를 하루같이 충효의 나날을 이어가시며 드디어 주체의 최고성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을 구가하면서 그이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관을 철학적으로 응심깊이 밝히었다.

인간생활의 내면을 정서적으로 파고들며 그 정수를 천명하는 시적사색은 논리적사고가 파악하지 못하는 생활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고 생동하게 드러낸다.

서사시는 진정한 시적사색에 의거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심리와 지향, 나아가서 인생관의 깊이를 참신하고 철학성있게 형상함으로써 위대성형상의 특출한 경지를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잊지 못하시는 그 절절한 심정이며 그이께서 한해의

나날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걸음들에 새기신 깊은 심중, 아버지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우시는 그이의 뜨거운 마음들이 모두 흠모로 하여 끝없이 깊어지는 정서적사색의 힘에 의하여 참신하게 파악되어 위대성을 부각하는 훌륭한 형상세계를 이루고있다.

서사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어제에도 오늘도 잊지 못하시는 그이의 절절하신 심정을 방불하게 재현한 세부, 수령님께서 멀리 출장가신것만 같다고, 출장가시여 이번에는 오래 계시는것만 같다고 하시는 그이의 심중의 토로를 사실 그대로 시의 화쪽에 담아 노래하였다. 이 세부는 시인의 허구적창조물이 아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간의 생활은 그 어떤 예술가의 창조물에 비하지 못할 생신한 매력으로 위대성을 방불히 전하며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실로 이 하나의 생활세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셨음을 마음속으로 부정하시며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내면심리를 효성의 정화로 사람들의 가슴에 안기여준다.

서사시는 더 나아가서 경애하는 그이의 현지지도의 걸음걸음을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위대한 풍모를 새로운 깊이에서 천명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령도자의 현지지도는 국력을 다지는 실무적지도과정으로 진행되며 리해되는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서사시는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을 아버지수령님을 한마음으로 따르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에 새겨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의리심의 발현으로 받아안고 노래하였다.

한없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찾으셨던 초소와 일터들을 찾으시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민들에게 더욱 깊이 새겨주신다고 노래하는 서사시의 구절들에서 독자들은 그이의 거룩한 풍모에 매혹되어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 다.

위대한 생활들의 근처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것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감득하고 표현하는 이처럼 참신하고 깊이있는 시적사색은 드디어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우시는 그이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밝혀내는 높은 경지에서 내려친다.

...

인민들과 함께 있어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편안해하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 제일 큰 락으로 아신
수령님이시기에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수령님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으로 아는
 인민이기에

수령님의 그 소원
 인민의 그 념원을 담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에 펼쳐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서사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이 위대한 후계자의 투철한 수령관, 인민관의 결정체로 솟아오른 주체의 최고성지임을 사색깊이 노래함으로써 그 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철학적기초를 천명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여기서 서사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일심, 그것이 곧 수령님의 아들딸들인 우리 인민의 념원과 소원을 풀어주는 인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사상감정, 생활철학을 노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수령에 대한 충효일심이 그토록 뜨겁고 투철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서 밝혀진다.

수령에 대한 충효일심을 인민에 대한 가장 큰 사랑으로 지니셨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패의 향도력과 백전백승의 힘을 지닌 새 세기의 개척자, 향도자로 되시였다.

그 고결한 품모
 그 위대한 도덕으로 하여
 그이는 수령님을 잃어
 멈추어섰던 이 행성을
 다시 돌리신 유일한분

박력있게 올리는 이 구절들에는 혁명의 전환기에 세계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향도해나가는 그이의 위대한 영상이 높이 우러러 구가되고있다. 이 숭엄한 형상은 위대한 생활에 기초하여 후계자의 사상과 감정, 의지의 세계를 파고들어 부각된 형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공감시키며 힘과 용기를 주는 위력있는 형상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서사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받들어 신심높이 나아가는 오늘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줌으로써 령도자형상의 특출한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는 또한 구성조직과 언어형상 등 형상의 모든 요소를 능란하게 구사함

으로써 높은 사상성을 고상한 예술성으로 튼튼히 담보한데서 볼수 있다.

일관한 사건줄거리에 의거하지 않는 정서적양상의 서사시에서 구성의 골간을 이루는것은 다양한 사건과 일화, 생활세부들을 주정화된 설화에 의거하여 웅대한 하나의 시대적화폭으로 조형하는 감정조직이다. 여기에서 특히 서정적주인공이 《금수산기념궁전》앞에 서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토로한 대목은 매우 성공적이다. 아침노을 비낀 궁전우에 예대로 공화국기발은 펄럭이고 조용히 여닫기던 문이며 경건히 오르내리던 계단들, 그리운 미소 어려있는 창문이며 꽃나무들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은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새기며 끝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에 휩싸인다.

이제라도 문득
 저 정원의 시험포전에서
 팔소매 걷어올리신
 수령님의 그 모습 뵈올듯
 정적이 깃든 저 창문아래서
 조용히 책장 번지시는 소리도 들릴듯

얼마나 생활세부에 대한 주정화된 정서적화폭인가.

서사시는 감정조직을 다양한 방식과 규모에서 조성하면서 그것을 립체적으로 편환시켜 모든 서정적형상들을 줄기차게 받들어나가고도록 치밀한 구성을 짜고들었다. 서사시의 감정조직에서 주되는 노력이 기울여진것은 생활정서의 감각적인 대조를 축으로 하는 감정흐름이다. 서사시는 첫머리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지구가 운동을 멈추었다는 충격적인 감정을 주고 마지막부분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멈추어섰던 지구를 다시 돌리시였다는 장쾌한 감정을 줌으로써 감정의 뚜렷한 대조를 앞뒤에서 조성하였다. 이것은 서사시의 전반형상을 하나로 꿰여 받들어나갈수 있는 감정의 기본축을 마련한것으로 된다. 나아가서 서사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전반부에서 조용한 오심과 천지를 진감시킨 떠나가심이라는 정서적감각의 대조를 축으로 하는 감정선을 형성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하면서 무언의 침묵과 위대한 심장의 크나큰 메아리라는 정서적감각의 대조를 축으로 하는 다른 하나의 감정선을 조성하여 앞의 감정선과 잇닿게 하였다. 이리하여 서사시의 기본 감정축을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립체적인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참으로 짜인 구성법이다. 이 짜인 구성조직으로 하여 서사시는 위대성형상의 철학을 심화시킬 굳건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서사시는 언어형상에서도 특출한 성과를 보여준다. 서사시의 언어는 정론적인 분석력과 커다

란 개괄력을 가진 언어, 시적인 정서와 세부형상력을 가진 언어, 순탄한 호흡률과 기백있고 발랄한 운율이 결합된 음악적인 언어로서 특징된다. 이것은 위대성을 노래하는 서사시의 언어가 가져야 할 특성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하는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정론가도 무색케 할 정론적분석의 예리성과 논리성을 가진 언어구사는 서사시의 도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인류사적의의를 우리손에 운명을 개척하는 열쇠를 주고 인류의 가슴에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를 안겨주고 력사의 대로에 혁명의 기관차를 올려세워준것으로 분석론증한 대목 하나만을 들어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서사시는 시적인 세부를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어 뜨겁게 표현하는 특색있는 언어구사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금수산의사당을 두고 우리 수령님께서 북방의 흰 눈을 차우에 엮고 잠든 거리를 누벼 조용히 들어서시던곳,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설맞이궁전으로 서둘러 떠나시던곳이라고 노래한 언어표현은 얼마나 섬세한 시적정서를 안고있는가. 여기서 《조용히》, 《서둘러》라는 두 어휘에 위인의 영상을 감득시키는 참으로 깊고 뜨거운 정서가 함뱍 실렸다.

독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을 채 쓰지 못하신채 떠나가신 사연을 노래한 서사시의 세부형상에서도 가슴후더위움을 금치 못한다.

이 세부는 그 사연깊은 생활에서 우리 수령님의 불갈으신 헌신의 한생과 그 한생이 력사에 새겨져 영원함을 노래하는 시적감정을 도출함으로써 감명깊은 형상으로 되었다.

서사시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시의 세계에 이끌어들이고 격동시키는 순탄하고 박력있는 운률조성을 위하여 물샐틈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의 어느 문장, 어느 구절을 들어보아도 위 시대의 음악이 조화롭게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참으로 언어표현의 탐구에서 이 서사시가 이룩한 다채롭고 풍만한 경험과 성과를 제한된 지면에서 다 이야기할수 없음이 아쉽다.

이 모든 귀중한것은 정치적인것을 서정화하는 이 서사시의 형상과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 강력한 담보였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가 달성한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으로, 주체문학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 서사시의 출현으로 하여 우리 당은 또 하나의 위력한 사상적무기, 혁명의 보검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하신 그이께

조세프 느파리

내 심장의 노래 드리노라
위대하신 그이께
내 마음속깊이 가장 소중히 간직된
그이의 영상 우러르며

내 기꺼이 려행길에 오르리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가고 또 가리
좋은 소식 소리쳐 전하리
향도의 별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온 세계가 광명을 다시 찾았다고
우리 단결하여 전진하자고

승고한 덕성으로

영원한 행복 안겨주신 그이
위대한 사상으로 우리 앞길 열어주시고
자주의 기치 높이 드시였어라

우리의 길 멀고 험난해도
난관이 우리를 위협한대도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그이에게서 우리 희망과 용기를 찾으리
암흑을 밀어내고 광풍을 막으며
향도의 별 찬란히 솟아
우리 앞길 비쳐주네

(필자는 풍고문화성 문화관계 및 협조처장임)

당창건기념탑앞에서

김재원

마치가 솟은 의미

아버지 마디 굵은 손에서
일생 놓지 않던 마치
그 마치 무어길래
오늘은 여기 푸른 대공에
탑으로 우뚝 솟아 빛을 뿌리느냐

쳐다보면 아직도 지구를 향해
무언가 엄청난것 두드러낼듯
기운차나 몸에 넘쳐 우쭉우쭉
땅으로 뻗쳐내리는
저 마치의 힘

마치는 미치되
그 세월엔 힘이 없었던가
한가정의 식솔마저 먹여내지못해
모지라지고 귀달던 마치
땀에 절고 눈물에 삭을수만없어
항거에 치여들던 마치

어버이수령님
손잡아 이끌어주신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며
자기 운명 개척한 힘
제 자신에게 있음을
력사앞에 똑똑히 자각한 저 마치

노을비긴 백두의 저 병기창에서
첫 《연길폭탄》을 두드려냈다
해방된 이땅에 주인의 권리 선포하며
우리 당의 지향 자루에 감아쥐고
용기백배 자립의 터전을 다졌다

우리 아버지 땀에 젖은 가슴에
첫 당원증을 품은 그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것 이 땅에 일떠세웠던가
울려온다, 이 아침 하늘자락 흔들며
우리 당 력사의 장엄한 교향곡속에
저 마치가 두드려온 그 모든 창조의 음향이...

두드려냈다 마치는
자기를 자각한 주인의 모양대로
자주의 꽃 만발한 새 시대의 모양을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속에 웃음짓는
인간만세의 단란한 새 사회를

오 마치여 마치여
조선로동계급의 마치여
금지롭다,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위력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한 마치다
그래서 누리에 자주의 새 세계 펼치리
너는 여기에 솟았다, 더 힘차게 일하러!

낮에 대한 생각

우리 어머니 처녀시절부터
억척같이 거머쥐고 낱알을 가꾼 낮
저 낮도 마치와 함께
금빛탑으로 솟아 올라 빛을 뿌린다

인간을 먹여살리는 낱알이
저 낮으로 가꾸어지기에
아버지와 결혼하고도 하냥 못놓고
어머니 한생 전야를 가꿔온 저 낮

당 기발에 함께 안겨졌기에
긴긴세월 생사운명 같이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를 도와
얼마나 많은 낮 베풀었던가

마치와 총을 바꿔쥐고

아버지 전선으로 나간후도
어머니는 저 낮으로 대지를 가꾸었다
가꾸는 낱알이 곧 승리의 총탄이었기에

번쩍인다 저 낮날에
포화속달밤 가을걷이한 전야의 이슬방울이
품겨온다 저 낮날에
협동화의 나날 쌓아올린 그 낱알 향기가

내 나라 땅의 력사가 어려있고
이땅의 낱알무계가 실려있는
저 낮!
한낱 쟁기로만 볼수없는 저 낮에
우리 당 력사가 노래로 울리나니

오 낮이여 낮이여

네가 없어도
인류의 생존 누가 이으랴

위대한 당이 있기에
너도 혁명의 성스러운 무기가 아니냐

붓의 운명

발고랑의 흙내를 맡으며
공장지구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나는 자랐다
배움을 삶의 의무로 지니고

선렬들 피로 물든 기폭에 새겨진
저 신성한 금빛붓은
그 시절에 벌써
내 운명도 안고있었다

마치와 낫과 함께
새겨진 붓
위대한 수령님 손잡아 이끌어
혁명의 동행자로 세워준 붓
오늘은 대를 이어
나의 숨결로된 붓의 운명이여

축복받은 근로의 가정에 태어난 나의 붓
언제나 마치와 생사를 같이했고
언제나 낫과 고락을 같이했고
언제나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했다

하기에 내 붓이 노래하는
그 생활속에 인민의 기쁨이 물결쳤고

그 열정속에 시대의 행복이 주렁졌고
그 랑만속에 조국의 미래가 펼쳐졌다

오 진리에 민감하고
정의에 대바르고
량심에 수정같은
우리 시대 지식인의 붓이여

저 창공의 푸르름 잉크로 찍어
이 땅의 진리를 노래하고
이 땅의 정의를 옹호하려
붓은 항시 추켜들어 있나니

마르지 않으리라 나의 붓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에 젖어 믿음에 젖어
쓰고 또 쓰리라 나의 붓
위대한 우리 당의 하늘같은 위업을

가슴은 끓어
내 누리에 심장으로 웨치나니
마치와 낫속에 붓이 없어도
그것은 아니리
우리 당 마크가 아니리!

번쩍이는 탑앞에서

분수가 뿜는 맑은 물보라결에
웃자락 가벼이 흔들리며
오래도록 탑앞에 마주서서
나는 나 자신과 이 나라의 운명을 확신한다

한몸인듯 번쩍 치솟아오른
마치와 낫과 붓
둘러보아 누리에 하나뿐인
우리 당 창건기념탑이여

뜨거이 나는 본다 번쩍이는 너에게서
이땅 천만겨레 하나라도 놓칠세라
한품에 다 거느리고 천만리 헤쳐온
어머니 우리 당의 자애깊은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본다

우리 인민의 운명-그 모두의 미래
한품에 다 맡아안고 하늘가에 치솟은
위대한 우리 당의 웅심깊은 성격을

오, **김정일**동지의 품에서
인생의 꽃 봄날같이 피어
사랑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룬
너는 내 나라의 일심단결의 모습

그속에서 나는 본다
가를수도 땀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의 피의 결정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모습을

오오,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로동계급출신의 신진작가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며 우리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지난 7월중순, 동평양대극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가생활을 시작한지 별로 오래지 않은 로동계급출신의 한 작가가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은것을 지켜보고있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경이적인 사실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으며 작가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이란 그 얼마나 크고 위대한것인가를 절감하였다.

그들모두는 한동안 한 작가에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강력적말씀을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서거 한뼘에 즈음하여 나온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대단히 잘되였다고, 자신께서 하려고 하던 말을 다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가르침을 주시였던것이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 서사시는 시 구성자체가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히 선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어떤 위대한 인간인가 하는것을 대담하게 형상한 철학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또한 시에 당의 의도가 잘 반영되였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이런 시를 쓰지 못한다고, 시인이 당정책을 많이 연구한것 같다고 하시였으며 이 시인은 당의 사상으로 무장한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고 그를 최상의 높이에 내세워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우리러 되새기는 작가들과 모임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흔히 가없이 넓다고 하는 지구에도 끝이 있고 헤아릴수 없이 깊다고하는 바다에도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끝도 한계점도 없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임을 그들모두는 깊이 느끼였다.

실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모든것이 그러하듯이 창작재능도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서 자라나고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빛을 뿌리지만 그 모든 성과를 이름없는 한 시인에게 돌려주시니 그 은혜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품은 실로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에서 극점과 한계도 모르는 우주와 같이 무한대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시인은 장시를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에도 쓰고 올해 2월 16일에도 썼으며 이번에도 서사시를 썼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이 시인이야말로 우리 당의 진짜배기 시인이며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인간상상봉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그가 쓴 시구들을 보면 시적착상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것과 똑같이 썼는지 모르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서사시를 보고 한글자도 고치지 않으셨다고, 이 서사시는 만점짜리 시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수령님서거 한뼘을 계기로 나온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감격에 넘치면 말문이 막히는 법이다. 이 시인뿐아닌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이 은정깊은 사랑과 크나큰 신임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목이 팍 메이고 눈앞이 흐려왔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사는 혁명전사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실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보람찬 삶과 영예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다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창작활동을 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베푸시고 다시 베푸시는 믿음, 안겨주시고 다시 안겨주시는 사랑, 바로 이것이 세월과 더불어 강렬해지고 지극해지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베푸시고 안겨주시는 믿음과 사랑이다.

참으로 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여 우리 작가들의 충성의 대오, 자랑찬 대오는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우에서 거창한 대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은정깊은 품에 안겨 당이 가리키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에서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은 얼마나 긍지높고 행복한 사람들인가.

모든 작가들과 모임참가자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또다시 되새기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2월 1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이 시인이 창작한 시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로동당시대의 신진작가로서 시를 잘 썼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시인은 진짜배기 로동계급출신이라고, 천리마의 고향에서 이 동무와 같은 뛰어난 시인이 나온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 당과 로동계급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는 로동계급속에서 나온 시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이 동무는 우리 당의 진짜배기 로동계급출신이며 **김일성** 숭배자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인재도 때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셨을 때만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재능은 더없이 빛나게 되는것이며 영광의 상상봉에 오르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치도 진흙속에서 진주를 캐내어 닦고 또 닦아 빛을 내게 하듯 로동계급출신의 이름없는 한 시인을 찾아내시여 그를 우리 작가들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것이였다.

작가들은 한결같이 생각하였다.

그 어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 이처럼 크나큰 위대한 사랑과 신임에 천만분의 일의 보답이라도 할것인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류레가 없을뿐아니라 마를줄 모르는 강물의 용용한 흐름인듯 전하고 전하여도 대해같이 거창한 이 위대한 사랑.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랑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값있는 사랑은 우리 작가들이 사회적존재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광스러운 문필활동의 한길에서 일생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이다.

작가의 가장 고귀한 삶도 그 믿음속에서 꽃피고 우리 작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숭고한 이야기도 그 은정속에서 엮어지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

그 위대한 사랑의 품에 운명을 맡기고 즐기찬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는 우리 작가들의 긍지와 보람은 실로 끝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문학건설위업은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필승불패하는 위업이다.

이 위업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일생을 걸어나가는 작가들에게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작사업에서도 반드시 영예가 있고 성공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한그루의 나무, 한줌의 흙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나무 한그루, 흙 한줌, 지어 한마리의 물고기까지도 귀중히 여기시고 끔찍이 아끼시는 분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런 남다른 조국애는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그이의 가슴에 뜨겁게 간직되어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1950년 10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자산기슭의 시내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아이들을 만나시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그이께 퍼그나 많이 잡은 물고기를 보여드렸다.

그이앞에 가져다놓은 소령이안에서는 크고작은 고기들이 와글거리고있었다.

알고보니 아이들이 여울목에 동을 막아 물을 찌워놓고 큰 고기, 작은 고기 할것없이 모조리 잡아냈던것이다.

이것을 아시게 된 그이께서는 급히 여울목으로 가시여 아이들이 막아놓은 동을 터놓으시었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생각하시다가 아이들에게로 되돌아와 큰 고기는 너희들이 가지고 새끼고기는 내가 가지면 안되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큰 고기를 끌라내신 다음 새끼고기가 든 소령이를 개울물에 깊숙이 잠그시었다.

새끼고기들은 꼬리를 치며 맑은물줄기를 찾아 헤엄쳐 사라졌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이 어리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물에다 그냥 놓아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던것 같았다.

그중의 맨 어리고 작은 애가 고기새끼들을 봐주면 다른데로 다 달아나고 만다고 볼부은 소리까지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철없이 그러는 아이들을 돌려보시며 차근차근 타이르시었다.

《지금 미국놈들이 마구 폭탄을 퍼부어서 우리나라 강에 있는 술한 고기들이 죽었단다.

그런데 우리까지 이렇게 작은 고기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이께서는 시내물도 우리 나라 시내물이고 강도 우리 나라 강인데 물고기가 가도 우리 나라 안에 있지 어데로 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작은 고기들이 큰 다음에 잡으면 더 좋을것이 아닌가고 말씀하시었다.

고기를 잡던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였던것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역시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행군을 하던 일행이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였다.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오른 한 일군은 되는데로 생나무를 망탕 찍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미끈하게 서있던 나무들은 하나, 둘 넘어졌다.

그것을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몹시 놀라시며 그를 엄하게 만류하시었다.

《성한 나무를 왜 찍나요. 미제원썹들이 불태우는것만도 가슴아픈데 찍어서야 되겠어요? 후퇴를 한다고 해서 그렇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적들에게 내주는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렵도 없어요. 이 귀중한 땅과 이 귀중한 숲은 영원히 우리의것으로 남아있을거예요. 나무 한그루라도 다치지 마세요.》

조국의 산천초목에 대한 비길데 없고 다함없는 열렬한 사랑으로 하여 선언처럼 엄숙하게 준절히 울린 그이의 말씀은 일군의 가슴에 깊은 자책감과 함께 눈굽이 뜨겁도록 후더운 감격을 안겨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그때 여덟살 어리신 소년이였다.

이렇듯 어리신 시절부터 이 땅의 모든 귀중한것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이께서는 그후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그루의 나무, 한줌의 흙에도 크나큰 사랑을 기울이시며 그 모든것이 나라의 만년재부로 훌륭히 가꾸어지도록 온갖 심혈을 다 바쳐가시었다.

1966년 9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압록강연안을 현지지도

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새벽 초산군 앙토리마을을 돌아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길옆 두엄무지에 금방 베여다놓은 석단의 풀단을 보시고 그리로 다가가시었다. 농장원들모두가 매일아침 일어나자 바람으로 풀을 한지게씩 베다놓고 조반을 든다고 하더니 어느 부지런한 농장원이 벌써 제몫을 해 제낀 모양이었다.

췌으로 묶은 풀단의 크기만 보아도 일욕심이 많은 농장원이 틀림없었다.

그이께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풀단을 살펴보시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안색을 흐리시고 풀단을 헤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속에서 애솔포기 하나를 집어드시었다. 밑둥이 잘리운 애솔은 두 뿔도 되나마나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이윽도록 애솔포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다가 관리위원회가 자리잡은 나지막한 둔덕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앙토리는 해방전 벌방에서 생활고에 쫓기고 쫓기여 류량의 길을 떠난 가난한 사람들이 고국산천을 버리고 차마 압록강을 건널수 없어 보짐을 풀고 눌러앉기 시작한 때로부터 생긴 외진 변방 마을이였다.

이고장 사람들은 해방전에 먹고 살기 위하여 도처에 화전을 일구었다. 그래서 앙토리주변의 산들은 모두 벌거숭이가 되였다.

그런데다가 조국해방전쟁때에는 미제공중비적들이 이 압록강연안에까지 날아들어 마구 폭격을 들이대어 많은 산림을 태워버렸다.

수난의 력사가 깃든 앙토리의 산들을 잘 가꾸는것은 나라의 주인, 자기 고장의 주인들인 앙토리사람들의 웅당한 본분이였다.

그러나 밑둥이 잘린 애솔포기는 이곳 앙토리사람들이 산을 뜯어먹을줄만 알았지 후손만대를 생각하면서 산을 가꾸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관리위원회앞 둔덕에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변의 산들을 눈여겨보시었다. 아니나다를가 큰 나무라고는 별로 찾아볼수 없는 벌거숭이 산들뿐인데 산기슭의 여기저기에서는 수많은 농장원들이 떨쳐나서서 승벽내기로 풀을 베고있었다.

이때 지방일군들과 수원들이 그이께로 달려왔다.

일군들이 다가오자 그이께서는 앞산을 가리키시며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이께서 아시면서도 물으시는것이였으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한 일군이 모두 풀베기전투에 떨쳐나섰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거리가 좀 멀더라도 풀이 무성한곳을 골라가며 해야지 벌거숭이가 된 산에서 하면서 애어린 나무까지 베면 되는가고 엄하게 나무라시었다.

그제서야 그이께서 밑둥이 잘리운 애솔포기를 들고계시는 까닭을 알게 된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낮에 잘리운 애솔포기의 밑둥에서 송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애처로이 그것을 내려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이만큼만 자라자고 해도 몇해는 걸려야겠는데 참 아깝다고 말씀하시었다.

(한그루의 애솔을 베어버린것이 얼마나 아까우시면 저러시랴.) 일군들은 마냥 얼굴이 뜨거워오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일군들은 풀베기실적을 올리는데만 관심을 돌리고 한창 자라나는 애솔포기까지 베어버리는 현상에 미쳐 주의를 돌리지 못한 자신들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초산군의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몹시 심려하시는데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시면서도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를 아낄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없다고 그들을 따듯이 깨우쳐주시었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군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초산군 앙토리뿐아니라 장자산과 장산, 경성 양묘장 그리고 온 나라의 《소년단립》과 《사로청림》들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산들은 푸른 숲 설레이는 만년대계의 채부로 훌륭히 가꾸어지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장군

김흥권

말해주리라
저애들이 깨어나면
탁아소의 요람에서 쉼근거리며
잠자는 저애들이 눈을 뜨면 말해주리라
아무것도 모르고 저들이 잠자는동안
불우물 지으며 꿈꾸는동안
이 땅우엔 그 어떤 사변이 있었던가를
하늘조차 우려하는 대결을 두고
그 어떤 용단이 있었던가를

말해주리라
저애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포성을 울리지 않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불러내지 않고
병사들의 총창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을 했다는것을, 이겼다는것을
우리 행복, 우리 기쁨 우리 목숨인
사회주의 기치를 빛나게 고수했다는것을

오 **김정일**장군
그 이름 아니었다면
얼마나 큰 재난이 그대의 집앞에 다가왔으랴
그 어떤 종말의 핑음이 지구를 뒤덮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으랴
말해주리라 장군이란 말 알아듣도록
그 말이 행복이란 말과 같고
조국이란 말과 같다는것을 알아듣도록

원정의 나래를 펴신 일 없었어도

전쟁이 스스로 머리숙이게 한 장군
건설장을 찾으시고
서정가요를 들으시여도
기름묻은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탁아소를 돌아보시며
숨이불을 끄당겨 덮어주시여도
광풍이 그앞에서 주저앉고
세계가 스스로 평정되는 우리의 장군

말해주리라 말해주리라
전쟁을 하기보다
전쟁을 억누르기 그 얼마나 힘겨운가를
오로지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장군만이
전쟁을 제압할수 있다는것을!
그런 장군은 오직 한분
대군을 이끌고 산과 들을 흔들며
사람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장군은 많아도
아이들의 잠마저 지켜주시는
아버이심장을 지니신 그런 장군은
이 세상에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뿐임!

말해주리라 말해주리라
저애들이 깨어나면
자랑 높이 살도록
맑은 하늘아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삶의 절정으로 운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상징-**김정일**장군님품에 태어난
한없는 긍지를 영원토록 안고 살도록
대대로 전하며 살도록...

어머니의 목소리

리충평

1

내 어릴적 꿀집지고
초가집 마당가에 들어서면
우리 어머니 달려나오며
애처로이 부르짖었다
-배고프겠구나. 죽물 한그릇이 저기 있구나
그 목소리 너무 기뻐
허기진 배를 누르며

꿀물처럼 달게 마셨다
귀한 자식 따라와 찾으며
반기는 그 목소리
이 나라 어머니들이 펼칠수 있었던
모성애의 전부였던가
가난과 설움에 부대껴도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목소리

서리찬 이 나라 강산에
철부지 냇을 키우던
사랑의 모두였던가

그 목소리
생의 지름돌로 지겨뵈고
길가의 조약돌같은
나의 유년기가 자랐다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의 전부였다

2

내 이제는 회여진 귀밑머리
남몰래 쓸어넘기며 나서노라
나어린 자식들의 손목잡고
관성차 달리는 유원지의 놀이터에로
아, 그러면
황홀경에 취한 가슴의 흥벽을 울리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겨운 그 음성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내 어제는
옥같은 손자녀석 받아안고
부끄럼도 잊은채 산원의 보석주단 밟노라니
귀전에 울려왔어라
《우리 녀성들이 좋아합니까?》
은정의 그 목소리
가슴마다 전설처럼 새겨져있어라

자동화의 불빛어린 용해장에도
벼수확기 춤추는 농장벌에도
《용해공들이 좋아합니까?》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아. 이 세상 좋은것
고르고 골라 다 안겨주고도
한밤중에 전화로
다시 일군들을 찾으시여
인민의 속마음 먼저 헤아려보는
다심한 은정의 그 목소리
《인민이 좋아합니까?》

행복이면 자식이 원하는 최상의것을
기쁨이면 인민이 바라는 바로 그것을
온 나라 천만자식의 어머니되어
걸음 앞서 안기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의 목소리
아, 사람들이여!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살아가는가

3

새겨두라
내 마음속에 채찍질하는
신념의 부르짖음
이 땅에 소리없이 젖어드는
다심한 어머니의 그 목소리

기억하라
행복을 의무로
기쁨을 권리로 안겨주는
친근하신 그 음성
위대한 인간애의 선언을!

기억하라
어제날 한적한 초막집에서
무자식 상팔자를 버릇처럼 외우던
어진 아낙네들의
가슴속 그 여한을
자식을 낳아서만 부모가 아니됨을
천만 어머니들에게 깨우치는
그 자애의 목소리

오직 한분뿐인
위대한 어머니의 그 목소리
해빛처럼 공기처럼 흘러넘쳐
혁명의 3세 4세가 자라고
삶의 기쁨을 무아경속에 안고사는
우리 인민이 일심으로 뭉친
세상 제일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만발하거니

기억하라
새겨두라
태어나는 천만자식을 찾아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되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부르며 찾으시는
다심한 그 음성
우리 식의 새 사회를 가꾸는
오직 하나뿐인 인간자주의 세계

그것은
우리모두의 행복과 기쁨의 뿌리
만년무궁의 억년초석
태어난 새 청춘기의 미래임을

인간사랑의 찬가

최승철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흘러갔다.

쉬임없이 달려온 옛길에는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창조물들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울창한 수풀의 바다를 이루어 다가서는가 하면 추억의 공간에 별무리처럼 반짝이면서 저마다 자기의 역사와 가치를 일러주고있다.

우리 당은 억센 장부로 자라난 주체 사회주의의 름름한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다. 그 어떤 서사시도 이렇게 장엄할수가 없다.

근세 이래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수난사를 살아왔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심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무수한 민족들이 자본의 마수에 걸려 진통을 겪을 때 어찌하여 조선로동당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상승의 한길로만 이끌어올수 있었던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남들이 부르조야적인 요귀들에게 홀리워 타락과 파멸의 충계를 내리밧을 때 우리 당은 인민을 혁명적인 사랑으로 쟁취하고 교양하여 주체의 대지에 기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세상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것은 그 어떤 폭력이나 기만적인 요술도 아닌 인간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리념과 모든 실천의 최대기준점은 자주를 지향하는 인간에 대한 혁명적인 사랑이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첫걸음을 떼었고 가당을 종착점도 인간사랑의 절정이다.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랑은 많은 경우 자연적이며 리기적인것이였다. 그나마도 미모라던가 재산, 직위, 학식, 기능, 특수한 인연과 같은것을 한가지나 몇가지를 갖춘 사람들만이 사랑을 주고받을수 있었다. 교육과 문화로부터 제외된 하층민들은 천민으로 버림을 당했다.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쳐다볼 하늘도 없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비극적인 전설들이 그렇게도 많았

고 민요의 가락이나 강물소리, 바람소리에도 슬음이 배어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사랑의 정치를 베풀어 그속에서 배타적인 리기주의를 청산하였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도덕률로 내용을 일신하였다.

우리 당의 사랑은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사랑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처음에 불과 몇 명밖에 안되는 동지들과 함께 《ㄷ. ㄷ》의 기치를 드시였다. 하지만 썸줄기와 시내물도 모이면 큰강을 이룬다. 작은 조직들은 겨레들을 집결하여 혁명의 거류를 이루었고 마침내는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였다.

세월과 함께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위업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그 사랑은 넓은 세상에서는 생각할수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것임을 실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굶어죽고 앓아죽을수밖에 없었던 망국노들을 혈육처럼 품어 동지로 삼으시고 기치를 주시고 무장과 노래를 주시였으며 유격대와 인민을 운명공동체로 만드시여 고난의 막바지에서도 승리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지가지할데 없던 세기의 고아였던 조선을 안아키우시면서 끝없는 눈보라와 불속을 헤쳐오시였다. 헤아릴수 없는 조국의 무게가 몸에 실려있었기때문에 온갖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면서 초인간적인 기적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투쟁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일가친척들과 무수한 전사들을 잃으시였으며 자신의 소년기와 청춘기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위주의 인덕정치를 펴시는 한편 서거하시는 마지막 나날까지 몸소 수천수만의 보통사람들과 직접적인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애를 베푸시였다.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덕성을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사회정치활동의 첫걸음부터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이신작칙으로 보여주시였다. 몸소 검덕광산의 수천길지하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광부들을 품어주신것도 **김정일** 동지이시며 자신께서 드실 려관방에 비행사들을 들게 하시고 자신께서는 소란한 역구내의 기차칸에 자리를 옮기신것도 그분이시였다. 망망대해 인디아양을 달리던 《혁신포》에 환자가 생겼을 때 대륙을

사이에 둔 초원거리치료작전으로 그를 끝내 구원 해주시었으며 집이 서너채밖에 안되는 외로운 섬에도 학교를 세워주시고 만사람이 스쳐보던 등대지기들의 생활까지 값높이 사주시고 하시었다.에 안되는 외로운 섬에도 학교를 세워주시고 만사람이 스쳐보던 등대지기들의 생활까지 값높이 사주시고 하시었다.

이러한 인간애의 모범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에게서는 정치의 모든 수단들을 발동하여 인민에 대한 혁명적인 사랑을 제도화, 도덕화, 생활화하시었다.

그에게서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규정하시고 각급 간부들과 모든 당원들이 《이민위천》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끄시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부터 《정춘실운동》에 이르는 각종 대중운동이 강한 견인력을 가지고 온 사회에 생활화되었다. 도시는 농촌을 도와나섰으며 전민이 인민군대를 아껴주며 후원하였다. 인민군대는 조국수호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해갑문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문화화적인 구조물들을 수없이 일으켜세워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있다.

그 모든것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부되었다. 조국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강토와 문화에 매개 세대가 자기의 실천적사랑을 더하여 끊임없이 완성해가는 민족적인 창조예술집단이다.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움과 도덕에 대하여 부끄러움없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에게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보수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위훈을 세운 숨은 영웅들이 많다. 우리의 처녀들중에는 특류영예군인들에게 스스로 시집가서 인생길잡이가 되는것을 자랑으로 아는 처녀들도 있다.

그 하나만 보아도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수 있다. 옛날같으면 희귀한 전설로 전해질 각종 미거들이 오늘에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을 이렇게 교양하고 이런 인민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어찌 강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복을 타고났기에 그 어떤 민족도 누릴수 없는 가장 값진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베풀어오신 사랑은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보는 주체의 인간관에 기초한 새로운 사랑이다. 그것은 자연과의 물질대사로 유지되는 한정된 육체적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도 부모도 줄수 없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베푸시어 위력한 혁명가로 키워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세워 자연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으로 이끌면서 개인들의 모든 진보적념원을 함께 풀어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라와 세계를 주고 운명개척의 리념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어 창조와 건설의 능수로, 가장 위력한 존재로 키워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형제로 믿어주고 동지로 삼고 고락을 같이하며 도중에 전사자가 생기면 그가 남긴 빈자리에 새 전우들을 투쟁의 계승자로 키워주는 의리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가정주위환경과 생활경로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 사회적실천투쟁에서 편견을 바로잡고 파오를 씻게 하여 애국과 혁명의 길에 함께 내세워주는 가장 폭넓은 사랑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땅이나 해빛처럼 그것없이 살수 없는 인생의 터전과 조건으로 되었으며 삶의 모든 보람과 행복도 이 사랑에서 찾게 되었다.

몇달전에 남조선에서 들어왔던 대중교의 대표들은 장엄하게 건축된 단군릉을 보고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교신자들보다도 민족의 원시조를 더 내세우는 애국자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도 감격하여 찬탄의 말을 미처 고르지 못했다. 그들은 그 거창한 룡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지도하여 완성 해주신것을 알고는 더욱 감탄하여 목멘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쏟았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현실적으로는 온 민족을 포괄하고 시간적으로는 단군이래의 반만년 민족사와 함께 후손들의 먼 미래까지 안고있는것이다.

그사랑은 현실로부터 무한으로 전개되고 순간속에 영원을 포착하며 개성속에 인류의 운명을 밝혀준다.

조선사람들은 단군이래 오랜 기간 넓은 판도에 태양을 숭배하는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주체사상을 빛발로 펼치는 인민의 태양을 지상에 맞이하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그자체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이끌어주는 인간애의 철학이다.

그런데 이 사상은 얼마나 쉬운 보통말로 씌여져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말로 최고의 진리를 알기쉽게 펼치시었다. 이렇게 쉬운말로 서술된 철학사상은 인류사상사에 이른적이 없다. 주체사상에는 까다로운 현학적인 논리도 없고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언어의 껌껌한

미공도 없다. 이 사상의 언어는 자식들에게 세상과 인생의 이모저모를 가르치는 다심한 부모의 언어이며 병사들과 생사를 함께 하면서 포화를 헤쳐가는 야전사령관의 언어이다. 주체사상의 문리는 가파르게 굴곡이 진데가 없이 점차로 높아지고있으므로 누구나 이 리념의 영역에 들어서면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일상생활로부터 천하가 굽어보이는 사상의 절정에 오를수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양상에는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역사적인 깊은 사려와 뜨거운 애정이 어려있는것이다.

우리의 당과 정권도, 사회주의제도와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건전한 생활도 다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전민이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것은 우리 당이 위력해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자주로 박동하는 우리의 심장은 위훈의 갈망에 끓고 투쟁속에 버리어진 신념은 미래를 보고있다. 이제는 그 어떤 적도 우리 당을 허물수 없고 틀어진 주먹처럼 뭉친 우리 인민을 머슴으로 부려먹을수 없다. 조선사람은 누구나 우리 당과 우리 사회주의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개변시키고 어떤 행복을 안겨주었는가를 잘 알고있으며 이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이자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철저히 알고있는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특별한 지위는 자본주의사회의 암흑상과 대비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자본주의사회의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자본의 횡포와 각종 질곡에 빠져 치료할길 없는 악성병을 앓고있다. 그들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호소연하는가 하면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화를 낸다. 그렇게 모순된 호소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함께 살수 없고 혼자 살수 없어 애를 바글바글 태우는 수난자들인것이다. 무정랭혹한 개인주의의 흑사병앞에 인간성은 조락되고 《소비동물화》된 인간들은 아무런 꿈도 없이 생의 무의미와 환멸에 시달리고있다.

자본주의가 인간물락의 깊은 함정이라면 사회주의는 인간자주의 락원이다. 우리 나라에는 억압자도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착취자도 착취받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는 모든 물질정신적인 부가 인민의것이며 누구나 집단을 받들어 집단에 받들리우는 동지이고 행복자이다. 또한 인민을 해치는 악행은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반면에 인민을 위한 진리와 덕행은 제도적으로 찬양받게 되어 있다.

공화국에 와서 사회주의현실을 자세히 돌아본 서방의 기독교인들속에는 우리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춰진 그리스도적사회》라고 찬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굳이 찾아와도 더는 할일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의 리상이 넘치게 실현된 복지라는 뜻이니 그들 로써는 최상의 찬사를 보낸 셈이다.

지난날 세계의 그늘진 골짜기였던 조선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문명의 상상봉으로 솟아올랐다. 세계에는 많은 문화조류들이 세력권을 다투며 흘러왔지만 우리의 주체문명처럼 인간애로 정의롭고 인간애로 아름다와 위력한 그런 문명은 있었는데 없다.

온 겨레와 함께 진보적인류가 뜻밖에 서거하신 아버지수령님 령전에 피눈물을 쏟으며 슬퍼한것도 대대로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하느님》자리에 올려주신 인간사랑의 대성인을 잃은때문이 아니였던가! 그래서 두루미와 비둘기, 제비들까지 무리를 지어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에 내려쳐올라 슬피울지 않았던가. 아! 수령님을 잃은 비분에는 끝이 없으니 초목도 강물도 제빛같이 아닌것만 같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비상한 열정과 천재적예지로 조선로동당과 시대를 이끄시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모두가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땅을 차고 일어 설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은 살아계신다. 걸음마다 침략자를 제압하며 걸음마다 더 빛나는 창조로 조국의 키를 높여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속에, 활기충만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용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속에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것을 막을수 없듯이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인간자주의 위업은 막을수 없다. 민족분렬의 비극도 래일이면 막을 내릴것이며 남녘겨레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에 안겨 자주의 삶을 누릴것이다.

혁명적인 사랑, 인덕정치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완성하고 모든것을 이길수 있게 한다. 사랑에서 떨어진 인간은 그만큼 비인간화될수밖에 없다. 세월의 파도에 청바위가 모래알로 흩어질 때에도 우리 당의 사랑은 대지에 남아 사랑만이 사람의 참된 힘이며 영예임을 증언할것이다.

그대 한번쯤 굽어보시라
걸음마다 바쳐지는 향기로운 꽃은
이글거리는 눈길, 굴강한 어깨여
로속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이어

지평선 끝까지 렬지은 사람들
생각은 하나, 그대의 은혜인데
누리에 메아리치는 그대의 소리
-공산주의 열쇠는 사랑이다!

당창건기념탑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신경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이처럼 강력한것이다.》

우리 당이 창건된 그날부터 돌기돌기 50돛을 전진과 승리의 기폭으로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명절-10월 10일,

이날을 맞으며 조국의 방방곡곡에는 당기발이 창공높이 세차게 펄럭이고 온갖 꽃들과 구호들로 울긋불긋 단장한 평양의 거리로는 인산인해를 이룬 환희의 물결이 굽이치고있다. 우리도 사람들속에 끼여 토성-문수행 레도전차에 몸을 실고 당창건기념탑으로 향했다.

문수거리의 첫입구에서 한 5분가량 걸어올라가면 당창건기념탑이 거창한 웅자를 드러내고있다.

우리는 화강석을 다듬어 정갈하게 맞춰간 넓고 넓은 교양마당에 들어서서 탑부분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탑의 앞으로 넓게 탁 트인 도로랑컨엔 푸른 록지와 분수가 한데 어울려 시원한 감을 주었고 탑주변에 심은 수백종의 나무들이 록음을 자랑하듯 좌-좌- 푸르려 설레었다. 그리고 탑뒤로 부채살 모양으로 솟구쳐오르는 분수들의 경쾌한 모습과 조형예술적으로 배경을 이룬 다층살림집들, 자연바위들, 이 모든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다운 공원을 이루고있었다.

탑부분전경을 부감하고나서 우리는 언젠가 건설장에서 낮을 익히적있는 한 일군을 만나 당창건기념탑 건설에 깃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1994년 6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해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50돛을 맞게 되는데 정치적의의가 큰것만큼 당창건기념탑을 건설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창건기념탑건립!

이 얼마나 원대한 구상이며 위대한 발기인가!

우리는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모진 풍파와 시련이 겹친 혁명의 준엄한 초행길을 헤치시여 우리 당을 창건하시교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심혈을 두시고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당창건기념탑 건설발기, 이것은 우리 당을 창건하시교 당 건설과 활동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

한 혁명적수령관의 정화이다.

건설에서 대상물의 위치선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 7월 7일 일군들이 올린 당창건기념탑 건설과 관련한 여러 점의 형성시안들을 보아주시고 당창건기념탑을 당창건사적관주변이나 다른곳에 세우면 장소가 비좁아 왜소화될수 있으므로 만수대동상과 한축상에 놓여있는 대동강건너편 강반쪽의 문수광장에 세워야 한다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수광장, 이곳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오래전부터 큰 회관을 비롯한 여러 청사를 짓겠다고하는 일군들의 제의를 조용히 밀막으시고 아껴오시던 귀중한 터전이었다. 이처럼 소중한곳에 당창건기념탑을 세우도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진의도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만수대동상과 한축산상에 위치하고있는 당창건기념탑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인민은 언제나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고있음을 시사해주는 력사의 대변자인듯싶었다.

당창건기념탑앞에 서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느라니 우리 수령님께서 금시라도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준공페프를 끊으시려 마주오시는것만 같고 또 어찌보면 손을 높이 드시여 일심의 대오로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축복해주시는것만 같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교양마당을 거쳐 탑신부분으로 올라온 우리는 아아하게 높이 치달아오른 마치와 낮과 북으로 된 세계의 탑신을 돌아보았다. 역세인 주먹들에 떠받들려 태양을 향해 곧추 솟아난 세계의 탑신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원통형의 구조물우에 지지되어있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국가사업의 모든 중하를 떠메고나가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마크의 높이와 배치형식 및 원형띠와 기단의 직경까지 몸소 확정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매개 탑신의 높이가 50미터, 원형띠의 직경 50미터, 기단의 직경 70미터.

우리는 이 수자를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이 수자를 통해 우리는 《ㄷ. ㄷ》에 기원을 둔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와 우리 당 창건의 50년 역사, 반세기에 걸쳐 천년거목처럼 무성해진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역사를 더듬어보았다.

수십톤의 화강석으로 다져진 당마크!

그 하나하나의 탑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갈 우리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무게, 그 무엇으로 쥔수도, 깨뜨릴수도 없는 인민의 변함없는 충호심의 무게에 실려 지구우에 솟아있는듯싶었다.

우리는 탑신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세계의 주인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당 기발에 마치고 낮과 함께 지식인의 붓을 대담하게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그리고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될 사회발전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새롭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원형띠에 있는 부각상들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원래 설계가들은 원형띠밖에 다섯편의 부각상을 붙일것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건축미학적예지로 당의 역사적 뿌리와 위력을 상징하는 부각상은 3편으로 하되 원형띠내부에 형상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창건기념탑은 하나의 예술작품인것만큼 마크를 격식에 구애되지 말고 조형예술적미를 갖추어 형상할데 대하여와 마크의 마치고 낮과 북부분을 질감이 나게 돌로 붙일데 대하여, 탑신밑부분도 자연돌로 쌓아 마치고 낮과 붓이 지심깊이 뿌리박고있음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예지가 그대로 비껴있는 3편의 부각상들을 보며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이 《ㄷ, ㄷ》에 깊은 뿌리를 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지지를 받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라는것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준엄있는 당이라는것을 높은 긍지로 받아안게 되였다.

탑의 형태와 재질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이 닿아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발걸음을 쉬이 옮길수 없었다.

탑신부분에서 내려온 우리는 원형띠정면에 부각된 금빛찬란한 구호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2천여메터의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안겨오는 구

호-《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소박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생활에 익숙되고 인민의 마음속에 친근감을 불러주는 구호였다.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구호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안내일군은 이 하나의 구호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손길이 어려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원형띠정면에 부각하는 구호는 철저히 이 탑이 20세기에 조선로동당을 칭송하여 건립되었다는것을 강조하는 구호로 되는 동시에 먼후날에 가서도 변함없이 조선로동당과 관련된 구호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구호《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는 우리당이 지난 50년동안 구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와 함께 써온 당의 기본구호이므로 당을 칭송하는 이 구호를 부각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그날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듯 그이의 고결한 숨결을 타고 빛나는 구호는 우리의 가슴을 쿵-쿵- 뛸뛰게 하였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이 구호에는 부피두터운 우리 당 역사의 갈피갈피에 깃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가 그대로 스며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새형의 혁명적당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처럼 어려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할수 있었으랴.

또 어떻게 세계《최강》을 뿔내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을수 있었고 완전한 폐허우에서 사회주의부강조국을 일떠세운 거창한 사변을 안아올수 있었으며 어떻게 오늘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맞받아 굴함없이 나갈수 있으랴!

우리는 지각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용암이 분출되듯이 축적된 생활체험의 도가니속에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안고 머리우에 물사태가 쏟아지고 하늘땅을 삼키는 폭풍이 휘몰아친대도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함께 할 신념의 맹세를 더 굳게 가다듬었다.

우리는 격정에 넘친 눈길로 탑의 전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탑의 모든 요소, 탑주변의 배경살림집들, 도로연석,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잔디, 하나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의 뜨거운 사랑을 온 폐부로 느끼었다.

류다르게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사랑하시고 애지중지 키워오신 측백나무, 순안쥬팝이, 보천소나무, 종비나무, 단나무, 선향나무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당,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는것을 우리 인민들이 늘 절감하도록 귀중한 나무들을 심게 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든것을 수령님을 위하여 사색하고 실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이 영광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중 누군가가 걱정애 넘쳐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최근 몇해사이에 력사에 류레드문 사회적 역풍과 혼란으로 40년이상 존재하던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과 당들이 련이어 무너져 파헤쳐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인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

이 개관된데 이어 20세기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거연히 빛을 뿌릴 또 하나의 대기념비-당 창건기념탑이 높이 솟아 빛나고있는것이다.

탑을 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당창건기념탑! 그것은 단순한 석탑이 아니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의지, 빛나는 예지의 결정체이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정수이며 조선로동당만이 가질수 있는 공지의 최고봉, **김일성** 민족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력대적으로 부강을 떨치던 당이나 국가도 대가 바뀌면 드문히 기운이 진하고 우여곡절을 겪군하여 력사에 전해지는 《홍망성쇠》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꼭 같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그 어떤 《홍망성쇠》도 모르고 그 어떤 대세에도 흔들림없이 저 탑처럼 지구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찬연히 빛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며 이곳을 떠났다.

좌-좌- 우리의 마음인양 싱그러운 불어오는 바람결에 나무들이 끝없이 설레인다.

가을날의 들판에서

리영삼

이삭이 누렇게 팬 논벌
수염 빼올린 강냉이밭
두루미는 어느 이랑에나 빠짐없이 춤춘다
날개 가볍게 어루만진다

이파리를 흔드는 살랑바람 일어
섞을 해친 가슴에
열렬한 사랑을 준다
높이 들린 푸르른 하늘아래
마음은 물신물신 익은 금파에 실렸다

나는 척척 드리운 이삭을 안은 선남인가
풍작의 흐뭇한 기쁨에
드문히 일손 멈추고 바라본다
변덕스런 날씨를 이긴 자부심에
한가슴에 온 별을 꺼안고싶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땅 어데 있으랴
물아치는 광풍도 휘어잡고
풍년가을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

내 나라의 숨결이 파도친다
탐스러운 알알에 힘이 뻗쳐오른다

사과향기 꿀향기도 달다
새들의 지저귀마저 노래로다
이런 맛없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라
넋속에 복돋아진 기대도 달다

밝고 따사로운 해살을 향해
고향이 웃는구나
달가리들이 하늘을 떠받들고
줄줄이 일어서는 가을날의 들판에서
나도 웃는다

나는 크나큰 기념비를 쌓는 거인처럼
척척 벼단을 들어올린다
인민의 지성으로 무겁고
당의 은덕으로 무거운
행복의 열매를 들어올린다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며

리수덕

탁월한 위인의 위대한 력사와 련관된것은 그 무엇이나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그것은 때없이 못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나는 요즈음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안겨지던 날들이었음을 뼈와 살로 통감하며 살고있다.

이른아침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줄을 지어 학교로 가며 쟁쟁한 목청으로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어도, 깊은 한밤 네거리 한복판에 환히 빛나는 대형구호탑을 창너머 바라볼 때도 불현듯 가슴찌릿하게 젖어드는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러도 더욱 깊어만가는 이 감정은 사그러짐이 없이 가는 날들과 함께 더 또렷이 솟구치군한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집에 정중히 모셔진 한장의 기념사진을 우리르며 생각에 잠기게 된다.

해맑은 나의 집 서가의 산뜻하고 넓은 벽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소중한 사진이 모셔져있다.

내가 이 기념사진을 정교히 다듬은 교양목책들에 메워 우리 집에 처음 모시게 된것은 벌써 20여년전의 일이었다.

그때 내나 우리 온 집안식구의 기쁨과 자라는 비길데 없이 컸다.

나는 오매불망 그립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진을 찍은 그 무상의 행복이 노상 꿈만 같아서 무시로 그앞에 다가서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보고 또 보며 복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군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청천벽력과도 같이 전해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관한 중대방송에 접한 력사의 그날부터 나는 어쩔수 없는 충동속에 하루에도 그 몇번 이 기념사진앞에 서게 되군한다.

아침출근차비를 하다가도, 보람찬 하루일을 더듬어보는 저녁참에도 그리고 기쁜 일, 언짢은 일이 생길 때에도 나의 눈길은 흡사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사랑의 기념사진으로 향해지군했다.

이것은 은연중 근래의 내 생활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졌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그 기념사진앞에 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창건 5

0돐을 앞두고서인지 나의 가슴은 전에없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짙 차오른다. 그러면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우러르는 나의 눈앞에 그이를 처음 뵈옵던 영광의 그날이 영화의 화면처럼 펼쳐진다.

기억도 새로운 1973년 9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서해의 항구문화도시 남포에서 공화국창건 25돐 경축행사를 진행한것이 어제같은데 불과 열흘도 안되어 그이께서 몸소 우리 극장을 찾아주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떠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서해간석지별의 농사일을 지도하시고 또 그이의 접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외국의 대표단성원을 만나시여 현지에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잠시의 휴식도 없이 보내시였으나 그 바쁘신 시간속에서도 이름없는 지방의 한 예술단체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가극을 보아주시려 친히 먼길을 오신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녁끼리도 번지시며 우리의 탐구의 노력이 깃든 가극을 보아주시면서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고 가극을 더 잘 완성시킬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언제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우리의 심정까지 헤아리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신채 떠나시였다.

어둠이 깃든 길속으로 멀어져가는 수령님의 차를 바라우면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했다.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적으신듯 행복우에 행복을 안겨주시고 영광우에 또 영광을 덧없어주시는 친아버지의 그렇듯 다심한 그 사랑의 한품에 내가 안겨살고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산것이 아니였던가.

참말로 나의 집에 모셔진 영광의 기념사진, 이것은 나의 한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 가장 큰 영예와 자랑이 응집된 더없이 소중한 재부이며 대를 두고 길이 물려줄 고귀한 유산이다.

나는 우리 집에 모셔진 기념사진이나 때로는 취재차로 각이한 직종을 가진 못사람들의 가정을 찾은 기회에 방안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기념사진들을 볼 때면 그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한적이 있는 한 일군이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나군한다.

그때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것을 제일 기쁜 일의 하나로 여기신다고 하면서 세계의 그 어느 나라

지도자나 국가수반치고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들과 함께 사진을 그토록 많이 찍으신분은 동서고금에 없을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궁지와 자랑에 넘쳐했다.

진정 조국땅우의 장장수만리 크고작은 길과 길 아닌 길을 헤쳐가시며 한평생 인민들과 고락을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과 농어촌, 조국보위초소와 많고많은 배움터들에서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찍은 사진을 천으로 헤아리라 만으로 헤아리라.

어떤 때는 대회장에 나오시여 수천명의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고 또 어느해인가는 복잡한 생활경위로 하여 피로와하는 한 지식인을 따로 부르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셨으며 나 어린 체육선수들이 이국의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돌아오면 그제 장하시여 친부모보다 먼저 불러 한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기도 하신 어버이수령님.

하기에 저 심심산골에 가도 북방의 작은 젖소목장에 가도 분계연선의 작은 초소에 가도 그 어느 가정에 들러보아도 그이의 사랑넘친 인자한 모습을 기념사진속에서 우러르게 되는것이 아닌가.

나는 오늘도 불박은 창가에 서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섰던 그날의 그 열정, 그 충정을 안고 살리라, 이것이 어찌 나혼자 다지는 맹세이라.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에 효성과 충성으로 보답하려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의 도리이고 수령님의 제자가 된 의리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햇빛밝은 창가마다 모신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제나름으로 심장에 고이 간직한 잊지 못할 그날의 그 맹세를 안고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나갈 때 내 나라, 내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리라.

탑은 말한다

신흥국

력사의 무궁한 힘을 증언하는
당창건기념탑
마치와 닳과 붓이여
하늘아래 이렇게 엮어진 탑은
오직 하나
나는 그 탑과 이야기한다

서로서로 어깨를 걸었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더니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오는
력사의 메아리여

저기 화전의 언덕인가 카룬의
그밤이던가
열혈의 가슴들에 뜨겁던 노래
소리 웨침소리...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마침
내는 와당은
해방산 기슭의 크지 않은
2층집
북도층계에 지금도 울려오는
발자욱소리,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하많은 사연을 말해주누나
탑이여

너는 진정 우리 당의 모습이
여라
거기엔 그대의 성격이 있고
그대의 리념이 있고
그대의 철학이 있고
오늘에서 래일로 가는
승리의 힘도 열정도 다 있어라

모진 세월 우리 수령님
품에 안아 키웠고 품에 안아
지켰고
우리 당이 폭풍우속에서도
기울임없었던
운명의 기치여
그래서 억만톤의 무게로 너를
세운
우리 장군님의 뜻은 하늘가에
가득찼구나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밝은 태양아래에선
하늘과 땅이 갈라질수 없듯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높이 받든
마치와 닳과 붓은 절대로 헤여
질수 없나니

그 신념과 의지를
력사에 장쾌히 선언하는
성공한 이 혼연일체!
이것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영예도 미래도
영원히 영원히 꽃피나리라

탑은 말한다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든
여기서
자기의 마치와
자기의 닳과
자기의 붓을 찾아줘라
그러면 그것은 자주의
노래높은 온 세계가 되리

영원한 인민의 이 새 세계를
위해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정일**동지!
한생의 뜻을 다 기울여
력사우에 탑으로 받들어올린
오, 주체의 기념비여!

50 년의 가치

권정웅

세상만물은 모두 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마 시간만치 엄청하고 무자비하며 고귀한것은 없을것이다. 때문에 시간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격언도 만들어졌을것이다.

조선이 해방되었다. 수난 많던 이 땅에 환희가 깃들었다.

일제의 강점 40여년간은 민족이 이 나라를 떠나가던 시기였다면 해방후부터는 우리 민족이 발길을 돌려 제 나라,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로 되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해방의 만세소리와 함께 고원탄광 탄부들도 무리를 지어 유개화차 지붕에 앉아서 읊으로 밀려갔다. 머리에 박통같은 모자, 발에는 석탄먼지를 채 지우지 못한 지하죽을 신고 얼룩진 얼굴들이 두팔을 흔들며 《조선해방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속에 나도 있었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그로부터 만 50년 즉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력사로 볼 때는 한순간, 인간으로 볼 때는 옹근 한생인데 어찌 이것을 짧다고만 볼것인가.

이 파란만장의 행로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일정한 법칙앞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궤도를 따라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고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큰 공적을 남기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때 그 조직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왜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않으며 할 말인들 어찌 없을것인가.

나는 이 글에서 내가 보고 체험했던 그대로를 적으려고 한다.

도도한 대하의 흐름속에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력사의 증견자인것은 사실이다.

해방기쁨에 들떠있던 어느날이었다.

《아니 뭐?》 나는 혼자소리를 치면서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내 눈앞에는 조선공산당 고원군당 간관이 보였던것이다.

그때부터 몇달후 나는 어느 한 중년사나리와 마주앉게 되었다.

《동무는 왜 공산당에 들려고 하오?》

저편의 물음에 나는 《착취없고 압박없는 나라를 세운다지요? 공산당이 노동자들이 주인으로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들자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어언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는 천변만화가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의 강력한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의 강력한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당원이 된 나는 풍산군에 나가 토지개혁을 하는 농민들을 도왔다. 노동자지원대였던 나는 가는곳마다 빈고농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님께서 당신들의 토지개혁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파견하셨습니다.》 하고 연설을 했다. 사람들앞에 처음 나서보는 21살의 애송이가 같은 말을 몇번이나 반복하였는데 **《김일성** 장군 만세!》가 계속 터졌다. 나도 말하라는 그들과 같이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날을 새웠다.

고원철도기관구에 나가서는 노동법령이 발포되었다는것을 알리고 수동광산에 가서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다음에는 남녀평등권법령을 해설하였다.

전쟁이 터졌다. 미제를 피수로 한 15개추종국가침략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었다.

남녀청년들은 모두 군대에 나갔다. 부녀자들, 로인들이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었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는 유격대를 무어 미국놈들과 싸웠다. 산간지대인 고원, 운곡, 수도지구를 근거지로 해서 손에 총을 잡고 놈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우리는 꼭 이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외우며 놈들이 마사놓은 철도를 복구하고 어깨로 통나무를 떠메여 전선으로 가는 자동차를 통과시켰다.

전후복구건설, 그다음에는 사회주의건설, 세월은 살같이 달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제는 이 세기의 마지막기슭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오늘은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력사의 거대한 흐름은 한알의 모래알같은 나를 멀리로 날라왔다.

배움에 대한 희망이 간절했던 나는 다섯자녀의 아버지로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소망하던 작가로 될수 있었다.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야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몇해전에 미국에서 온 대학교수인 동방문화전문가라는 사람과 면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었다.

《이 나라에도 반체제작가가 있는가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것인데요.》

그때 나는 《당신이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데를 알면 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것입니다.

10분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해놓고는 한 5분간 13살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탄광갱도에 드나들던 내가 어떻게 되어 오늘 《김일성상》제관인으로, 로력영웅으로 성장했는가를 말하였다.

그런후에 이렇게 반문했다.

《당신은 당신을 낳아키운 자기 어머니를 증오하고 반대할수 있는가?》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계속하였다.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를 누가 낳았고 키우주었는데가 리해될것이다. 나를 작가로, 참된 인간으로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다. 나는 이분들을 나의 어머니로 알고있으며 내가 자란이 제도를 더없이 귀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 체제와 생사운명을 같이하고있다. 이것은 나뿐아니라 우리 모든 작가들의 공통적인 운명이며 사상감정이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나라에서 반체제작가를 찾지 말라.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것이다. 리해되는가?》

그는 리해된다고 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 연세대학에서 공부했다는것과 그후에도 연세대학을 방문했다는것을 말하면서 남조선과는 너무나 판이한 현실을 보게 되어 놀랍다고 하였다.

실로 우리 당이 걸어온 50년간의 로정에는 너무나 큰 변화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대략적으로 개괄한다 해도 그 책의 부피가 얼마나 될것인가를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바다물이 짜다는것을 알기 위해 어느 한 대양의 물을 다 마실 필요없이 단 한방울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인간의 존엄을 최고로 여기는 여기에 주체사상

의 진가가 있는것이다. 그런즉 탄광의 버럭돌만도 못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영광의 절정우에 올려세워주신 그이, 단군조선 5천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의 로고는 우리 인민모두를 나처럼 그렇게 고귀한 위치에 세워주신 업적으로 수놓아져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오늘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전고미문의 심혈을 바치시었다.

우리 당이 창건되어 50년의 가치를 말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특기한 사변이 있다.

20세기는 두 위인을 배출하였다.

그 전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과 그이의 혁명활동으로 온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서광이 비쳐왔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그것이다.

이것은 실로 인류사적 대사변이 아닐수 없다.

전 세기에 나온 과학적공산주의리념은 금세기 초에 그 실체가 행성우에 생겨났다. 힘있게 번져가던 사회주의사상은 동방과 서방에 수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탄생시켰다. 현대 금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와 그에 발맞추는 현대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붕괴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변을 놓고 사람들은 실망과 우려를 가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념자체를 의심하게까지 되었다.

이때 동방일각에 거연히 서있는 조선에서 화불이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화불이다.

주체의 화불!

대동강반에 높이 솟아 밤이나 낮이나 빛을 뿌리고있는 그 찬란한 화광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되었다.

참된 사회주의가 여기에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사회주의의 모습이고 진리이라고 웨치며 우뚝 솟아 빛나는 불멸의 탑.

사회주의조선은 과학적사회주의의 상징이며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여기서 울려간 《평양선언》은 주저와 동요로부터 확신과 의지를 안겨주고있으며 일시 곡절을 겪고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사회주의 우리 조선이 어떤 건인력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력사적위업을 이끌어나가는가를 세계는 보고있다.

극적전변의 시기에 살면서 시대의 위대성과 참된 인민의 정치를 주시하면서 붓을 달리고있는 작가가 오늘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할것인가.

50년 즉 20세기 후반기의 가치는 세기적위인

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낳았다는 그것으로 하여 력사는 빛나며 인류는 기쁨을 안고 다음 세기-21세기를 바라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가 **김정일** 동지께서 더욱 빛내여나가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온 우주를 하나의 숨결로 움직이게 하고 모든것이 조화롭고 훌륭하게 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유인력과 같은 억년 불변한 힘을 가지고있다.

50년간의 목격자인 나는 이 시대의 본질과 그 가치를 더욱더 명백히 밝히기 위한 사명감을 안고 지금도 글을 쓰고있다.

그것이 결코 빛나가거나 헛된 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최학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본성과 력사적사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문학발전의 앞길을 정확히 제시하며 작가의 정치적생명과 창작활동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보살피주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는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예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파일을 먹을 때면 파일나무를 키운 사람을 생각하라는 속담이 있다.

평생 흙과 함께 살기 마련인 농사군의 집안에서 나서자란때문인지 나는 째나는데로 흙을 다루며 거기에 식물을 심고 가꾸는것을 즐겨한다.

비록 잘은 못하고 체험도 많지 못하지만 화초나 곡식, 남새따위를 좀 키우고 가꾸보는 과정에 거기에 열매맺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품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가이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 창작실의 내 옆방에서 지내는 박동무도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있다. 몇해전에 중편소설 《들장미》로 우리 소설계의 화원에 이채로운 꽃을 선사한 그는 나보다 젊지만 《단천아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있다.

올해에 나는 그 《단천아바이》와 같이 우리 창작단의 동방식으로 꾸려져있는 내정에 어린 감나무모를 몇그루 얻어다 심고 가꾸어오는데 그것들을 살리고 자래우기가 실로 조련치 않다는것을 여실히 체험하였다.

그 감나무모를 바로 우리들의 지척에 심고 가꾸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때문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두번째이자 마감으로 몸가까이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던 재작년 10월을 나는 영영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몇 작가들과 함께 서해안의 어느곳에 가서 며칠간을 지낼 때 거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것은

새빨강게 익어가는 감알들이 무수히 달려있는 감나무숲이었다. 나같은 북쪽지방태생의 사람들에게는 감나무를 대해볼 기회가 많지 못했다. 평양 지방에서도 감나무를 기르기 시작한지가 그닥 오래지 않기때문에 아직까지 빨간 열매가 주렁진 감나무를 본다는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로 되고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꿈결에도 그리웠던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뵈을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고대하면서 일생 다시없을 은혜로운 며칠간을 보낼 때 한두그루도 아닌 수백그루의 그 황금빛열매나무에 마음이 끌려있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지난해 여름 우리는 천만뜻밖에도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잃게 되었다. 그 가슴아픔과 비통함을 무슨 말로 어찌 다 말하랴.

그다음부터는 어버이수령님이 그리울 때마다 감열매가 새빨강게 익어가던 정원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삼삼히 떠오르곤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뵈었던 그 행복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기억속에 영원히 간직하고싶은 심정에서 올해봄의 4월 15일을 앞두고 나는 《단천아바이》와 같이 창작실 창문앞에 감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한것이다.

뜻깊은 사연을 담은 나무들인것만큼 무슨 수를 써서도 꼭 살리고 튼튼히 길러야만 하였다. 옥망과 달리 갖은 정성을 다했지만 감나무들은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절반은 인차 짝이 트고 애잎들이 돋아났지만 절반은 두달이 지나고 석달이 지나도록 짝조차 트지 않았다. 그러다가 거의 석달째 잡혀 이제는 단념해버렸던 지난 7월에 죽은듯싶던 나무에 처음으로 짝눈이 터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한뼉이 되어오는날이었다. 정말신기하다고밖에 할수 없는 자연의 조화였다.

우리의 애를 한껏 말리며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싹이 터어난 감나무는 아주 급속한 속도로 기세 좋게 자라올라 열흘쯤 지난 다음에는 기막히게 사랑스러운 애일들을 펼쳤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일을 하다가 안뜰에 나가봤더니 그리도 애지중지 키우던 햇순들이 모조리 잘라져있었다. 안뜰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토끼들이 우리에서 뛰쳐나와 그것들을 모조리 잘라먹은것이다. 그 순간의 아픔은 자식을 잃은 때의 비감에 못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들의 불찰때문에 큰 랑패를 보게 되는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감나무모마 다 돌레에 보호울타리를 쳤다. 커다란 상심속에 행어나해서 하루에도 일여덟번씩이나 피해받은 감나무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했더니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가망이 없을것 같던 감나무의 어린 줄기에서 다시 움이 터나오고 햇순이 돌아온것이다.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의 이 시각에는 벌써 애일까지 볼수있게 되었다.

어린 감나무 몇그루를 심고 가꾸기 시작한 울봄과 여름의 다섯달동안의 짧은 체험만 가지고서도 나는 빛갈고운 과일들이 열매 맺히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력과 정성이 깃들어야 하는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과일을 대할 때 그것을 가꾸어낸 원예사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하여 거의나 생각지 못하고있다. 대개 그저 맛있고 빛갈고운 과일을 먹는 즐거움에 잠길 따름이다.

훌륭한 문학작품을 대하는 독자들 역시 그 작품의 창작에 바쳐진 작가의 고심어린 노력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돌려보지 못하고있다. 하물며 그런 작가를 키워낸 부모나 은인에 대하여는 두말할것도 없다.

세계문학사를 돌이켜보면 대문호들의 배경에는 대체로 그를 높이 일러주고 내세워준 걸출한 위인들이 서있었다. 하이네뮐에는 맑스가 있었고 고리끼뮐에는 레닌이 있었으며 솔로호브뮐에는 쓰팔린이 있었다. 그러나 그 걸출한 위인들은 작가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정신적 지지와 보호를 주었을뿐 큰 작가를 길러내지 못하였다.

오로지 위인중의 대위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몸소 우리 문단에서 대가들을 길러내고계신다는것을 나는 세상앞에 소리높이 말하고싶다.

우리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전에 작고한 조기천, 리찬 같은이들도 혁명시인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고 천세봉, 석운기 같은 일반소설가들도 총서형식의 혁명적대작을 척척 써내는 혁명소설의 대가들로 성장시켜주시였으며 작금년에는 로동계급출신의 시인 김만영을 우리 문단에 혜성같이 나타난 대가로 키워주고계신다.

그 위대하고 은혜로운 손길아래서 주체문학전

설의 대군이 자라났다.

어린 감나무를 가꾸면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지게 될 몇해후의 가을까지 보자면 얼마나 많은 품과 정성을 들여 보살펴주어야 하겠는가를 다시금 생각지 않을수 없다. 그러면서 당창건 50돐이 되는 이즈음 가난한 까막눈의 농사군자식이였던 나를 우리 당 사상문화전선의 전초선에 선 작가로, 영예의 **《김일성상》** 제관인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기 위해서만도 우리 당이 지난 50년동안 바쳐온 로고와 사랑이 얼마나 막대했었는가를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 없었더라면 수십대에 걸쳐 까막눈의 고용살이 농사군으로 살아온 우리의 가문에서는 대학생은 고사하고 중학생조차 생겨나지 못하였을것이며 더구나 나라의 두뇌진에 속하는 작가같은것은 산생시키지 못하였을것이다.

김책시의 산골짜 막바지에서 문학이란 문자도 모르던 까막눈소년을 위대한 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린 **《평양시간》**과 **《백두산기술》**을 써내려 세상이 다 아는 작가로 내세워주셨으니 당에서나 하나에게 기울인 은정을 어찌 다 글로 표현할수 있으며 어떻게 다 그 값을 계산할수 있을것인가.

미숙한 작가의 글을 보시면서 해방후에 자라난 새 세대 작가들이 우리 문단에서 당당한 주인공실을 해낸다고 높이 치하해주신분도 우리 당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세계혁명을 돌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나라 당의 지도자가 평범한 작가의 미숙한 글을 보아주며 소설의 개작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레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월은 가도 그날의 일들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마음속각오를 새로이 하는것이다.

총서 **《백두산기술》**이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완성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설을 보아주시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씌여진 결작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친히 감사까지 보내시였을 때 나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에서는 방향과 방도를 주었을뿐 수고는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했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면서 또다시 크나큰 표창의 영예를 베푸시였으며 수령님탄생 70돐에는 별로 한일도 없는 저에게 우리 공화국의 최고상인 영예의 **《김일성상》**까지 안겨주시였다.

정녕 우리 당의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정을 떠나서 까막눈소년의 앞길에 펼쳐진

희세의 영광, 무상의 행복을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나 자신이었다.

그 은정을 떠나서 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나같은 미숙한 작가는 금보다 훨씬 값있는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감히 써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며 설사 집필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릴만한 온전한 작품들을 완성해내지 못하였을것이다.

하여 나는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에 피어난

《평양시간》과 《백두산기술》은 이처럼 위대한 원예사의 손길에 의해서만 세상사람들에게 리로운 열매로 맺히고 익혀질수 있었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심정에 살고있다.

그리고 그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던 그날의 정신을 안고 우리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저 무딘 붓이나마 끊임없이 버르고 버려어나간다.

위대한 스승을 모신 행복

김정민

지난날 작가들의 전기를 읽거나 일화를 들으면서 나의 머리속에 인박한것은 시인들이란 한여름철 목청껏 울다가 서리도 내리기전에 스러지고마는 매미들처럼 일찍 요절하는 불운아들이고 소설가들은 파란많은 인생의 수난자들이란 생각이였다. 식민지조선의 작가들이였던 리상화나 김소월, 최서해가 그랬고 서양의 뽀슈킨이나 발자크, 셰르반페스가 그러했다.

하지만 로동당시대의 작가인 나는 천고개를 눈앞에 둔 지금도 젊은 작가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창작단에만도 예순이 훨씬 지난 작가들이 수두룩하니 그렇게 불리울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껏 인생행로에 운명의 곡절은 물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어떤 고생 비슷한것도 겪어보지 못했다. 해방동으로 태어나 대학을 마치고 작가로 일하는 오늘까지 노래에도 있듯이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아왔을뿐이다.

실로 우리 당은 젖을 빨고있는 귀여운 자식을 굶어보는 어머니의 다심한 눈빛마냥 그렇듯 인자하고 자애롭게 나의 소망을 키워주었고 내 인생을 보살펴주었다.

밝고 따뜻한 햇빛처럼, 맑고 청신한 대기처럼 나를 감싸준 어머니당의 품, 그것이 다름아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이었음을 나는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돌이켜본다.

오래동안 소설편집일군으로 사업하던 내가 어느 출판사에 갓 꾸려진 문학창작실의 작가로 소환되어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벌리던 얼마후였다.

당에 올린 우리들의 창작계획을 뜻밖에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보아주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감격으로 가슴을 울렁거리면서도 한편 속이 쾅기는바도 없지 않았다. 한것은 그때까지 고작 몇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한 경험밖에 없는 내가 어쩔이 크게도 대뜸 장편력사소설을

쓰겠다고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내려보내주신 그 계획서를 대하는 순간 나는 진정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계획을 점을 찍어가며 일일이 보아주시던 그이께서 고려시기 망이농민폭동을 소재로 장편력사소설을 쓰겠다는 나의 계획에는 친히 붉은색으로 굵직한 밑줄까지 그으신것이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처럼 다망하신 속에서도 이름없는 한 작가의 창작계획까지 몸소 보아주시였을뿐 아니라 류달리 밑줄까지 그으시며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실줄이야 어찌 알았랴.

참으로 그때의 벽찬 심정은 기쁨이나 감격이라는 범상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이 강렬하고 숭엄한것이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나의 력사소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크나큰 믿음은 무명의 작가인 나의 가슴에 세찬 불길을 지펴주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창작전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창작기량도 어리고 더우기 력사에 문외한인 나로서 부피 두터운 력사소설을 쓴다는것은 참새가 황새걸음하려는것만치나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고려시기의 사료에 대한 탐구와 고증당대의 세태, 문물에 대한 연구, 력사소설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실로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럴적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그으신 빨간 밑줄이 때로는 등대처럼 나의 앞길을 밝히고 때로는 북소리마냥 나의 등을 떠밀어주기도 하였다.

미숙한 이 작품의 제1부가 드디어 출판된후 성과작으로 평가되어 시상을 받을 때에도 나의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른것은 바로 그 빨간 밑줄이였다.

나의 작가적성장에서 뚜렷한 금을 긋게 된 1987년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이해에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로 임명받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의무인 수령형상작품의 창작, 생각만해도 나는 가슴이 부풀고 열정이 솟구쳤다.

작가인 나에게 신임이면 이보다 더 큰 신임이 또 어데 있겠는가.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의 정치적생명의 영원한 은인이시고 영명한 스승이시였다.

그이께서 나에게 돌려주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이 글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생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셨기에 지난날 작가들이 창작과정에 겪은 그러한 편향이나 곡절도 없이 주체적인 문학건설의 길을 드립없이 걸어올수 있는 커다란 공지와 자부, 행복에 대해 더 쓰려고 한다.

이런 공지와 행복은 다른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참고삼아 읽을 때마다 더더욱 가슴뿌듯히 느끼곤한다.

그네들의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들이란 기개가 살인자, 강도, 사기꾼, 히스테리와 같은 인간추물들인데 혐오스러운 그들의 변태적인 성격이나 구토감을 일으키는 그들의 구린내나는 생활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난해하고 몽롱한 형상수법에 언덕머리를 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다.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들의 사상감정이 어떤것이며 또 이런 작품을 읽은 독자들의 느낌은 과연 어떨것인가. 그것은 다만 인간증오와 인생허무일 따름이다.

반동작가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난 세월이나 현대의 진보적인 작가들의 경우에도 참된 혁명적세계관과 옳은 창작방법을 소유하지 못함때로부터 창작에서 이러저러한 모순과 결함을 범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 우리 선배작가들의 경우에조차 창작생활에서 여러가지 편향과 진통을 겪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고있는 로동당시대의 작가인 우리는 참된 인간학, 주체사실주의문학을 꽃피워나가는 길에서 늘 창조의 희열만을 느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인간을 그리든지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아름다운것을 찾고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주체사실주의는 자주적인 인간들을 전형으로 내세

우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참된 삶을 지향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내가 지금까지 창작한 장편소설들의 주인공들도 바로 이런 인간들, 우리 나라 력사에서 명인으로 칭송받는 자주적인 인물들이였다.

첫 장편소설의 주인공인 망이는 고려봉건착취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해 투쟁에 일떠선 농민폭동지도자였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에서는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하였다.

나는 이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주인공들의 활동자료를 연구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구성, 집필하는 과정에 은연중 주인공들의 비범한 성격에 매혹되곤했으며 나 자신이 인간적으로 수양되고 사상정신적으로 승화되는것을 매양 느끼곤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라고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드는 길이란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창작적기량의 부족으로 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아무튼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위인과 력사적인 인물을 형상한 소설이라는 그자체만으로도 나는 이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인식교양적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작품의 생명력이란 결국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형상하였느냐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고 볼 때 인간중에서도 참인간들의 형상에 바쳐진 나의 작가적노력은 얼마나 보람찬것인가.

이런 공지와 자부심은 오로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로동당시대의 작가들만이 가질수 있는 특전이다.

이처럼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작품의 생명력, 다시 말해 작가의 가치를 규정짓는것은 작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형성수법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소설로 옮길데 대한 창작과제를 받았을 때 나의 심중은 실로 무거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이 불멸의 작품을 과연 나의 미숙한 재능으로 소설화할수 있겠는가. 만약 원작이 담고있는 그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이처럼 주저하고 동요하고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은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귀중한 가르침이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

품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철저히 계승하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더욱 완성하시기로 결심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러차례의 말씀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들에 대해 간곡하게 지적해주셨다. 그이께서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생활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전개하면서 해당시기의 사회상과 함께 인물들의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성격의 진보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현명하게 가르쳐주셨다. 더우기 그이께서 무대에 올린 이 명작의 첫 공연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아름다운 과제를 놓고 모태기던 나의 가슴을 대번에 후련하게 해주었고 눈앞을 시원하게 띄워주었다. 그이께서는 주인공 리준을 그 무슨 민족적영웅으로 과장하지 말고 그를 시대적제한성속에서 옹계 보여주어야 하며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형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특히 주인공이 처음부터 칼로 배를 가를것처럼 노기등등하여 돌아치게 한것은 생활론리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주인공이 민족적울분을 참지 못하여 배를 가른것이지 성격이 과격하여 배를 가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주인공의 성격은 물론 소설의 전모를 눈앞에 그려볼수 있게 한 참으로 명철하신 가르침이었다.

그이의 가르침에서 성공의 예감을 느낀 나는 곧 집필에 달라붙었고 불과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을 창작할적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잊지 못하고있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형상해야 하는 나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러나 이미전에 이 소설을 혁명적대작으로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은 창작 전기간 고무적지침으로 되어 나를 떠밀어주었다. 특히 그이께서 처음 밝혀주신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리론나로 하여금 이 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살리는데 시종 깊은 주의를 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작품의 핵인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구성, 묘사에 이르기까지 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완벽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1부)를 창작하면서 내가 특별히 원심을 쓴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작품에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을 잘 구현할것인가. 특히 어떻게 하면 옛맛이 나면서도 현대감이 있게 언어구사를 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해결책도 결국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가르침에서 찾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력사물에서 작가의 말은 오늘의 문화어를 쓰면서 해당 력사적시대의 상용어휘와 상용어투를 시대적표상이 떠오를수 있게 맞이나 보이는 정도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독자들한테서 이 작품을 두고 새맛이 나서 좋다는 말을 듣곤하는데 이 평가가 사실이라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가르침대로만 글을 쓰려고 애쓴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돌이켜보면 내가 작가로 자라나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게 된것은 나에게 그 무슨 천분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나를 요람에서부터 키워주고 배워주신 은덕의 결과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 언제 그 어느 나라의 령도자가 작가들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돌려준적이 있었던가. 오직 천상천하에 한분밖에 안계신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문학이란 나라의 문화수준과 민족의 지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시면서 작가들을 국보적인 존재로 아끼고 내세워주신다.

하기에 나는 로동당시대의 작가로 태어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이와 동시대인으로 살고있는 이 행운을 내 인생의 다시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생각한다.

옛적부터 훌륭한 스승을 부모보다 더 공경해야 한다고 일러왔다. 옳은 말이다.

나는 내 생명이 진하는 그날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만을 높이 우러러 받들고 그이의 가르침대로만 글은 씀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의 룡성부강에 참담게 이바지하련다.

변함없는 삶

최성진

하루일을 하다가 사색이 흐려지거나 피로를 느낄 때, 그리하여 마음속 한구석에 느닷없이 안식이 깃들려는 순간이면 나의 앞에 한 인간의 초상이 문득 나타나곤한다. 성근 장미에 전야의 먼지가 뽀얗게 올라있곤하던 자그마한 눈,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비껴있는 그 웅심깊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허, 그쯤한걸 못이겨 결심이 달라지문 임자가 한생을 어떻게 걸어가겠나?》

내 고향의 사투리가 짙은 절절한 목소리다. 내가 홀로 갈 때면 잠시라도 헛눈을 팔세라, 한 순간이나마 검은 욕망이 자랄세라 그 목소리가 나를 따라오며 속삭인다. 《곧바로 가라구! 마음이 흐려지문 안되지!》

언제나 변함없이 어머니당을 위하여 좋은 일만을 많이 해야 한다고 나의 심장에 대고 속삭여주는 사람! 그는 전쟁때 락동강전선에서 싸운 로병이다.

그런데 나의 눈에 떠오르는 그의 모습은 피의 락동강을 건느는 불사신같은 형상이 아니라 색이 바랜 후령창한 작업복을 걸치고 삼을 든채 고향의 동구길을 걸어가는 체소한 모습이다.

그는 당에서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로동계 급출신들을 부를 때 온 가족을 이끌고 우리고장으로 내려왔었다. 도시태생이지만 그는 인차 땅에 정들인 토배기사람들과 허물없는 한 식솔이 되었다. 몇해 지나서부터는 작업반세포비서 사업을 했다.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들 《비서아바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하지만 비서이기전에 그는 우리 마을의 부지런하고 잔소리많은 아버지였다.

집집에서 피여오른 밥짓는 연기가 푸르스름한 대기속으로 퍼져가고 잠에서 깨어난 계사니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 살진 닭들이 덕대우에서 날아내리는 푸덕임소리, 앞내가에서 풀뜯는 소들의 방울소리가 쟁강쟁강 들려오는 유정한 이른아침이면 레의 그 색바랜 작업복차림에 삼을 든 비서아바이가 동구길로 걸어들어온다. 조반전에 작업반포전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침마다 바지가랭이며 신발이 이슬에 온통 젖어가지고 나타나는 아바이를 보는것을 어느덧 레사로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아침이면 의례히 떠오르는 해를 보려니 하고 생각하듯.

집에 들어가기전에 아바이는 조반을 짓고있는 어느 집 주부를 터발머리로 불러낸다.

《새애기네 터발에 범이 새끼치겠다- 당에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두고 걱정이 많은데 땅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터발이라고 이렇게 건사하면 쓰나. 장순이녀석 늦잠을 그만 자래라구.》

어느 집 돼지우리에 들려서는 새끼 뺨 어미돼지가 맨땅에서 논다고 혀를 찬다. 《재꿀어귀에 싱아풀이 한길이나 자랐습디다래, 일 끝내고 올때 한임씩만 베다가 깔아주시우. 래년 농사를 잘 짓자면 뭇니뭇니해두 풀거름이 많아야지요.》 한다.

그는 동쪽길을 가다가도 비물에 흠채기가 생긴것을 보면 흙 몇삽이라도 채워놓고서야 지나가는 성미이다.

다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가 전쟁참가자이며 공로자라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들은 좀해서 들을수 없었다. 그러한 그에게서 나는 어쩌다 군대때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군대에 나오던 날이었다. 고향을 떠나는 나를 위해 작업반에서 차린 소박한 《송별식》에 참가하여 술 몇잔 마시고 거나해진 그가《전쟁때말이지 내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직은 귀밀에 보르르한 숨털이 그냥 남아있는 열일곱살의 어린 전사, 그는 적들의 특공포탄에 한쪽 귀통이가 떨어져나간 도선관우에서 중기사수가 쓰러지는것을 보았다. 전사가 그리로 달려가려는데 피가 흐르는 사수의 입에서 다급한 소리가 토막토막 날아나왔다.

《중기가... 중기가... 강물에...》

적탄은 무질서하게 날아와 방순을 때리고 물에 박히면서 살기찬 소리를 질러댔다. 어린 전사는 중기사수의 말이 없다 해도 사태의 엄중성을 깨달았을것이였다. 도선관이 기울어지면서 그우에 실은 중기가 강물속으로 굴러떨어지려하는것이였다.

어린 전사는 노를 젓던 다른 전우들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도선관을 떠받들고 물속을 힘들게 전진해갈 때 숨죽였던 중기가 대안의 적들을 제압하며 불을 뿜어댔다. 하지만 강을 건넌을 때 사수는 이미 굳어져있었다. 총탄이 떨어진 중기의 압철을 쫓아 사수는 숨이 진것이였다.

귀중한 전우를 피호르는 락동강의 모래불에 묻고 온 그날의 전사-우리 비서아바이는 초소로 떠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때문에 우리 전사들이 전쟁에 참가하여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겠나? 잊지 말라구. 그건 바로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것이 우리 당을 위하구 우리 민족을 위하는 빛나는 삶의 길이라는데 알았기때문이야.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 길에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은 자기의 수령, 자기의 당이 더없이 위대하구 고향과 조국이 소중하다는것을 알게 된다구. 훌륭한 병사가 되라구. 그러문 한생을 후회없이 살게돼! 좋은 한생을 말이지.》

훌륭한 병사가 될 때 좋은 한생을 살게 된다는 비서아바이의 말은 참으로 뜻이 깊은것이였다. 나는 그의 마음을 안다.

그것이 어느해였던가?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진 다.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나온지 얼마 안되었던 우리들은 마을에서 삼십리나 떨어진 외진 산골에 들어가 이동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때는 꽃강냉이철이였다. 온 하루 콧은비에 옷을 적시며 일하던 우리들은 산자락에 모닥불을 살려놓고 모여앉았다. 그런판에도 누군가 농장밭에 내려가 꽃강냉이를 따가지고 올라왔다. 우리 젊은것들은 왁작 떠들며 좋아라 꽃강냉이 청대를 벌려놓았다.

그날저녁 골짜기아래에 있는 숙소에 뜻밖에도 우리 비서아바이가 나타났다. 이동작업지에도 흔한 꽃강냉이를 두가마니나 소달구지에 싣고온것이였다. 비에 옷이 폭 젖어버린것은 아랑곳없이 꽃강냉이생각이 나지? 하며 우리들을 향해 빙긋이 웃던 비서아바이! 아바이의 속마음을 어찌 모르랴. 꽃강냉이 생각이 나던 나머지 농장밭에 손을 댈가보아 비오는 삼십리길을 걸어온 아바이의 깨긋한 마음을 리해 못할만한 나이의 우리들이 아니였다. 그날 우리들이 어찌하여 그 선량하고 웅심깊은 아바이앞에서 농장의 꽃강냉이에 손을 댔던 그 잘못을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가!

그 시절 나의 벗들은 지금 각이한 초소에 널려

있다. 나의 그 벗들도 나처럼 우리 비서아바이를 잊지 못해할것이다. 나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초소로 옮겨온후에도 《우리 비서》아바이의 그 완고한, 정다운 고향사투리를 듣고싶었다. 그런데 그 고향사투리를 평양에서 듣게 될줄이야.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울려나오던 《조선은 하나다!》의 웨침소리가 하늘땅을 진감시키고 그 감격과 흥분의 여파가 아직도 사람들의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고있던 어느날 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게, 내래 누군지 모르잖나?》

내 어찌 그 목소리를 모르랴. 들바람에 갈린 그 목소리를! 다정한 고향의 사투리를!

《비서아바이가 아니십니까?! 이번 축전에 오셨었군요?!》 하고 나는 대뜸 말했다. 나는 반가움에 목이 꺾 메였다. 평양에 오셨으면 집에 들리셔야지 전화를 거실건 뭐가고 반가움절반, 노여움절반의 소리를 했더니 아바이는 꺽꺽 웃어댔다.

《리해하라구. 후날 오면 들리지. 오늘은 그냥 내려가야겠어. 빨리 가야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는데 한시바삐 내려가 일을 해야 할게 아니겠나. 일을... 여보게 듣나? 섭섭해하지 말라구. 이담에 평양 오문 꼭 들리지.》

이담에 와서도 《들리지 못할 일》이 생길지 어찌 알랴. 그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로 일감을 손에 잡을것이다. 로병은 또 색이 날은 수수한 작업복차림에 손때오른 삼을 들고 불바람이 불어오는 정든 벌로 나갈것이다. 저기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일을 할것이다. 불비 쏟아지는 락동강을 건느던 그날의 자세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한생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다. 이러한 수십만의 로병들이 있어 우리 당은 더욱 위력한것이다.

나는 금별로 수놓아진 로병들의 자랑스런 한생에서 혁명의 3세, 4세들의 앞날을 본다.

이 나라 아들들을 혁명의 기폭에 안아 내세워주고 한생의 삶을 지켜주는 당이여! 그대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노라!

대지를 적시는 봄비 외 1편

김선지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는 정다운 봄비
속깊이 대지를 적시듯

남모르게 마음 쓰며
모든것 다 바쳐가는
당일군의 마음
대지를 적시는 봄비의 마음

앞가슴에 금별메달 빛나는
저 일군의 뒤에도
학교길에 피어나는
부모없는 아이의 저 웃음에도
어디에나 스며여있는 당일군의 마음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새 없듯이
앉으나 서나
속깊은 어머니의 마음
잠에 들어도 꿈이 많은 사람

당일군이 고생하면
인민이 행복해지고
당일군이 호강하면
인민이 불행해진다는
그 숭고한 뜻을 새기고 사는 사람

위대한 장군님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모든 만물에 자양분이 되려는
그 한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이름 속보판에 소개되는 일 없고
그 얼굴 사진판에 소개되는 일 없어도
이 세상 만물에 스며여있는
봄비의 마음
당일군의 마음

아 우리 당의 숨결을 안고
인민들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당의 목소리로
언제나 인민과 속삭이는 사람

그 어느 초소
위훈이 나래치는 그 어느 일터에도
우리의 당일군들은 서있어라
사람들의 마음속
그늘마저 가쳐주는
위대한 태양의 한줄기 빛발이 되어
밤에 내려 대지를 적시는
봄날의 약비가 되어

샘물터에서

무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산길가던 당일군
샘터앞에서 걸음 멈췄네

더없이 정결하고
쉬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사시절 그 물맛 변함이 없고
추운 겨울도 얼지 않고 흐르는 샘

아 겨울앞에 선듯

샘물에 비껴지는
제얼굴을 보며
심장속 말을 주고받네

목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후련할 샘물을 부어주었던가
인민을 위한 일에
정열이 샘처럼 솟구쳤는가
당에 바치는 충성의 한마음
언제나 변함이 없었는가

아 저 멀리로 흘러가는 샘줄기를 보며
 당일군의 생각은 깊어지네
 길게 흐를수록 걸음 떠지지 않는지
 저도 모르는사이
 주위의 흐린 물 스며들지 않는지
 난관앞에 그 자취

땅속에 잦아들지 않는지

길을 걸어도
 잠에 들어도
 인민을 위한 생각을 잊는다면
 그는 벌써
 우리 당의 일군이 아니리

이삭이 익는다

리종덕

푸르른 하늘은 가없이 펼쳐지고
 해빛은 줄줄이 쏟아져 내리는데
 만풍년의 들판에
 이삭이 익는다
 이삭이 익는다

들은 고요하다
 고추잠자리 비단날개소리도 들릴 듯
 불어오는 맑은 바람결에
 이삭이 가볍게 속삭이는 소리뿐

발벗고 어리광치던 어릴 때처럼
 달리고 소리치며 나는 걷고싶구나
 온몸이 난알향기에 함뱍 젖어
 금빛이삭에 옷자락을 스적이며
 끝없이 걷고싶은 풍요한 들

참으로
 이 땅의 발이랑우에
 한점의 몸쓸 바람 불어왔다면
 한방울의 락류라도 흘러들었다면
 너 이리도 금빛으로 빛날것이나

사회주의 대지에 뿌리를 내려
 이 땅의 생명수로 있을 피우고
 이 땅의 기계보습으로 꽃을 피워서
 알차게도 무르익은 이삭이여 이삭이여

해빛을 마주 향해
 이삭이 익는 들

무겁도록 고개숙여 감사하는데
 풍년백학도 금빛으로 번쩍이며
 환희의 큰 날개를翺르구나

오, 첫발같이 기쁨이 익던 그 가을
 할아버지의 수염발이 춤추고
 협동화의 첫 씨앗이 여물던 그 가을엔
 아버지의 새납소리 구성지던 땅
 오늘은 통마처럼 기름져
 행복을 익히여라

저 하늘 끝에서야
 바람이 불건 눈비가 내리건
 내 조국의 가을은 조용하구나
 크나큰 열정의 숨결을 안은
 대지는 오히려 평온하구나

땅이 넘치도록 이삭이여 익어라
 하늘에 닿도록 금물결치라
 내 나라 기쁨으로 환해지고
 내 조국이 명절처럼 흥성이는
 가을이다 가을이다
 조선의 가을이다

오오, 푸르른 저 하늘가득
 해빛은 줄줄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삭이 익는다 이삭이 익는다
 우리 당의 신념의 열매가 익는다
 농촌테제의 열매가 익는다

로동계급에 대한 전형화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제1~16부)에 대하여-

리성덕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혁명의 령도계급인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우며 로동계급을 형상한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답게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고발전시키고 빛내여나가는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주변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혁명의 앞길에 부닥치는 시련이 많아도 추호의 동요없이 어머니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려는것이 조선로동계급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로동계급처럼 자기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줄 알고 자기 조국과 혁명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줄 아는 그런 훌륭한 로동계급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온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영화예술부문과 텔레비죤문학부문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25부~제34부(로동계급편 제1부~제10부)와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제1부~제16부)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시대의 걸작으로 창작해냄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제1부~제16부)은 시청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방영된 우리 시대의 훌륭한 걸작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이 어찌하여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던가.

텔레비죤화면에 반영된 생활은 우리 나라의 어느 광산에서나 볼수 있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이고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 나라 그 어데가도 만날수 있는 광산로동계급과 그 가족들이다.

화면에 반영된 생활의 대부분은 앞뒤가 돌산으

로 둘러막힌 룡양광산의 현지와 7호굴착기의 작업모습 그리고 굴착기소대 성원들의 가정 등 오히려 단조롭다고 할수 있는 제한된 생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부나 되는 큰 규모로 구성된 텔레비죤극의 매개 부들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면서 흥미진진하게 방영되였다.

무엇이 그토록 시청자들을 매혹시키고 인기를 끌었던가.

그것은 바로 개성화된 인물들의 참신하고 생동한 성격이다

문학예술은 인간학이다.

텔레비죤극도 문학예술의 한 형태인것만큼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인간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화폭의 중심에 인간들을 내세우고 그 성격들을 뚜렷이 개성화함으로써 참다운 인간학으로서의 예술적향기를 풍기는 성과작으로 되였으며 풍만한 극적정서로서 시청자들을 매혹시키고 흥분시키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현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기본으로 본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본으로 보고 그리면서 등장인물들을 개성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생동한 성격, 현실에서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형상한데 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에는 주인공인 소대

장 김철훈, 선동원 림정희를 비롯한 7호굴착기소대의 모든 성원들과 가족소대원들, 금산광구 광구장과 초급당비서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물을 지닌 성격, 비반복적인 성격으로 개성화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주체적인 우리의 문학예술을 성격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룩한 빛나는 성과이다.

말이 적고 과묵한 주인공 김철훈의 성격은 얼마나 인상깊은가.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말쑥했던 소대를 화목한 하나의 가정처럼 단합시키고 마침내는 소대전원을 로력영웅으로 키워내는 주인공 김철훈의 성격형상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을 자기자신처럼 믿고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는 주인공 김철훈의 성격적아름다움은 소대원들인 림정희, 류혁, 신양건, 김영기, 조선각, 강정식, 리성학 등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깊이있게 개방되고있다.

고아의 외로움을 안고 생활하면서 거칠어지고 이지러진 류혁의 성미는 피박하여 다루기 힘든것이였지만 정의감도 있고 하자는 열정도 있으며 한번 이름을 낼수 있게 일해보려는 욕심도 있고 기술기능도 높다는것을 간파하고 소대에서 달아나려는 그를 끝까지 붙잡아두고 교양개조하며 림정희를 사랑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웅으로까지 되게 하는 주인공 김철훈.

두번씩이나 파혼을 당하였을뿐아니라 어찌다 결혼을 하고서도 색시가 달아나서 마음고생을 하는 신양건을 안착시키고 행복을 가꾸어주기 위하여 자기 안해와 협력하여 라명순을 설복교양하고 기어이 데려옴으로써 그들의 새 가정을 지켜주고 참다운 생활을 꽃피워나가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품을 들이는 주인공.

남반부에서 헤어진 안해를 못잊어하는 조선각의 마음속그늘을 가시여주기 위하여 온 나라를 수소문하여 끝내 그의 안해 최귀녀를 찾아냄으로써 재결합의 기쁨을 안겨주는 성실한 성격의 김철훈.

언제나 과격한 언사로 날카롭게 투쟁하는 성미로 하여 사람들과 다루기 잘함으로써 소대원들과 엮서기가 일수인 명기에게 자신의 모범으로 영향을 주어 개진의 길에 오르게 하는 주인공.

굴착기를 굴렸던 죄책감으로 하여 언제나 마음을 펴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강정식을 파오를 씻기 위한 혁신의 길로 이끌어주고 재간이 있는 리성학을 기술혁신의 명수로 내세워주는 김철훈.

소대의 선동원인 림정희와 짜고들어 정치사업

방법으로 소대원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합시키는 주인공의 헌신적인 노력도 감동적이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게 될 영광의 대회, 한생애 두번다시 차례질수도 없는 중요한 대회에 자기대신 림정희를 보내는 아량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자라날수 있는 주체형의 로동계급, 조선로동계급에게서만 발현될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적품모로서 매우 인상적이다.

주인공 김철훈을 중심으로 7호굴착기소대 매개성원들과의 호상관계가 극적으로 맺어지고 그 관계가 견인력있게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발전이 이루어지고 그와 관계를 맺은 인물들의 성격적특징들이 부각됨으로써 집단의 사상의지적단결이 심화되면 집단주의적영웅성이 발현된다는 작품의 종자가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주체적인 문예리론이 밝힌 극적전형화의 근본원칙들을 옳게 구현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이 밝힌 극적전형화의 근본원칙은 바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종자를 해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주인공인 소대장 김철훈을 종자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극적인 성격으로 훌륭하게 전형화하고있다.

주인공 김철훈은 형상의 중심에 튼튼히 서서 소대원 한사람한사람을 심장으로 끌어당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 살게 하고 소대가 일심단결하여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소대원모두를 영웅으로 만드는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전형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말썽많은 집안처럼 싸움이 잦을날 없던 7호굴착기소대의 초기형편은 티각태각하는 류혁, 영기를 중심으로 소란하기 그지없어 언제라도 단합할수 없으리라는 강한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하기에 김철훈은 소대를 인차 수습하지 못하고 애를 먹으며 소대를 말아안은 첫시기엔 소대를 더 소란하게 만들어 극적위구를 강하게 주었으며 류혁이 공무직장으로 옮겨가는 사건으로 하여 소대의 단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상까지 주고있다.

하지만 주인공은 락심하지 않고 어머니와도 같은 살뜰한 정을 지니고 우락부락하는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출줄 아는 다심한 처녀인 선동원 림정희와 손을 맞잡고 소대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헌신하고있다.

두사람은 첫 사업대상을 류혁이로 정하고 그가 공무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눌러앉히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고드름을 녹여주고 그의 우점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정력을 쏟고있다.

철훈은 이와 함께 광산에 시집을 왔다가 달아

나서 남편을 자기고장으로 끌어갈 공리를 하고 있는 라명순을 데려오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선다.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기 위하여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수범하는 김철훈의 일관한 지향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우리 시대의 지향으로 불타고있다.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대를 이어 광부가 되려는 일념을 안고 광부들속에서 일하고있는 림정희와 뜻을 합치고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기 위한 실천활동에서 당이 가르쳐준 정치사업방법으로 꾸준히 견지해나가는 주인공 김철훈의 성격발견로정이야말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우리 시대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주체형의 인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풍모의 발현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이 사람들을 그토록 공감시키고 매혹시킨 리유의 하나가 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우리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 당과 수령이 가장 마음을 쓰고있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사람들을 뜨거운 동지애와 의리로 감화시켜 이지러진 마음도 바로 잡고 공허해진 빈공간도 메꾸어주고 아픈 상처도 가시여주어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과 평범한 인간들이 영웅으로 자라게 되는 성격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보태지도 않고 덜지도 않은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부각하여 참신한 예술적화폭을 창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누구에게도 손쉽게 굽어들지 않을 정도로 이지러지고 거칠어졌을뿐아니라 도고하고 자존심이 강한 류혁이 생활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원으로 자라나고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되기까지의 성격장성과정은 참으로 극적정서로 충만되어 더욱 인상깊다.

그는 의심할바 없는 부정인물이고 개조대상이지만 밋지 않게 형상되어있다. 그것은 그가 자주 엇드레질을 하면서 빗나가기는 하지만 자기의 본심을 너무도 몰라준다는 그 야속함이 비끼군하여 오히려 시청자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스러운 부정인물로 되고있다.

류혁의 성격형상은 우리 시대의 부정인물을 어떻게 그려야 하겠는가 하는 창작실천적인 문제에 시사를 주고 귀중한 교훈을 주고있다.

종래의 일부 극작품들은 판에 박은 도식적인 부정인물을 설정하고 갈등을 인위적으로 심화시켜 극성을 자아내려는 헛된 시도로 하여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 현실에 있는 부정인물의 전형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걸어온 생활로정의 타성으로 하여 사람

들과의 관계에서 선입견과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한번 엇서보고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앞에서는 자기의 심장을 그대로 터놓고 자기의 지향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부정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그래서 미움이 가지않는 류혁형의 부정인물, 이것이 바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지향에 어울리는 부정인물의 전형적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현실을 심장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혁명적인 현실에서 우리 시대의 산 인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창작가들만이 류혁과 같은 생동한 개성적인 성격을 시대의 부정으로 전형화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하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림정희와 같은 보기드문 아름다운 성격의 처녀, 참신한 시대적전형도 창조되었고 신양건, 김영기, 조선각, 강정식, 리성학과 같은 비반복적인 성격들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안은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됨으로써 그야말로 현실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개성적인 인물군상을 참신하게 부각하고있다.

어찌 그뿐인가. 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지만 사랑을 언약했던 애인을 따라 서슴없이 광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남편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도와나서는 주인공의 성실한 안해 순화, 광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가 마음고생은 좀 하지만 광산에 다시 가서 가족소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간직하게 되는 신양건의 안해 라명순, 잠깐 나오지만 활발한 성격을 드러낸 오돌찬 녀성으로 개성화된 리성학의 안해, 파오를 범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 고심하는 남편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는 강정식의 안해 은실을 비롯한 가족소대원들이 다 훌륭히 개성화되고있다.

주인공과 군사복무를 함께한 전우로서 관리일군으로서의 틀을 좀 차리지만 로동자들과 무점종게 지내면서 원칙과 야량을 가지고 영웅소대를 배출시키는데서 한몫을 하고있는 금산광구 광구장의 성격도 개성적이고 틀이 없고 허심한 태도로서 로동자들의 다심한 어머니로 되고있는 초급당비서도 비반복적인 뚜렷한 개성으로서 매우 인상깊게 형상되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이렇듯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극적성격을 창조하는 극적전형화의 세련된 솜씨로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기성화된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으로 뚜렷이 부각한 창작가들의 그 고심어린 탐구와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놓지 않는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게 되었다.

인간과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 든데 그 성과의 요인이 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인간과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감동깊게 개방한데 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모든것을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하며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에서 인간들의 내면심리세계가 깊이있게 개방된것을 보려고 한다.

그들은 하나의 문학예술작품을 읽거나 감상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아기자기한 사건적인 이야기보다도 인물들의 성격에 매혹되거나 심취되어 작품을 읽거나 감상한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성격이 발현되고 성장발전하는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인간들이 성격발전의 변증법적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생활을 깊이있게 개방함으로써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우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단조롭다고도 할수 있다.

앞뒤가 돌산인 로천광산에 굴착기가 한대 있을 뿐이다. 7호굴착기소대의 전원이 평양견학을 하게 되는 생활을 제외한다면 협곡으로 둘러막힌 폐쇄된 구간에 협착된 그야말로 단조로운 생활배경이 주어졌을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벌어지는 생활을 반영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들의 성격적특징들이 발현되는 풍부한 생활을 감수하게 되며 생활이 안겨주는 정서적향기에 취하게 되고 극적정서에 흥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 작품의 첫머리에서 제대되면 꼭 대학으로 가겠다면 주인공이 애인 순화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당이 부르는 어려운 초소인 룡양광산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김철훈의 시대적 성격에 공감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남게 되는 순화와의 사랑이 성립되지 못할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지만 자신의 행복보다도 당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는것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는 바로 여기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끄는 주인공 김철훈의 성격적아름다움을 부각한 극적인 생활이었다. 그는 순화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순화를 단념하려고까지 하는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도시에 남게 된 순화는 한생을 사랑하기로 한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김철훈의 행처를 찾아내고 서슴없이 광산으로 달려가 룡양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김철훈과 그의 애인 순화의 아름답고 숭고한 성격적특징들이 발현되는 여기에 참된 생활이 있고 그것이 시대적성격을 부각한 아름다운 생활인것으로 하여 커다란 정서적향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있는것이다.

주인공이 가기전 7호굴착소대의 생활은 아직 시대가 비끼지 못한 생활이지만 여기서도 담보와 침체를 짓부시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려는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하나의 숨결로 고동치지 못하는것이 탈이어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지 못하고있을뿐 여기서도 투쟁의 불씨는 타오르고있으며 새로운 지향도 꿈틀거리고있다.

하기에 텔레비죤시청자들은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번져질것인가 하는것을 주시하게 되는것이다.

작품에 묘사된 생활은 파묵한 김철훈이 7호굴착기의 소대장으로 옮겨오는 사건으로 하여 급격히 변화되면서 소대원들의 성격적특징이 더욱 살아나고있으며 말이 없는 주인공이 과연 소대를 휘여잡을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질수 있게 더욱 소란하고 복잡해지는 과정을 펼쳐보이고있다.

영기와 류혁의 사이가 더 격화되고 여차하면 치고 받고 할수 있을정도로 첨예화되고 그것으로 하여 소대의 단합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극적인 생활국면에서 주인공이 소대의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고리를 찾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소대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고리는 류혁을 안착시키고 교양개조하는것이라고 인정한 주인공은 광구장이 공무직장으로 보내게 한 그를 눌러앉히고 정희와 함께 안해 순화까지 껴들여 고드름이 가슴속에 차서 이지러지고 사나와진 성미를 길들이기 위한 뜨거운 사랑을 퍼붓기 시작한다.

작품은 한두마디의 충고나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류혁의 부족점보다도 긍정면을 찾고 그것을 조장발전시키고 내세워주는 주인공의 생활을 깊이있게 파헤치고있다.

공무직장에 가지 못하게 된 분풀이로 행패를 부리는 류혁의 란폭한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스스로가 멋적어져 굴착기의 운전대를 잡지 않을수 없게 하는 주인공 김철훈.

왜 말을 안하고 혼자서 근심만 하는가, 요구성도 높이고 비판도 하라, 말 안하는 성미도 고치고 웃기도 하라는 세포비서 황창민의 충고를 받고 애써 성격적변화도 일으키고있는 주인공.

친누나가 되어주겠다면서 육친의 정을 기울이

는 철혼의 안해 순화.

너성다운 부드러움과 아량을 가지고 거칠어진 류혁의 성격적대침들을 진심으로 녹여내면서 마침내 류혁을 혁신자로 되게 떠밀어주고 당원의 영예까지 지니게 하는데 정을 기울이고 품을 들여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매혹적인 처녀 립정희.

작품은 이 세사람과 류혁사이의 극적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번져지는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 류혁이 참다운 우리 시대의 청년으로 교양개조되는 과정을 생활발전의 변증법적로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개방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문제 이론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신양건과 그의 안해 라명순이 생활의 곡절을 겪다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만이 제일이고 가장 원칙적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영웅주의를 부리다가 사고를 치고서야 그 도고함이 수그러지고 집단에 용해되게 되는 영기의 생활도 그렇고 작품에 형상된 모든 생활은 진실하고 생동할뿐아니라 그 모든 생활국면들이 극적정서로 충만되어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하고 선명하게 조명하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리는것이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본성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로동계급의 생활을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에서 보고 아름답고 고상한 로동계급의 정신도덕적품성과 생활관을 형상하려는 높은 미학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이것은 생활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일련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으로 립체성있게 구현하고있는데서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이것은 또한 전형적인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려는 진지한 탐구와 사색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작품의 전편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한 생활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으며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생활단면을 찾아볼수 없다. 더구나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생활의 흔적은 꼬물도 없다. 다만 투쟁으로 일관된 소박하면서도 락천적인 극적인 생활이 충만되고있을 뿐이다.

또한 작품에는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골라 인상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에 정서적감동을 강하게 안겨주는 예술적화폭들이 수두룩하다.

이 형상적인 생활세부들로 하여 인물들의 복잡

하고 미묘한 생활세계가 깊이 개방되어 작품은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기도 하고있으며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형상세계에 깊이 끌어들이고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아도 이 작품을 본 시청자들은 전형적인 생활, 세부화된 인상깊은 생활화폭들을 얼마든지 기억할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고상한 사랑의 룬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형의 인간들의 련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화는 혁명사업을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향락에만 몰두하는 퇴폐적인 련애를 쳐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새형의 청년남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모범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철두철미 혁명사업에 복종되고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공고해지는 참다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형의 인간들의 련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공고해지는 참다운것이어야 한다.

텔레비죤연속극 《백금산》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애정룬리세계, 혁명사업에 복종되고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공고해지는 혁명적인 참다운 사랑에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주인공 철혼과 그의 안해의 사랑은 그 어떤 타산이나 흥정이 없이 일단 사랑을 맺은 다음에는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기의 진심과 순정을 바치는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철혼이가 대학으로 가겠하던 약속을 어기고 광산에 온것으로 하여 대학을 졸업한 의사인 순화가 변화한 도시생활을 버리고 광산으로 올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만 순화는 아무런 부대조건이 없이 광산으로 달려가 철혼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혁명사업에 헌신하는 혁명적인 사랑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티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정으로 사랑을 꽃피우고 서로 돕고 위해주면서 혁명과업수행의 자

랑찬 성과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감수하는 철훈과 순화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숭고한 모범으로 빛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주체적애정윤리관을 창작에 구현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탐구에 의하여 훌륭히 담보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에는 일정한 곡절은 겪지만 특색있게 형상된 라명순과 신양건의 사랑선이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광산이 그토록 무서운 산골이라는것을 모르고 왔다가 겁을 집어먹고 집으로 달아나버린 라명순, 그는 절망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달아난것이 아니라 남편을 자기에게로 끌어가리라는 결심을 품고 살짝 웃으면서 도망친 녀성이기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를 증오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백금산으로 끌려가겠는가 하는 극적기대를 가지고 그의 행동을 주시하였던것이다.

그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맞게 철훈과 순화의 진정에 감동되어 다시 광산으로 가며 이름없는 산골에서도 뜨겁게 맥박치는 시대의 숨결과 로동계급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심장으로 체험하면서 가족소대를 책임지고 7호굴착기소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을 떠밀어주는데서 삶의 궁지와 보람을 간직하게 되는 매혹적인 성격으로 형상되고있다.

라명순과 신양건의 사랑은 철훈과 순화의 사랑선과는 대조되지만 우리 시대 로동계급속에서 이채롭게 꽃피는 아름다운 애정윤리세계여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영기와 그의 애인 금화의 사랑이야기도 후일담의 형식으로 흥미있게 형상하고 있다.

우격다짐으로 처녀를 품짝 못하게 후려내고 녀살 좋게 인민군장령인 처녀아버지의 승인까지 받아내는 영기의 사랑이야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솔직하고 대범하고 호방스러운 성격적기질을 가식없이 보여준 진실한 형상으로서 웃음속에서 감수하게 되는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이 작품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선동원 림정희와 류혁의 사랑선이다.

성격적인 피벽성으로 하여 말썽꾼으로 되고있는 류혁을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에 들여세우기 위하여 진심을 기울이면서 모욕을 받고 울기도 하고 성을 내야 할 때에도 웃으며 상냥해지기도 하고 원칙을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엄해지기도 하면서 다양하고 로숙한 방법으로 까다롭기 그지없는 류혁을 인내성있게 교양해낸 처녀선동원 림정희.

거의 완성된 성격으로 형상된 이 처녀가 교양대상자라면 상대해온 류혁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시청자들은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텔레비존화면을 주시하였다.

이 작품의 창조자들은 림정희와 류혁의 애정윤리관계를 형상론리와 생활론리에 맞게, 또한 시청자들의 감정과 지향에 맞게 아주 진실하면서도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지지와 긍정의 환성이 터지게 하였다.

작품은 류혁의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림정희의 내면심리세계발전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펼쳐보였을뿐아니라 가슴속에 남모르게 자리잡은 림정희에 대한련정을 소대장앞에 털어놓았지만 정희와 자신의 수양과 인격의 차이, 교양자와 교양개조된 사람과의 쑥스러운 감정으로 하여 스스로 성사되지 못할것으로 단정하면서 정신적으로 모대기는 류혁의 생활세계의 파동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개방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심리를 한껏 긴장시켰다.

중앙기관에 배치받은 청년이 림정희에 대한 청혼사건, 그것을 알고 림정희와 류혁은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사실과 맞지 않는 편지를 그 청년에게 보낸 영기의 행동으로 하여 류혁이 모든것을 단념하고 멀리으로 떠나가게 되는 사건 등 있을수 있는 생활의 우여곡절로 하여 관중은 더욱더 애를 태웠다.

이러한 극적전개는 과장된것도 아니고 생활론리를 무시한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며 극적해결을 고대했다.

이 작품의 창작가들은 시당학교에 가있는 림정희가 철훈의 안해 순화로부터 류혁이가 멀리로 떠났다는 통보를 받고 열차에 올라 그가 가지 못하게 열차에서 내리우는 생활로서 그들의 사랑관계가 결속을 보게 되는 과정을 매우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자기가 가는 길을 막은데 대하여 닳하는 류혁에게 처녀의 고요하던 가슴을 뒤흔들어놓고 어데로 가려는가고 하는 림정희, 정희의 그 말뜻을 확인하려는 류혁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수집어서 먼저 달려가는 림정희와 기쁨에 넘쳐 그의 뒤를 따르는 류혁.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류혁과 림정희의 사랑선은 긴 설명이 없이 여운을 안겨주는 인상깊은 예술적형상으로 숨씨있게 마무리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조선각과 최귀녀가 재결합되는 사랑선도 의의 있고 소대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파제를 제격 받아놓지 못한 리성학에게 바지와 치마를 바꾸어입자고 들이대는 그 안해의 형상에서도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 안겨오고 강정식과 그의 안해 은실의 호상관계에서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교결한

애정ભૂલિસેજેકે બિજેકેકેકે.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ભૂલિસેજેકે 健健하고 진실하게 그리면서도 흥미있고 품위있게 형상한 여기에 이 작품이 성공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작품의 절정은 령도자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극치의 예술적화폭

텔레비죤련속극 《백금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16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인간애, 위인의 인간상을 빛나게 보여준 예술적화폭으로 형상되고있다.

말썽많은 7호굴착기소대, 폐기해버리겠하던 7호굴착기를 자체의 힘으로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광석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공로로 하여 소대전원이 평양견학의 배려를 받아안고 위대한 령도자의 다함없는 사랑에 목매이던 김철훈소대의 전원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는 격동적인 장면,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이바지한 극치의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굴착기를 굴려 골병이 들게 한 씻을수 없는 파오로 하여 정식은 입당도 못하고있다가 다른 굴착기소대로 이동한다. 소대원들 모두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을 때 자신은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서도 섭섭함을 금할수 없어하는 강정식이다.

한편 이 사실앞에서 그의 안해 은실과 아들 광혁의 마음은 아프고 허전하기만 하다.

그의 지난 기간 파오를 엄중시하고있는 일꾼들은 어쩔수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응당한것으로 여기였지만 어느 한 자식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에 지적된 8명의 로력영웅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사진을 찍은 9명의 7호굴착기소대원들의 불일치를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해명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사실내용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정식이 파오를 씻기 위해 노력한 사실과 자진하여 뒤떨어진 2호굴착기로 옮겨가 그 소대를 7호굴착기소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을 결의하였음을 헤아려보시고 그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7호굴착기소대원들과 똑같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하여 배려하신다.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배려가 배풀어지는 이 격동적인 사실을 극성으로 충만된 극치의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생활을 극적으로 깊이있게 전개하면서 감정을 점차적으로 축적하였다가 강정식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하해같은 은정을 받아안고 오열을 터뜨리게 되는 장면에서 폭발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는 이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있어 로동계급들속에서 무수한 영웅들이 자라고 영웅적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어 내 나라 내 조국이 더욱 隆성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참모습을 긍지높이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텔레비죤련속극 《백금산》을 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 공지와 자랑을 안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자기의 령도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한결같은 지향이 있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이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텔레비죤련속극 《백금산》은 텔레비죤문학을 극성으로 충만되고 개성이 뚜렷한 극적성격들을 빛나게 형상한 작가의 세련된 극적전형화솜씨가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음을 충분히 과시하고있다.

우리 극작가들은 텔레비죤련속극 《백금산》의 창조경험과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보다 완비한 경지에 끌어올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